

국어원 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

2007. 12. 27.



국립국어원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국어원 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소강춘(전주대 교수, 전주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장, 문학박사)

공동연구자 : 장미영(전주대 교수, 문학박사)

조항범(충북대 교수, 문학박사)

백두현(경북대 교수, 문학박사)

연구원 : 이수라(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책임연구원, 문학박사)

고은미(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책임연구원, 문학박사)

장충덕(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상근상담원, 문학박사)

연구보조원 : 김미정(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전임연구원, 박사수료)

송지영(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전임연구원, 박사수료)

김민옥(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상근상담원, 박사수료)

손대익(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상근상담원, 박사수료)

안미애(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상근상담원, 박사수료)

보조원 : 김민혜(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연구원, 석사과정)

김경렬(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상담보조원, 문학석사)

전영곤(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보조원, 석사수료)

안주현(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보조원, 석사과정)

최 준(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보조원, 석사과정)

김인규(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보조원, 석사과정)

김정아(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보조원, 석사과정)

2007. 12. 27.



국립국어원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제출문

국립국어원 원장 귀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연구책임자: 소강춘(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과제책임자: 소강춘

공동연구원: 장미영, 조항범, 백두현

연구원: 이수라, 고은미, 장충덕,

연구보조원: 김미정, 송지영, 김민옥, 손대익, 안미애

보조원: 김민혜, 김경렬, 전영곤, 안주현, 최준, 김인규, 김정아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2
3. 연구방법 및 절차	3

II.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기관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4
2. 조사 방법	5
1) 기관 선택 방법	5
2) 피조사 기관 수	7
3) 조사 형태 및 절차	9
① 홈페이지 조사	9
② 전화 조사	10
③ 설문 조사	10
④ 방문 조사	10
3. 지역별 기관 현황	12
1) 전북지역	12
(1) 중앙정부 지원 단체	23
(2) 지자체 지원 단체	35
(3) 민간단체	40
2) 경북지역	45
(1) 중앙정부 지원 단체	51

(2) 지자체 지원 단체	59
(3) 민간단체	70
3) 충북지역	72
(1) 중앙정부 지원 단체	76
(2) 지자체 지원 단체	82
(3) 민간단체	88
4. 지역별 분석 결과	90
4-1. 전북지역	90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90
(1) 상설 프로그램	90
(2) 단기 프로그램	91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92
(1) 상설 프로그램	92
(2) 단기 프로그램	93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94
(1) 상설 프로그램	94
(2) 단기 프로그램	96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96
(1) 상설 프로그램	96
(2) 단기 프로그램	96
5) 자녀교육 프로그램	96
(1) 상설 프로그램	96
(2) 단기 프로그램	97
4-2. 경북지역	97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97
(1) 상설 프로그램	97

(2) 단기 프로그램	100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100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102
(1) 상설 프로그램	102
(2) 단기 프로그램	102
4) 다문화가족 화합 프로그램	102
5) 자녀교육 프로그램	104
(1) 상설 프로그램	104
(2) 단기 프로그램	104
4-3. 충북지역	104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04
(1) 상설 프로그램	104
(2) 단기 프로그램	107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108
(1) 상설 프로그램	108
(2) 단기 프로그램	109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112
(1) 상설 프로그램	112
(2) 단기 프로그램	116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116
5) 자녀교육 프로그램	117
(1) 상설 프로그램	117
5. 실태조사 분석결과	120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20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122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122
4) 다문화가족 화합 프로그램	123

5) 자녀교육 프로그램	123
6. 조사 분석 활용 방안	123
7. 제언 및 대안	125
Ⅲ.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117
1. 연구 목적	127
1)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	129
2) 교육자(한국어교원)	130
2. 조사 방법	131
1)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	131
① 피조사자 선택 방법	131
② 피조사자 수	132
③ 조사 형태 및 절차	132
2) 교육자(한국어교원)	134
① 피조사자 선택 방법	135
② 피조사자 수	135
③ 조사 형태 및 절차	136
3.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137
1)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기초조사 항목 결과	137
① 출신국가별 분포	137
② 연령대별 분포	141
③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	143
④ 결혼 경로	144
⑤ 결혼 전 직업 여부 및 종류	145

⑥ 한국 입국년도	146
2)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실태	148
①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여부	148
② 한국어 학습 기간	149
③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장소 및 한국어 교원의 국적	150
④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형태	152
⑤ 한국어 교재의 종류	153
3) 한국어학습 경험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요구	154
① 한국어학습 기간	155
② 수강료 지불 여부	156
③ 한국어 학습 이유	157
④ 한국어 기능별 학습 비율	162
4) 한국어학습 무경험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요구	165
① 한국어학습 희망 이유	165
5) 한국어학습 만족도 실태	167
①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교원 만족도	167
6) 표준어/지역어 인식 실태	169
① 표준어와 사투리 인지도	169
7) 한국어 학습방식 요구 현황	172
4.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관련 설문 조사 결과분석	174
1)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사람	174
2)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	176
3) 자녀의 한국어 노출 실태	177
4) 자녀의 학습지교육 실태	178

5) 자녀교육 요구 현황	179
4.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180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 대상 기초조사 항목 결과	180
① 한국어교원 연령대별 분포	180
② 한국어교육 경력	183
2) 한국어교육 동기	186
3) 교사별 학습자 규모 및 출신국가	187
4)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현황	189
5) 한국어 교육 현장의 현황	190
① 방문교육 현장의 현황	192
② 소그룹 및 집합교육 현장의 현황	193
6) 한국어교재 활용 현황 및 교재 만족도	195
① 현재 사용하는 한국어교재	195
② 사용하는 교재의 적절성	197
7) 한국어교육 이외의 교육 현황	198
① 한국어교육 이외의 교육내용	198
② 한국어교육자료 개발 시 요구 현황	200
8) 한국어 교육형태 요구 현황	201
9) 한국어교원이 선호하는 교재 형태	203
6. 실태조사 분석결과	204
1)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	205
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5
2)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206
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6

3) 교육자(한국어교원)	208
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8
IV.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재 분석	210
1. 한국어교재 발간 현황	210
1) 언어권별	214
2) 수준별	215
3) 유형별	216
2. 한국어교재 분석	217
1) 교재 분석의 목적	217
2) 교재 분석의 방법	219
3) 교재 내용 분석	220
(1) 언어기능별 분석	220
① 말하기	220
② 듣기	222
③ 읽기	224
④ 쓰기	226
⑤ 문법 및 활용연습	228
(2) 주제별 분석	228
① 주제 항목	228
② 문화 항목	230
(3) 교재 구성 분석	234
① 분량 및 체제	234

② 구성 및 원리	235
③ 단원 구성	236
④ 삽화의 적정성	236
(4) 오류 분석	237
①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	238
② 번역 오류	238
3. 교재분석 결과의 활용방안 및 제언	238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안 모색	238
① 국가별 분류	240
② 수준별·능력별 분류	241
③ 지역별·상황별 분류	241
2) 언어 기능별 분석	242
3) 교재 구성 분석	244
4. 기대 효과 및 제언	246

※ 참고 문헌

<부록>

- 부록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실태조사 설문지1
- 부록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실태조사 설문지2
- 부록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지자체 기관용 설문지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와는 달리 한국사회에서 평생을 살아 갈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의사소통 문제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있어 한국어교육은 단순히 언어장벽을 해결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선결조건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들의 자녀 양육과 자녀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현재 실시되는 한국어교육은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들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다양한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산발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받는 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별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방안과 적절한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전북, 충북, 경북지역의 이주여성의 설문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동안 국가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과 그에 따른 학습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향후 지역별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2000년 이후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무난하게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특히 한국어 교육에 있어 농림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약 5 종의 책을 발간하는가 하면 지자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2006년부터는 찾아가는 한국어 방문교사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들인 공에 비하여 교육의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기존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자 그동안의 교육 방법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재의 실용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체도를 위해 효과적으로 제시해야할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반 행정기관 및 국민들에게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한국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설득력 있는 자료의 구성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주체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의 학습 대상자

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Ⅱ장에서는 지자체, 국제결혼이주여성지원센터, 각 급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시행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급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전화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Ⅲ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시행되는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원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설문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모국 및 한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실태, 한국어학습에 대한 만족도 및 희망사항, 자녀교육 희망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에서는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 여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교육할 때의 문제점,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에 적절한 교육 및 교재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Ⅳ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그동안 편찬된 교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영역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준별(초급, 중급), 주제별(상황별, 문화항목)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기관 실태조사

1. 조사 목적

1990년 이후부터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국가 간 이주를 원활하게 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03년부터 비약적으로 증가한 농촌 총각과 제3세계 국가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무수히 많은 이주여성을 낳았다.¹⁾ 이에 따라 이들 이주여성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선정되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센터가 마련되었다.

II장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북, 경북, 충북 지역을 표본 지역으로 선정하고 각 지역의 기관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세 지역의 기관별 현황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의

1) 1990년 이후 2005년까지의 국제결혼 건수는 240,755건이다. 이중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942명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80,813명이다. 1994년까지는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훨씬 많아졌다. 특히 2003년 이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국제결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vi.).

경로와 방법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는 보다 더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방법

1) 기관 선택 방법

본 사업의 조사 기관은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의 조사 기관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 산하 기관 단체

둘째, 각 도청, 시청, 군청 등 지자체 산하 기관 단체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

첫 번째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다. 이 기관 중 대표적 기관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에 38곳이 개설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향후 이들 센터를 각 시군에 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가장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파악한 만큼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2006년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순형 교수팀에게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방안』이란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부에서는 10개 도 40개 시·군 지역에서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방문교육 도우미를 10명씩 선발하여 교육자 1인당 3명의 학습자를 교육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와 사업 기간, 사업에 투입된 인원과 예산 등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농림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각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용역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산하 전국 국어상담소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관련한 한국어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사업의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노동부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사업의 두 번째 조사 대상 기관은 도·시·군에서 지원받는 지자체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 지자체들에서는 자체 프로그램과 사업 공모를 통해 다양한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여성의 전화, 여성단체연합, YWCA 등과 같은 민간단체들을 조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들 민간단체들 또한 민간의 후원과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피조사 기관 수

① 전북지역

전북지역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의 수는 총 23개 기관이다.

본 사업에서는 여성가족부 산하 3개 기관(장수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익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김제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농림부와 그 산하 4개 기관(정읍시청, 완주군청, 순창군청, 고창군청), 문화관광부 산하 1개 기관(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노동부 지원을 받는 전주교육대학 IHR 사업단, 전라북청, 전주시청, 덕진구청,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완주군청, 순창군청, 여성의 전화, YWCA, 여성교육문화센터, 전주한옥마을김장축제위원회, 한중여성교류협의회 완주군지부, 설예원, 전주상공회의소 등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각 읍·면·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교육이 있으나 대부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가운데 1회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들이어서 이들 기관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경북지역

대구·경북지역의 자치단체는 총 25개 기관으로 대구지역은 대구광역시청 1개 기관, 경북지역은 경북도청 1개 기관, 경북도청 산하 시청 10개 기관, 군청 13개 기관이 있다.

이중 조사 기관으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행정기관은 대

구광역시청 1개 기관, 경북도청 1개 기관 그리고 경북도 내 10개의 시청, 13개의 군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하위 기관의 사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내 구청 2곳과 동사무소 1곳을 선정하였다. 또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여성 관련 상담소,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복지관, 여성회 등의 기타 기관 27곳을 실태 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기관 분류	기관명	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
행정기관	광역시청	1	1-간접 지원
	도청	1	1
	시청	10	9
	군청	13	12
	동사무소	1	1
	대구광역시 내 구청	2	2
	소계	28	26
기타기관	상담소	1	X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3	3
	농업기술센터	1	1
	복지관	19	4
	여성회관	4	4
	소계	27	12
기관 총 계		57	38

<표 1-1> 대구·경북지역 내 조사 대상 기관 수

③ 충청지역

현재 충청북도의 각 지역에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한국어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각기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체계적

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서는 현재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여성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점검해 보고자 한 것이다.

대상 교육기관을 선택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과 12개 시·군청의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업무 담당자를 통해 해당 시·군의 이주여성 현황과 교육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는 1-3개의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이들 기관의 연락처와 담당자 인적사항을 파악하였다. 확인된 교육기관의 수는 모두 21 곳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이들 21개 교육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각 시군별 1개 기관은 방문하여 담당 직원 및 교사와 면담을 하였다. 방문 조사 기관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 기관은 전화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3) 조사 형태 및 절차

본 사업의 조사는 다음 4가지 형태로 진행하였다.

① 홈페이지 조사

기관별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기관의 주소와 연락처, 담당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② 전화 조사

기관별 조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홈페이지 조사를 통한 예비자료를 토대로 담당자와의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화 조사는 기 작성한 설문지를 중심으로 문답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업무에 바쁜 담당자와 전화통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본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얻기는 어려웠다.

③ 설문 조사

전화 조사에서 만족할 만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담당자의 협조를 구해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때, 기 작성한 설문지를 보내 작성을 유도하고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④ 방문 조사

홈페이지 조사, 전화 조사, 설문 조사 등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를 얻지 못했을 경우, 조사원이 직접 기관을 찾아가 담당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기초조사를 마쳤고 담당자의 충분한 이해를 얻고 있는 상태였기에 방문조사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설문 조사는 ‘홈페이지 조사→전화 조사→설문 조사→방문 조사’로 단계화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는 이전 조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해가며 실태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지역별 기관 현황

1) 전북지역

전북지역 기관별 한국어 교육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관처	부처명	시행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명	내용	교육형태	사업장	기간	단기/상설	일정	시간	모집인원	모집방법	교육비	참여자국적	소요예산	보조금비율 %	담당부서	비고
중앙정부	여성이민지원센터	장수결혼이민자지원센터	장수	063-352	이주여성교육사업	한국어교육 외, 상담, 가족캠프, 가족실, 청소년연극교실, 모든나라아시아축제	집합&방문	센터내교실	07.4.1~07.12.30	상설	매주요일 오후 2~3시	(2시간)	40~50명	광고 찾아가는아동양육서비스를통해서	무료	필리핀외	육천삼백만원	국비 100%		
				063-3362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	이주여성자녀 돌보이	방문	가정방문	07.4~11	단기			75세대	광고	무료	다양	육천삼백만원			
		익산결혼이민지원센터	익산	www.ifamil	이주여성교육사업	한국어교육 외, 문화예술포럼, 교육예술포럼, 교육통한한	집합	원광대생	06.5~(04.5부터실적사업)	상설	매주목화, 목 2-4시	(주2회2시간)	기초초급	리플릿, 맞춤수업, 신문홍보, 문자민자들끼	무료	다양	사천삼백만원	국비		

자 가 족 지 원 센 터	y n e t . o r . k r 0 6 3 - 8 4 1 - 6 0 4 5	2007 결민족림 혼이 가을 자아 한마당	국말 배우기. 상담	교육	활과학대				중급, 단 고 4 계 총 명 50	리환 의 정보교				시	도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의 장	집합교육	원광대문화체육관	07.2월 부 터 됨 실행 단기	2007. 5. 22	일일	400 여명	포스터 발 공문 송 음, 면 호보	무료	다양	전라 북 도로 산			
			특별한 사업명 없음	한국어교육 외	집합	김제이주인권센터	2007.1~ 12	상 설	매주 월 수, 금 오전 10 : 00 ~ 11 : 30	40명	홈페이지 회원제	무료	다양			
김 제 결 혼 이 민 자 가 족 지 원 센 터	김 제 w w . i m m i g r a n t . o r . k r 0 6 3 - 5 4 5 - 8 5 0 6															
농 림 부		부 실 부 교	한국예절문화	집합	군산위키홀호	2007. 12	5 단기	연회 중씩 2	2007.7 2007.11 1박2일	40쌍	도청위탁	무료	다양	천육만 팔십원 백사	국비 7 % 도	도청농업정책

			내선진학									복표지원					
완주군청	완주	240-4434	찾아가는서비스	한국어교육	1대1방문교육	학습자가정	2007.2~12	상설	연중	일주일 3시간	24명	홈페이지	무료	베트남외			주민복지과
			한국문화체험방문	한국문화체험	집합	용인민속촌	2007.11.29	단기	2007.1.1.29		70여명	읍면에서홍보	홍		삼천만원		
		240-4301	한국적응교육	요리, 가족상담, 아기돌봄, 문화교육 등	집합	문화의집자치센터	2007년 3.27 ~ 12	단기		과정에 따라 또는 2시간씩	205명	읍면에서홍보	홍		팔천만원		주민복지과
		240-4377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한국어교육	1대1방문교	학습자가정	2007.3~12	상설	2007.3~2007.12	일주일 3시간	각역마다 10명 이상	읍면에서홍보	홍	무료	베트남외	육천만원	국비7%시군30

문화관광광부	전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전주시효자동	063-220-3095, 3096	여혼자한문유성이를한화결민위국교	한국어교육	집합교육	강의실	2007.12.17~2008.2.16	단기	월~금	오전10~12후오2~4	30명	광고	무료	8개국	이천만	0%			
				다가문족화여캠	다문화가족 화합의장	화합의	집합교육	수창동북동소공원	2007.7.26	단기	2007.7.26		50명	음면에서홍보	무료	다양	오십만			
				다가문족화여캠	다문화가족 화합의장	화합의	집합	완주문화체육관	2007.12.8	단기	2007.12.8		60명	음면에서홍보	무료	다양	백삼십만			
				온누리안다문화교실	온누리안의장 화합의	한국문	집합교육	완주문화체육관	2007.12.8	단기	2007.12.8		50명	음면에서홍보	무료	다양	백만원			
노동대산학협	전주교협	전주시서서1	063-281	국혼여적개	결주인원및제이성자발	도내거주결혼이주여성고용창출	집합교육	강의실		상설	1차년:2007.4~11	오전10~12후오2~4	100여명	광고	무료	1개국	일억이천만	100%		

		동	-28 1 -23 46	자녀 문지 사업 방습도	한국어교육	학습지	학습자가정	2007.7~ 8	단기		학습 시간 따라	200 세대	동사무 소회 망자	무료	다 양	오 백 만 원			
부 안 군	부 안 중 회 사 회 복 지 관	부 안	http://www.buan.or.kr 063 -58 1-9 260	결혼 자정 위프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집합교육	부안중합사회복지관내프로그램실	2007.2~ 12	단기		주 2 회 10~12 시	35명	개별공 지주 변소개	무료	베 트 남 의	천 만 원			
완 주 군	완 주 군 청	완 주	240 -44 34	찾아 가 는 서 비 스	한국어교육	1대 1방 문교 육	학습자가정	2007.8~ 12	상 설 연 중		일주 일 3시 간	24명	홈 페 이 지	무료	베 트 남 의			주 민 복 지 과	
				한 국 문 화 체 험 방 문	한국문화체험	집합	용인민속	2007.11. 29	단 기	2007. 11.29		70여 명	읍면 에서 홍		삼 천 만 원				

유 문화 센터	주	-25 4 -38 13 011 -96 41- 262 5(홍 화영)	실(초급)국문이 습(중급)화의	합교육	문화포장 교육		설		10~12			료	양				팀
전주한옥마을 주마장위 김제회	전주한옥마을 주마장위 김제회	063 -28 1-25 51	전주한옥마을 주마장위 김제회	외국인을 위한 김장	일회성프로그램	한옥마을체험관	단기	2007. 11.19~ 11.27	10:00 ~ 17:00		광고	무료					
한성협주회	원주		여성인문협 자강문협	성인한류 문화	결민국·체 여성결혼이민자 장류·문화체험	한	집합	순장	2007. 10. 26	단기	2007. 10. 26 8시 ~ 19시	70명	음면홍보	18,000 원	다양		
설예원		063 -28 8-45 66	다문 가정 교교육	문화예절교육	집합교육	농협중앙회교육장	단기	연중	4시간	100 명	광고	무료	다양				한성협주회

기타	전북상 공회의 소	전주	외국인 대한 큰잔치	인당 행사	도청강당	2007. 5. 27	단기	14:00 ~ 17:00	600 명	광고	무료	다양				유학근 자 등
----	-----------------	----	------------------	----------	------	----------------	----	---------------------	----------	----	----	----	--	--	--	---------------

<표 1-2> 전북지역 기관별 국제결혼 이주여성 사업 현황

(1) 중앙정부 지원 단체

※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프로그램

1. 장수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① 이주여성교육사업

- 총사업비 : 6300만원
- 교육기간 : 07.4.1~07.12.30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외 가족캠프, 가족상담, 청소년연극교실, 모든 나라 아시아축제
- 교육형태 : 방문 교육,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40~50명
- 교육일정 : 연중
- 교육시간 : 학습자에 맞춰서
- 교육자 : 자원봉사자, 기관 내 자체 인력

② 찾아가는 아동양육서비스

- 총사업비 : 6600만원
- 교육기간 : 07.4.~07.11
- 교육분야 : 아동교육
- 교육형태 : 방문교육
- 모집방법 : 주변소개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75세대
- 교육시간 : 학습자에 맞춰서

- 교육자 : 자원봉사자, 기관 내 자체 인력

2. 익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① 이주여성교육사업

- 총사업비 : 4300만원
- 사업목표 :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 교육기간 : 06. 5~(04. 05부터 실적사업)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외 한국어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문화 체험, 정보화 교육을 통한 한국말 배우기, 상담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리플릿, 현수막, 신문홍보, 이민자들끼리의 정보 교환
- 모집인원 : 기초, 초급, 중급, 고급 4단계 총 5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교육일정 : 매주 화, 목 2-4시
- 교육시간 : 오전 / 오후 2시간
- 교육자 : 자원봉사자, 자체 인력

② 2007 결혼이민자가족어울림한마당

- 총사업비 : 전라북도 예산
- 사업목표 : 다문화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 교육기간 : 단기 프로그램(일회성)
- 교육분야 : 행사
- 모집방법 : 광고

- 선발인원 : 400여 명 참가
- 교육일정 : 2007. 05. 22

3. 김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① 이주여성교육사업

- 교육기간 : 2007.1~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외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홈페이지 광고
- 선발방법 : 회원제
- 선발인원 : 40여 명
- 교육시간 : 매주 월, 수, 금 오전 10 : 00 ~ 11 : 30
- 교육자 : 자원봉사자, 자체 인력

※ 농림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프로그램

4. 농림부

① 부부교실 / 가족캠프 / 모국방문 및 국내선진지 방문

- 총사업비 : 18,640천원 / 9,320천원 /
- 사업목표 :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문화교육 및 선진영농현장 방문 등을 통해 원만한 다문화가족 지향
- 교육기간 : 상하반기2회실시 / 1회실시 /
- 교육분야 : 행사성 프로그램
- 모집방법 : 군 단위 홍보
- 모집인원 : 40쌍 / 20쌍 / 1명

- 선발방법 : 기준을 적용한 심사
- 선발인원 : 군당 5명씩 / 1가족 / 도에서 1명

② 농촌여성결혼이민자 과정

- 사업목표 : 농촌에 정착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착 도우미로서의 능력 개발
- 교육기간 :
 - 제1기 : 2007. 5. 21 ~ 5. 23,
 - 제2기 : 2007. 10. 24 ~ 10. 26,
 - 제3기 : 2007. 11. 13 ~ 11. 15,
 - 제4기 : 2007. 12. 3 ~ 12. 5
- 교육분야 : 행사성 프로그램
- 모집방법 : 군단위 홍보
- 모집인원 : 1기당 2~3쌍
- 선발방법 : 기준을 적용한 심사
- 선발인원 : 1기당 2~3쌍
- 교육내용

교 과 목 명	시 간	강 사
계	23	
○ 인간행동 유형의 이해 및 행복한 부부대화법	3	김은희(청주여성의 전화 회장)
○ 부부가 함께하는 미술체험	2	윤숙희(윤숙희 미술 치료연구센터 소장)
○ 부부 노래교실	2	윤선(전문강사)
○ 농업기계의 안전관리 및 보관요령	2	김영배(한국농업 전문학교 교관)
○ 여성농업인 정책방향	2	김미숙(농림부 여성정책과장)
○ 부부미움 나누기 레크레이션 활동	2	최은미(전문강사)
○ 현장견학(KBS드라마센터, 에버랜드)	4	
○ 영상편지	1	전만길(옥천 결혼 이민자지원센터장)
○ 성공결혼이민자의 역할과 책임	2	전만길(옥천 결혼 이민자지원센터장)

5. 완주군청

①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친환경농업축산과)

- 총사업비 :6600만원
- 사업목표 :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2007.3~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교육형태 : 방문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모집인원 : 30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선착순
- 선발인원 : 30

- 교육시간 : 일주일 3시간(방문 교육)
- 교육자 : 서류전형과 지필시험, 면접을 통과한 지역 여성 인력(한국어 교육 전공 및 경력자 3명 포함)

6. 순창군청

①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산업경제과)

- 총사업비 : 6600만원
- 사업목표 :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2007.3~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교육형태 : 방문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모집인원 : 30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선착순
- 선발인원 : 30
- 교육시간 : 일주일 3시간(방문 교육)
- 교육자 : 서류전형과 지필시험, 면접을 통과한 지역 여성 인력(한국어 교육 전공 및 경력자 2명 포함되고, 강사 열 명 중 두 명 역시 국제결혼 이주여성임)

7. 고창군청

①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농업진흥과)

- 총사업비 : 6,600만원
- 사업목표 :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2007.3~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교육형태 : 방문교육
- 모집방법 : 주변소개, 읍면홍보
- 모집인원 : 30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선착순
- 선발인원 : 30
- 교육시간 : 일주일 3시간(방문교육)
- 교육자 : 서류전형과 지필시험, 면접을 통과한 지역 여성 인력(한국어 교육 전공자 없음)

8. 정읍시청

①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농업정책과)

- 총사업비 : 6600만원
- 사업목표 :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2007.3~12
- 교육분야 : 한국어교육
- 교육형태 : 방문교육
- 모집방법 : 주변소개, 읍면홍보
- 모집인원 : 30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선착순
- 선발인원 : 30
- 교육시간 : 일주일 3시간(방문교육)
- 교육자 : 서류전형과 지필시험, 면접을 통과한 지역 여성 인력(한국어 교육 전공자 없음)

※ 문화관광부 국제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9.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여름캠프

- 총사업비 : 50만원
- 교육기간 : 2007.7.26
- 교육분야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교육형태 : 집합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모집인원 : 5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교육자 : 센터 연구원
- 행사내용 :

일정	여름캠프 내용	비고
10:00 - 10:30	◎ 서로 인사 나누어요.	◎ 강사 - 고은미 송지영 ◎ 도우미 - 김명진
10:30 - 12:30	◎ 엄마 나라와 한국, 뭐가 다른가요? 문화 차이 알아보기	
12:30 - 14:00	◎ 엄마 나라 음식 맛있어요? 베트남 · 캄보디아 · 한국 음식 만들 기	
14:00 - 16:00	◎ 엄마 나라 알아 볼까요? 태극기와 엄마 나라의 국기 그리기 각국 국가의 의미 알고 부르기	

② 다문화가족을 위한 겨울캠프

- 총사업비 : 130만원
- 교육기간 : 2007.12.8
- 교육분야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교육형태 : 집합
- 모집방법 : 주변소개, 읍면홍보
- 모집인원 : 6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교육자 : 센터 연구원
- 행사내용 :

일정	내용	비고
10:00 - 12:00	◎ 온가족이 함께 되는 시간	◎ 캠프 강사 : - 이수라, 김명진 - 오미숙(외부강사)
12:00 - 13:30	◎ 각국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	
13:30 - 15:00	◎ 우리 엄마의 한국말 숨씨	
15:00 - 16:00	◎ 각국의 전통의상	

③ 은누리안을 위한 다문화교실

- 총사업비 : 100만원
- 교육기간 : 2007.12.8
- 교육분야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 교육형태 : 집합
- 모집방법 : 주변소개, 읍면홍보

- 모집인원 : 5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교육자 : 센터 연구원
- 행사내용 :

일정	내용	비고
10:00 - 11:00	◎ 여러 나라의 인사말	◎다문화교실 강사 - 고은미, 송지영 - 최용배, 채혜란 (외부강사)
11:00 - 12:00	◎ 여러 나라의 전통놀이	
12:00 - 13:30	◎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13:30 - 14:30	◎ 여러 나라의 국기	
14:30 - 16:00	◎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④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 주관: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 대상: 한국문화 교육을 원하는 전북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 총사업비: 2000만원(전주대학교 누리사업단 지원)
- 사업목표 : 도내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 교육 시간: 오전반: 10시~12시 // 오후반: 14시~16시
- 교육분야: 한국문화 전반
- 교육 내용: 한국의 음식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의식·의례·놀이, 역사와 사상

월	화	수	목	금
음식문화	역사·사상	의식·의례·놀이	생활문화	예술문화
밥·면·죽	역사1	결혼식	의생활	옛이야기1
국·찌개	역사2	장례식	가족·부부예절	옛이야기2
김치	종교1	제사	돌·생일잔치	전통음악
불고기	종교2	국가지정기념일1	임신과 출산	현대음악
명절·제사음식	위인	국가지정기념일2	육아·자녀교육	드라마·영화
계절음식	지리	전통놀이1	의료기관이용법	미술
장류·젓갈류	유적	전통놀이2	공공시설이용법	한지공예
외식	유물	현대놀이	의식문화	매듭공예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모집방법: 지역 TV 광고, 우편 광고, 플래카드, 전단지 배포
- 모집인원: 100명
- 선발방법: 선착순
- 선발인원: 60명
- 교육일정: 매주 월-금
 - 1차: 2007년 12월 17일 ~ 2008년 2월 16일(매주 월~금)
 - 2차: 2007년 12월 31일 ~ 2008년 2월 29일(매주 월~금)
- 교육시간: 오전 10-12시 // 오후 2시-4시
- 교육자: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과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전문 교수진

※ 노동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프로그램

10. 전주교대 산학협력단

① 국제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지원 사업
(IHR 교육사업단)

- 주관: 전주교육대학 산학협력단
- 총사업비: 1억2천만 원(노동부 지원)
- 사업목표 : 연간 30명 취업
- 교육기간: 3년
- 교육분야: 5개 분야
 - 교육서비스 분야, - 의료서비스 분야, - 식품가공업 분야, - 기계부품가공 분야
 - 기타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지역 TV·신문·잡지 광고, 우편 광고, 플래카드, 전단지 배포
- 모집인원: 100명
- 선발방법: 한국어 지필 시험, 한국어 심층면접
- 선발인원: 50명
- 교육일정: 2007년 4월-11월, 2008년 4월-11월, 2009년 4-11월
- 교육시간: 매주 월-금
 - 오전 10~12시 취업 교육

- 오후 2시~4시 한국어 교육

- 교육자: 취업 교육의 경우는 각 분야 전문가 초빙
한국어 교육의 경우는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진
- 사업시행결과: 방과 후 교사, 간병인 등으로 대부분 취업 성공

② 은누리안 문예 백일장 대회

- 총사업비 : 100만원
- 교육기간 : 2007.11.7
- 교육분야 : 백일장 대회
- 교육형태 : 일회성 행사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선발방법 : 선착순

(2) 지자체 지원 단체

1. 전라북도

① 이주여성자녀 대상 문화영재 교육

- 교육기간 : 2007.8.1~8.5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플래카드 광고
- 모집인원 : 3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30명
- 교육시간 : 1회 2시간

- 교육내용

1강	나의 정체성 찾기
2강	한국동화읽기
3강	한국의 옛이야기 읽기
4강	한국역사만화보기
5강	어린이 사회성 기르기
6강	한국의 가족문화
7강	나의 몸 알기
8강	친구만들기
9강	나의 마음 읽기
10강	어린이 독서지도

② 한국어교실 및 문화융화교실 (순창군청 위탁)

- 총사업비 : 1500만원
- 사업목표 :
 -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가장 기본적인 발음 교정
 -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과 문화 적응
 - 각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 사이 차이의 규명
- 교육기간 : 2007.2~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및 음악 치료(초·중급)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 선발인원 : 24명

- 교육일정 : 금요일 오후 2시
- 교육자 : 연구원
- 교육의 전문화 정도 : 학급 편성 시 VPI·조음감별검사와 그림어휘력검사(PPVT) 등의 언어검사법을 도입함

2. 덕진구청

① 한글교실

- 교육기간 : 2007.9~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광고
- 모집인원 : 15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15명
- 교육시간 : 주1회 3시간
- 교육자 : 자원봉사자

3. 전주시청

①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방문학습지 지도사업

- 총사업비 : 1000만원 / 500만원
- 사업목표 :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위한 한국어 학습 지원
- 교육기간 : 2007.4~12 / 2007.7~8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방과 후 자녀 지도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방문 교육
- 모집방법 : 동사무소를 통한 홍보
- 선발방법 : 희망자
- 선발인원 : 50명 / 200세대
- 교육일정 : 주 2회
- 교육시간 : 10~12시 /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다름
- 교육자 :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4. 불안종합사회복지관

① 결혼이민자가작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 총사업비 : 1000만원
- 교육기간 : 2007.2~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교육형태 : 집합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개별 진화
- 모집인원 : 35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35명
- 교육일정 : 주2회
- 교육시간 : 오전10시, 오후2시

5. 완주군청

① 찾아가는 서비스(주민복지과)

- 교육기간 : 2007.8~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 교육형태 : 방문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 선발인원 : 24명
- 교육시간 : 일주일 3시간(방문 교육)
- 교육자 : 선발된 강사

② 한국적응교육(주민복지과)

- 총사업비 : 8500만원
- 교육기간 : 2007.3~12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외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읍면 홍보
- 선발방법 : 학습자의 요청에 따라
- 선발인원 : 205명
- 교육자 : 선발된 강사
- 교육내용 :

연번	과정명	개소	운영횟수 및 시간	내 용
1	요리반	3	월1회(목) 첫째주 오전10시-12시(2시간)	- 김치담그기(배추김치, 깍두기 등) - 한국음식 1가지씩 배우기(불고기,나물무침, 돈까스 등)
2	전문 기술반	3	주2회(화,수) 오전10시-12시 2시간	- 컴퓨터, 홈패션 (퀼트, 비즈공예) 등 전문 기술 분야
3	문화 (체험) 반	3	월1회(목) 둘째주 오전10시-12시 2시간	- 자국 문화(의.식.주, 전통문화 등) 소개 - 생활.예술문화(영화,예술,기념관)체험 - 산업.제도.역사문화(산업체,관공서)체험

				- 교양.취미 교육
4	가족 상담반	3	월1회(목) 셋째주 오전10 시-12시 2시간	- 가족관계(부부,자녀,시부모) 상담 - 심리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5	자조 모임	3	월1회(목) 넷째주 오전10 시-12시 2시간	- 레크레이션 - 이주여성 자조모임, 남편모임
6	자녀 돌봄	3	주2회(화,수)월4 회(목) 오전10시-12시 2 시	- 교육 진행 중 자녀 돌보기 (보육교사 배치)

(3) 민간단체

1. 여성의 전화

① 우리모두 행복한 세상 만들기(시청공모)

- 총사업비 : 500만원
- 교육기간 : 2007.3~12
- 교육분야 : 문화 체험, 부모 훈련, 심신 회복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 모집인원 : 20여 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20여 명
- 교육일정 : 매주 금요일 2시간

② 날자 프로젝트

- 총사업비 : 기업체의 후원(삼성)
- 교육기간 : 2007.8.1~8.8
- 사업목표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의 가족들이 합

계 방문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
기 위함

- 주관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여성재단(공동주관)
- 후원 : 삼성생명
- 기간 : 2007. 8. 1~8. 8(총7박8일)
- 방문국가 : 필리핀, 베트남
- 지원대상 : 국내 거주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제결혼 가정(한 가정 당 최대 4명 신
청가능)
- 내용 : 이주여성의 친정방문
- 교육형태 : 일회성 행사
- 모집대상 : 한국 입국일이 2004년 3월 1일 이전인 자
와 그 가족(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우대)
- 모집방법 : 주변 소개
- 선발방법 : 각 시군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사업 담
당자 추천과 자기 소개서

2. 전주 YWCA

① 결혼이민여성 백일장

- 총사업비 : 롯데홈쇼핑과 협력
- 교육기간 : 2007.10.5 오후 2시
- 교육분야 : 일회성 행사
- 모집방법 : 신청서 제출
- 모집인원 : 100명

3. 여성교육문화센터

① 한글교실, 한국문화의 이해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분야 :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 교육형태 :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광고
- 모집인원 : 3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선발인원 : 30명
- 교육시간 : 화, 목 10~12

4. 전주한옥마을김장축제위원회

① 외국인을 위한 김장체험

- 교육기간 : 2007.11.19~11.27
- 교육분야 : 문화 교육
- 교육형태 : 일회성 행사
- 모집방법 : 광고
- 교육시간 : 10:00~17:00

5. 설예원

① 다문화가정문화교육

- 교육기간 : 연중
- 교육분야 : 문화교육
- 교육형태 : 일회성 집합 교육
- 모집방법 : 광고

- 모집인원 : 100명
- 선발방법 : 선착순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자 : 농협중앙회

(4) 기타 프로그램

1. 상공회의소

① 외국인 한마당 큰잔치

- 교육기간 : 2007. 5. 27
- 교육형태 : 일회성 행사
- 모집방법 : 광고
- 모집인원 : 600명(유학생, 근로자 등)
- 선발방법 : 신청서 제출
- 행사내용

행사명	시 간	행 사 내 용
식전행 사	13:40 ~14:00	● 국악공연 (백제국악원 타악기그룹 “모악”)
개 회 식	14:00 ~14:25	● 도지사 감사패 : 4개 업체(외국인 고용 모범 업체) ● 대 회 사 :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환 영 사 : 전라북도지사 ● 축 사 : 전라북도의회의장
한 마 당 큰 잔 치	14:25 ~16:25	● 개막공연(8분) : 태권무 (우석대학교 태권도 학과) ● 장기자랑(94분) : 장기자랑 20명, 한국말 골 든 벨, 즉석댄스 ● 초청공연(18분) : 통기타 라이브 가수 “노스 텔지어”, 부채춤

시 상 식	16:25 ~16:45	• 장기자랑 수상자 9개 팀(대상 1, 우수 2, 장 려 3, 인기 3)
폐 회	16:45	• 폐 회

2) 경북지역

경북지역 기관별 한국어 교육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기관인 25개 행정 기관에서 시청 1개 기관과 군청 1개 기관을 제외하고 23개의 기관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관의 경우는 조사 대상 27개 기관 중에서 여성회관 4개 기관, 복지관 4개 기관, 국가 지정 결혼가족지원센터 3개 기관(경북 포함) 그리고 청도군청을 조사하며 부수적으로 조사된 청도 농업기술센터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 처	부처명	시행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사업명	내용	형태	사업장	기간	일정	시간	모집 인원	모집 방법	교육 비	참여자 국적	소요 예산	보조금 비율%	담당 부서	비고
중앙 정부	여성가 족부	남구결혼 이민자가 족센터	대구	053-4 75-23 2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소 그룹	강의실		8회*오후	2시간	150	입소문		베>중>필		50%	결혼이민 자 가족지원 팀	
		구미결혼 이민자가 족센터	구미	054-4 64-05 45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센터		8회/오전	4시간	80	시청, 인터넷, 입 소문	무료	중>베>태 >필		100%	결혼이민 자 가족지원 팀	
		달서구청	대구	053-5 80-68 19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계명대학 교 강의실		8회/오전, 오후	2시간	25	지자체기관, 홍보매체, 전화 연락, 이용자의 친구들 통한 연 락	무료	중>베>우 즈백>몽> 캄		100%	결혼이민 자 가족지원 팀	
		예천여성 회관	경북	054-6 50-62 12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읍면사무 소+ 각 가정		12회/오전, 오후	6시간	150	공문, 읍면 홍보	무료	베>중, 필		33%	예천군 사회복지 과	
		울진군청	경북	054-7 89-54 10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복지관교 육실		4회/오전	3시간	35	모집공고, 구전	무료	중>일>베 >필		100%	주민생활 지원과	
		청송군청	경북	054-8 70-62 1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8회	2시간	35	신청많은 공문, 회보	유료	베>태		100%	사회복지 과	
		의성군청	경북	054-8 30-65 83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소 그룹	가정과 면사무소		2회/오전, 오후	하루3 시간	18	신청	무료	베>중		100%	노인여성 복지과	
		예천군청	경북	054-6 54-38 01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3회	80		무료					사회복지 계
		구미시청	경북	054-4	이주여성한국어	한국어교육	방문+ 집	읍면동사		8회	4시간	232	홍보	무료	중>베>필		33%	외국인복	

지자체	농림부		50-64 43	교육		합	무소									지지원과		
		영천시청	경북	054-330-6212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기관자체교육장,각 가정,교회		8회/오전,오후	6시간	108	공개모집	무료	베>필>중>문,우즈백,인도	100%	사회복지과(여성정책계)	
		예천군청	경북	054-654-3801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12회		80		유료	베	50%	사회복지계	
		성주군청	경북	054-933-6913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회관		12회	3시간	30-50	홍보+음면사무호	무료	베>필	50%	성주문화회관	
		봉화군청	경북	054-679-6170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소그룹	가정+여성회관		12회/오후	3시간	80	공무원면담+홈페이지게시	무료	베>필>일>중>잡	100%	주민생활지원과	
		문경시여성회관	경북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여성회관+각 가정		12회/오후,자유	9시간	160	공문+전화+방문	무료	중>베	33%		
		문경시청	경북	054-550-6212	이주여성한국어교육													
		농림부	상주시청	경북	054-536-2217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가정		12회/자유	3시간	60	공문만	무료	베>필>잡>태>일	50%	사회복지과
	문경시여성회관		경북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여성회관+각 가정		12회/오후,자유	9시간	160	공문+전화+방문	무료	중>베	33%		
		도청	고령군청	경북	054-950-6210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관내보육시설(동반자녀보육용이)				70		무료	베>중>필>태	30%	여성가족계
	영덕군청		경북	054-730-6212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소그룹	여성회관,방문교육병행		4회/오전,오후	2시간	50	공문+신청자접수	무료	필>베>일>중>인도네시아>키르키스탄	100%	사회복지과	

	예천군청	경북	054-654-3801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12회		80		유료	베	50%	사회복지계
	성주시청	경북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회관		12회	3시간	30-50	홍보+읍면사무소	무료	베>필	50%	
	구미시청	경북	054-450-6443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읍면동사무소		8회	4시간	232	홍보	무료	중>베>필	33%	외국인복지지원과
	경산시청	경북	053-810-6596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0명이상집합	여성회관		16회/오후	4시간	60	각급사무소,홈페이지	무료	베>필>중>일	100%	여성회관
	포항시청	경북	054-270-5541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0명이상집합	여성문화회관,읍면방문교육장		12회/오전,오후	6시간	247		유료	베>중>필>일	100%	여성문화회관교육계
	칠곡군청	경북	054-979-6214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복지관,방문		8회	3시간	30	전화접수->지원	유료	베>필	50%	사회복지과여성보육계
	군위군청	경북	054-380-6161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읍면사무소		4회/오후	2시간	54		무료	베>필	100%	사회복지과
	포항여성회	경북	054-284-0404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교육실		4회/오전	2시간	76	지역케이불방송,입소문	무료	필>베,중,몽	25%	과광새이주여성센터
시청	구미시청	경북	054-450-6443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읍면동사무소		8회	4시간	232	홍보	무료	중>베>필	33%	외국인복지지원과
	상주시청	경북	054-536-2217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가정		12회/자유	3시간	60	공문만	무료	베>필>갑>태>일	50%	사회복지과
	문경시여성회관	경북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집합	여성회관+각가정		12회/오후,자유	9시간	160	공문+전화+방문	무료	중>베	33%	
	포항여성	경북	054-2	이주여성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교육실		4회/오전	2시간	76	지역케이불방송	무료	필>베,중,	25%	과광새이

	회		84-04 04	교육								송, 입소문		몽		주여성센 타
군	달성군청	경북	053-6 61-25 3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10명이상 집합	여성문화 복지센터	6회/오전, 오후	4시간	49	자원봉사자	무료	베>필>태 >일	100%	여성이동 계	
	영양군청	경북	054-6 80-62 12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읍면사무 소	8회/오전, 오후	3시간	45	전화, 반상회보, 홈페이지	무료	베	100%	사회복지 과	
	칠곡군청	경북	054-9 79-62 1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방문+ 집 합	복지관, 방문	8회	3시간	30	전화접수->지 원	유료	베>필	50%	사회복지 과여성보 육계	
	고령군청	경북	054-9 50-62 10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관내보육 시설(동 반자녀보 육용이)			70		무료	베>중>필 >태	70%	여성가족 계	
	예천여성 회관	경북	054-6 50-62 12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읍면사무 소+ 각 가정	12회/오전, 오후	6시간	150	공문, 읍면 홍보	무료	베>중, 필	33%	예천군청 사회복지 과	
	면															
	구청	동구청	대구	053-6 62-20 00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방촌동동 사무소	8회/오전, 오후	2시간	20	공고, 전화홍보	무료	베>갑>중 , 필>기타	100%	경제과
		북구관음 동동사무 소	대구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4회/오전, 오후	2시간	30-40		무료	베>중	100%	
민간 단체	여성의 전화															
	YWCA															
	사랑의 열매	포항여성 회	경북	054-2 84-04 0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교육실	4회/오전	2시간	76	지역케이블방 송, 입소문	무료	필>베, 중, 몽	25%	포항새이 주여성센 타
	기관자 체	포항여성 회	경북	054-2 84-0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교육실	4회/오전	2시간	76	지역케이블방 송, 입소문	무료	필>베, 중, 몽	25%	포항새이 주여성센

			04														타	
	이주여성 상담소	대구	053-6 24-79 22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소그룹	교회		4회/일요 일오후	1:30	일정하지 않음		무료			100%	부서없음	
	예천여성 회관	경북	054-6 50-62 12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읍면사무 소+ 각 가정		12회/오전, 오후	6시간	150	공문,읍면 홍보	무료	베>중,필		33%	예천군청 사회복지 과	
	선린종합 복지관	대구	053-3 23-22 97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관내교육 실		8회	4시간	30	지역신문활용, 안내지,초대장 이용	유료(1000 0원)	베>중>일 >필		100%	-	
	월성종합 사회복지 관	대구	053-6 34-41 13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동아리교 실		8회/오전	2시간	14	언론,안내포스 터,입소문	무료	중		40%	달서구주 민생활지 원과	
	성서종합 사회복지 관	대구	053-5 83-12 8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복지관교 육실		8회	2시간	80	언론홍보,입소 문	무료	중>베,일, 우즈벡		100%	달서구청 주민생활 지원과	
	남구결혼 이민자가 족센터	대구	053-4 75-23 24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방문+소 그룹	강의실		8회'오후	2시간	150	입소문		베>중>필		50%	결혼이민 자기주지 원팀	
공동사 회복지 모금회	월성종합 사회복지 관	대구	053-6 34-41 13	이주여성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집합	동아리교 실		8회/오전	2시간	14	언론,안내포스 터,입소문	무료	중		60%	달서구주 민생활지 원과	

(1) 중앙정부 지원 단체

중앙 정부 지원의 주요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농림부이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족 사회 통합 지원 대책, 찾아가는 서비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아동 양육 지원 등 다양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 수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도 이러한 여성가족부 사업의 지원을 받는 곳이 많다.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의 경우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부부, 가족 생활 교육, 문화 이해 교육, 자녀 양육 교육 등 교육 사업의 폭이 아주 넓은 편이다.

농림부는 농촌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농촌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를 안정적인 여성 농업인이자 한국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역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구·경북 지역 중 대구광역시도 대도시로 농림부의 지원은 없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경북도의 경우는 시 지역도 농업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 농림부의 지원이 많을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지원도 중복으로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상북도 산하 시

○ 구미시

구미시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528명 정도이며 귀화자는 100명 정도이다. 처음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수는 232명 정도이다. 교육 장소는 다양한데, 이유는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주 교육 장소는 구미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가톨릭 문화회관, 제일 교회 여성 지원센터, YMCA선산사무실 등이다.

지원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남편모임, 한마음운동회, 긴급 구조 등 46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경산시

경산시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300여명이며 이들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다. 처음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경북도의 지원과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사업은 10명 이상의 집합 교육의 방법으로 현재 6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사업 이외에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비즈공예,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예절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문경시

문경시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총 203명으로 국적은 중국과 베트남이 대부분이다. 문경시는 농림부, 여성가족부, 기관 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 사업 종류는 요리교실,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 한마당, 한국예절 교육과 한국어 교육이며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수는 160명 정도로 80% 정도이다.

한국어 교육의 방법은 일대일의 가정 방문 교육과 10명 이하의 소그룹 교육으로 주 3회 2시간씩 교육하고 있으며 학습자 모집 방법은 읍·면사무소 모집 공문 발송, 직접 가정마다 전화(초기), 이후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봉화군

봉화군 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총 104명(2007년 11월)으로 이들의 국적은 베트남>필리핀>일본>중국>캄보디아의 순이다. 봉화군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 사업 종류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비즈공예,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전통문화교육, 한국예절교육 등으로 다른 곳에 비해 많은 편이며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는 수는 전체 104명 중 80명 정도로 76.9% 정도이다.

한국어 교육의 방법은 일대일의 가정 방문 교육과 5명 이하의 소그룹 교육으로 주 3회 3시간씩 교육하고 있으며 학

습자 모집 방법은 공무원의 방문 면담, 홈페이지 게시의 방법이다.

○ 영양군

영양군청 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총 65명(2007년 9월)으로 베트남 출신이 제일 많다. 영양군은 농림부와 기관 자체 예산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행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요리 교육으로 수혜자 수는 45명 정도로 69% 정도이다.

한국어 교육의 방법은 10명 이상의 집합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학습자 모집 방법은 반상회보, 전화, 홈페이지 게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청도군

청도군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90명이며 이들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순이다. 처음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한국어 교육과 함께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비즈공예,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 한마당, 한국전통문화교육, 한국예절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27명 정도만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청도군의 한국어 교육 사업은 방문교육과 소그룹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방문 교육자로 민간 사업자인 대교의 눈높이 선생님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 고령군

고령군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83명이며 이들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태국 순이다. 처음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며 한국어 교육과 함께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 한국문화체험, 미술심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중 60명 정도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어 강사 선발의 경우 경북도청에서 영남대에 위탁교육해서 배출된 강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은 도비 지원이 30%, 군비 지원이 70%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장소로 관내 보육시설을 사용하여 동반자녀를 보육하기 용이한 것이 이 지역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의 특징이다.

○ 성주군

성주군은 현재 117명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살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산발적으로 참석하여 전체 수혜 인원을 가늠하기 어렵다. 처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시행했으나 차츰 도비 보조가 늘어나 최근에는 도비 보조 사업이 많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필리핀의 순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국적이 구성되며 한국어 교육 외에 상담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예천군

예천군은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 지원 그리고 자체 예산 등 여러 경로에서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178명 정도로 베트남 출신이 대부분이다. 주 사업은 한

국어 교육이며 방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한다. 방문 교육의 경우 대교에 위탁하여 주 1회 1시간 씩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의 집에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요리교실과 전통문화교육 등을 다양하게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여성결혼 이민자의 수는 각 지원 사업에 따라 다른데 우리말 공부방 80명, 방문 교육 75명, 임신출산 도움 사업 78명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 의성군

의성군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교육과 요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관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155명으로 베트남과 중국 출신이 대다수이며 그중에서도 베트남이 제일 많다. 교육 방법은 방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사업 수혜자 수는 18명 정도밖에 안 된다.

○ 청송군

청송군은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76명 정도이다. 실시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상담 사업인데 수혜자 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서 가늠할 수 없다. 특이한 점은 재능교육 강사를 활용하여 방문 학습지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상주시

상주시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300명 이상이며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혜자 수는 60명 정도인데 신청자가 많아서 심사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제일 많으며 그 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일본 등이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 요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종이접기나, 공예 등을 가르치기도 한다.

○ 영천시

영천시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230명 정도이다. 이중 108명 정도가 사업의 수혜자인데 대다수가 베트남 출신이며 그 외 필리핀, 중국 등이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외에 요리, 공예,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울진군

군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88명 정도이다. 중국 출신이 제일 많으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35명 정도가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는 타 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장 담그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구미결혼이민자가족센터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미시내에 거주

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약 528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센터의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80명 정도로 중국 출신이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필리핀 순이다. 한국어 교육 사업과 요리 교실,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강사는 경북도에서 영남대에 위탁 교육한 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 남구결혼이민자가족센터

대구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구에서 처음으로 생긴 결혼이민자가족센터이다. 본 기관의 사업 수혜자는 150명 정도인데, 주 지원처는 여성가족부이며 현재는 법인 예산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요리, 아동양육 컴퓨터, 남편, 자녀, 시어머니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아동 양육 교사와 보육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달서구결혼이민자가족센터

대구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구 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생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이다.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장소 확보에 용이한 점도 특징이다. 교육 수혜자 수는 97명 정도이며 대부분이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다. 한국어 교육 사업 이외에도 컴퓨터 가족교육, 여행, 다문화가족 한마당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청도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농림부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60명 정도가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주 출신국가는 베트남, 중국 순이다. 주로 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사 1명당 학생 수가 3명 정도이다. 한국어 교실 외에 부부교실과 청도소싸움 관람과 같은 한국문화체험도 주관하고 있다.

(2) 지자체 지원 단체

지자체는 상위 지자체의 지원과 자체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몇 개 기관은 상위 기관의 지원, 자체 지원, 중앙 정부 지원을 복합적으로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있어 중복되는 곳은 상위 기관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 경상북도 지원 기관 및 단체

○ 성주군

성주군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117명(2007. 2.)으로 출신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의 순이다. 처음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주 수행사업은 한국어 교육 사업과 상담 사업의 두 가지이다.

한국어 교육 사업은 30명 정도를 방문 교육하고 있으며 20명 정도는 집합 교육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와 경북도의 지원을 동시에 받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습자 모집 방법은 직접 흥

보 방법을 사용하고 읍, 면단위로 공문을 통해 홍보한다.

○ 영덕군

영덕군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80명 정도로 출신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의 순이다. 처음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을 수행했으며 한국어 교육과 요리교실, 한국예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사업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의 방문교육과 소그룹 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50명 정도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모집방법은 공문 홍보 방법만 사용하고 있다.

○ 칠곡군

칠곡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90명 정도이다. 주 출신 국가는 베트남과 필리핀으로 주 시행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며 그 외에 요리, 컴퓨터, 한국전통문화 및 예절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주로 도비와 자체 기관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며 이러한 사업의 수혜자 수는 30명 정도인데 일정하지 않다.

◎ 자체 예산 기관 및 단체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2,496명(혼인 귀화자 1022명)이며 조선족, 베트남, 중국 출신의 여성이

많다. 한국어 교육 경험자 수는 특별히 통계자료가 없어 알 수 없고 아울러 연령대나 학력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상 사업은 없으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두 곳(남구와 달서구)에만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건비 지원의 양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인건비이며 그 외에는 자원봉사로 해결하고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구광역시 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수>

구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원 수	2,496	94	424	295	185	415	264	578	242

<대구광역시 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실적>

구분		한국어교육 수혜자 현황
06'	남구	597
07'	계	2,893
	남구	1,178
	달서구	1,715

대구광역시의 경우 대구광역시 소재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센터 두 곳과 복지관 한 곳을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 간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주요 행정기관 주도가 아닌 하위 구청, 동사무소별로 여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기금, 자체 구, 동사무소 예산을 이용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중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체 3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구광역시청은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나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하위 기관에 예산만 일부 지원하지 이러한 하위 기관이나 복지관의 사업에 대해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경상북도

경북도의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본 조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으며 하위 기관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 여부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경북도는 2006년부터 “이민여성가정에 새로운 행복이 2010”이라는 큰 사업 목표 아래 “새 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에 대한 태도가 상이한 이유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도시보다는 주로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북도의 경우 농어업 종사자 결혼의 50.2%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북도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문제를 인지하고 여성가족부, 농림부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도 자체에서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전문 교육자 양성(영남대 위탁, 101명 수료), 친정 만들어 주기, 우리말 공부방, 찾아가는 서비스(농림부 찾아가는 한글 교실과 별도로 운영), 고향 보내주기, 일자리 알선, 아동 양육지원, 다문화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거주하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가족에 대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도내에 거주하는 전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3,469세대에 대하여 2007년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조사하여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2007년 6월 18일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 보고서는 경상북도 여성 정책 개발원에서 경상북도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연구·분석하여 발간하였다. 실태조사의 목적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은 물론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및 자녀까지 포괄하여 한국 적응, 가족 생활, 경제 생활 실태 등 생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을 조사하였으며, 연구내용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특성 및 결혼 과정, 경제 활동 상태, 한국 사회 적응 과정, 자녀 양육 및 가정생활 만족도 등

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출신국가, 거주 지역, 거주기간 별로 특성을 살려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정책 보고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보고서로 보았을 때 2007년 4월 현재 경북도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는 3,469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43.5%나 증가한 수치이다. 출신국가별로는 베트남 여성이 42.8%로 가장 많았는데, 2005년 324명에서 2007년 1,483명으로 3년간 무려 358%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493명, 경주시 371명, 구미시 238명, 안동시 226명, 상주시 255명, 경산시 209명, 김천시 173명 등의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군별 인구현황과 비슷한 양상이다. 수도권 지역은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이 밀집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경상북도의 경우는 농촌(읍, 면 지역)에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대다수인 71.7%가 집중된 형태로 나타났다.

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희망이 43.2%로 나타났으며, 한국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혼 이민자의 취업희망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중 한국어 및 2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가능한 여성은 전체의 5.9%인 205명으로, 연구 보고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각 급 학교 다문화 교사, 방과 후 교사, 여성결혼이민자 상담요원 등의 인적 자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올바르게 정

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경북도 또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를 꾀고 있는데 이를 위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과 단계별 한국어 심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소집 교육이 힘든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2008년에는 더욱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의 보고서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게만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한국인 가족 구성원들이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이 결혼이민자 및 2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다문화 공동체 사회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도는 자체 내에서도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인지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북도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경상북도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지원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6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부터 “이여가새 행복 2010”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부터 지방비사업으로 영남대학교와 협력하여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697명 수료)과 한글강사 인력(101명)을 양성하고,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와의 “친정 만들어주기(대모결연)사업(807쌍 결연)을 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에

대해 활발한 사업을 벌여 온 편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 경북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6년 12월부터 도청 내 13개팀과 도교육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도 경찰청 등과 함께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마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기반을 구축하여 의욕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가 결혼에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세부대책을 포괄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경북도의 지난 상반기 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을 종합해 보면 추진체계 및 제도 기반 정비를 위해 결혼이민가족지원센터 3개소를 신설(총 5개소)하여 이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 포럼도 개최하였는데, 해당 국가 대사를 초청하여 2007년 4월에 ‘어울림 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경북도는 또 경북긴급여성전화 1366에 결혼이민여성 2명(중국, 베트남)을 상담요원으로 채용하여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도 하였으며 “경상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2007년 6월 14일에 제정·공포하여 이러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상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북도는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상 교육에 대한 파악과 적절한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교육 및 한국 사회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해 22개 시·군, 27개소의 여성회관, 복지회관 등

에 우리말 공부방을 설치하여 현재 1,000여명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의 주 2~3회 한글강좌를 비롯한 전통문화, 생활예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 집합교육이 곤란한 여성을 위해 한글강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한글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에도 9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도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IT 기술의 활용이다. 경북도는 한국디지털대학교 간에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이 컴퓨터를 통한 한글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 중에도 공무원들이 다문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과정별로 2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농협 및 대구은행과 협조하여 모범가정 40여 가족에 대하여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모습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고향에 보내주는 ‘행복앨범 고향 보내주기’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지난 2007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다문화 가정 99가족 250명을 초청, 구미자연학습원에서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도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와 가족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북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타 시도에 비해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한 정책들로 의미가 있다.

○ 군위군

군위군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은 경상북도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현재 기관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72명이며 베트남,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교육 장소로는 접근이 쉬운 주민자치센터나 면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부수적으로 요리교실이나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혜택을 받는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65명 정도이다.

○ 달성군

달성군은 기관 내 자체사업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283명이며 이 중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49명 정도로 낮은 편이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국적은 대부분 베트남과 필리핀이며 그 외 태국과 일본인도 조금 있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 한마당, 한국예절교육 등이 그것이다.

○ 경주시

경주시는 처음 기관 자체 사업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기관 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413명 정도로 많은 편이다. 이 중 사업의 수혜자는 230명 정도이며 주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일본, 몽골의 순서이다.

주 사업은 한국어 교육이며 방문 교육과 집합 교육을 병

행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전통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김천시

김천시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240명 정도이다. 처음 기관 자체 사업으로 이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통다도, 생활요리, 컴퓨터, 전통요리, 제과제빵, 공예, 떡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관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국적은 베트남이 제일 많으며 그 외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중국 등이고 사업 수혜자 수는 75명 정도이다.

○ 안동시

안동시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267명 정도이며 이중 사업의 수혜자수는 190명 정도로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다. 기관 자체사업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예절, 요리, 컴퓨터 등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장소는 지원처에 따라 다양한데, 안동시 여성회관,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각 농촌마을회관 등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광역시 산하기관이지만 동구청 자체 예산으로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관내 거주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수는 465명 정도인데 이중 사업의 수혜자수는 20명 내외이며 베트남 출신이

대부분이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는 한국문화체험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실시하고 있다.

○ 예천군 여성회관

경북 예천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대상 사업을 실시하였다. 현재 15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80%이상이 베트남 출신이다. 한국어교육 이외에도 요리, 문화체험, 문화교육, 육아 강연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민간단체

○ 선린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30명 정도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비는 유료지만 10,000원 정도이다. 베트남 출신이 제일 많으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 요리교실과 배우자 모임, 문화체험, 홍보마당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제일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80명 정도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처는 서구청과 보건복지부로 다양하며 수혜자의 국적 비율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의 순이다. 한국어 교육만 주로 실시하고 있다.

○ 대구이주여성상담소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혜자수는 불분명하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 상담업무와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소가 교회라 학습자를 모으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통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 융합하기가 쉽다.

○ 포항여성회

포항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혜자 수는 76명 정도로 필리핀 출신이 대다수이다. 지원처가 다양한데, 사랑의 열매, 시 예산, 경북 예산, 기관 자체 예산 등이 그것이다. 내년에는 방문교육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 컴퓨터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6월부터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관 자체 사업이며 수혜자 수는 80명 정도이다. 출신 국가는 중국이 80%정도로 제일 많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 종이 접기, 동화 구연, 은공예, 컴퓨터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4월부터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수혜자 수는 14명 정도로 적은 편이나 내년에는 방문 교육도 시행하여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사업을 펼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 상설 교육으로 요리,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며 건강 검진, 야외

문화체험을 계절별로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충북지역

충북지역 기관별 한국어 교육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관처	부처명	시행 기관명	소재지	일정	시간	모집인원	모집방법	교육비	참여자국적	소요예산	보조금비율(%)	담당부서	비고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진천이주민종합지원센터	진천군	1월 말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오후, 2-5시	80	플래카드	무료	6개국	6,000,000			
	농림부	음성군청	음성군	3월 ~ 12월	오전,오후	30	플래카드	무료	3개국	66,000,000		농정과	

	영동군청	영동읍 관	3월 ~ 12월	오전,오후	30	플래카드	무료	3개국	66,000,000		농정 과	
	단양군청	단양읍 관	3월 ~ 12월	오전,오후	30	플래카드	무료	3개국	66,000,000		농림 과	
	증평군	증평읍 관	3월 초 ~ 6월 말까지 9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40	플래카드	무료	5개국	10,000,000			
문화 관광 광부.	충북대 국어생활연구소	청원읍 관	3월 말 ~ 11월 말까지	오전, 10-12시	43	플래카드	무료	4개국	20,000,000			
보건 복지 부	음성군노인종합복지관	음성읍 관	1월 말 ~ 12월 말까지	오전, 9-11시	40	플래카드	무료	6개국				
	보은 삼결두레아사달	보은읍 관	1월 초 ~ 12월 말까지	오후, 2-4시	15	플래카드	무료	5개국	40,000,000			
여성 가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 원센터	옥천읍 관	2월 말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68	플래카	무료	6개국	18,000,000			

	주부						드 플래카드						
		충북 이주여성 인권센터	청주시	3월 초 ~ 7월 말까지 9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오후, 1시-3시	140	무료	5개국	43,000,000				
지자체	충북도청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이주 여성 정착지원센터	청주시	3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100	플래카드	무료	3개국				
		영동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영동군	2월 말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105	플래카드	무료	3개국				
	청주시청	청주여성단체협의회	청주시	4월 초 ~ 6월 말까지 9월 초 ~ 11월 말까지	오전 10-12시	10	우편광고	무료	7개국	12,000,000			
	충주시청	충주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충주시	3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100	플래카드	무료	6개국	20,000,000			
	제천시청	제천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제천시	2월 말 ~ 12월 말까지	오후, 1-3시	100	플래카드	무료	8개국	10,000,000			
	보은	보은군 여성회관	보은	1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40	플래	무료	4개국	10,000,000			

군청		군				카드 플래카드							
	보은 삶결두레아사달	보은 군	1월 초 ~ 12월 말까지	오후, 2-4시	15	무료	5개국	0					
단양군청	여성발전센터	단양 군	7월 1일 ~ 9월 14일	오전-오후 9시-3시30분	24	플래카드 무료		15,000,000					
민간단체	·	괴산결혼이민자지원센터	괴산 군	8월 초 ~ 11월 말까지	오전, 9-11시	30	플래카드 무료	6개국	0				
	·	단양자원봉사센터	단양	1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9시-13시	15	플래카드 무료	3개국	0				
	·	증평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증평 군	1월 초 ~ 12월 말까지	오전, 10-12시	20	플래카드 무료	4개국	0				

(1) 중앙정부 지원 단체

1.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부설로 ‘청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두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한국어 교육은 2005년에 기관 자체 내 사업으로 실시하다가,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관으로 지정되어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모두 14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생은 모두 140여 명이다. 강의 시간은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이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는 한국어교사 연수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학습자는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필리핀, 중국, 일본, 태국, 러시아, 몽골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육은 10명 내외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한국문화체험, 한국전통문화교육, 다문화가족 한마당, 한국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옥천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옥천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252명으로 그 중에서 68명만이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2회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의 순으로 나타난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여성가족부 교재와 자체 제작 교재이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고, 관리직 1명이 더 있다. 한국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16명으로 한국어 교육 전문 강사, 지역 내 교육경력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센터로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비즈공예,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 전통문화 교육, 한국예절교육, 풍물교육, 발마사지 교육, 원어민강사교육, 다문화강사교육, 산모도우미교육 등이 더 운영되고 있다.

3. 음성군청

‘음성군 방문 교육 도우미’ 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도우미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생활상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충청북도 음성군, 단양군, 영동군이 선정되어, 3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각 지역마다 교육 도우미를 10명씩 선정하여, 교육 도우미 1명이 각

각 3가정을 방문하였다. 교육시간은 학습자의 시간에 따라 정하였으며, 주 3회(2일 방문교육, 1일 소그룹 교육) 5시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영동군청

‘영동군 방문 교육 도우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의 ‘음성군’과 같다.

5. 단양군청

‘단양군 방문 교육 도우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의 ‘음성군’과 같다.

6. 증평군청

증평군은 농림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증평군 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증평군청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며, 실제 운영은 ‘증평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초급, 중급의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 1회 2시간 수업을 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주 2회 방문하고 있으나 하루는 요리 실습, 하루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어서 교육시간이 적은 편이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수는 40여 명이고,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 태국, 중국, 몽골, 일본 순으로 나타난다. 학습 교재는 여성가족부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직원

1명과 강사 2명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강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학습자들 모집은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

‘음성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음성군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388명인데 그중에서 40여 명의 이주 여성이 한국어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모두 6개 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 2회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태국 순으로 나타났다. 회관의 운영을 위해 관리인 3명과 직원 1명을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경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7명이며 지역 내 교육 경력자를 선발하여 강사로 쓰고 있다. 학습자들 모집은 기수장생의 소개로 이루어지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 요리교실, 컴퓨터 교실,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전통문화교육, 한국예절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8. 보은 삶결두레아사달

보은군에서는 ‘보은군 여성회관’과 ‘보은 삶결두레아사달’ 두 곳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

성은 모두 147명이다. 그중에 ‘보은군 여성회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40여 명이며, ‘보은 삶결두레아사달’에서는 약 1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두 곳을 모두 다니는 사람도 10여 명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인원은 적은 편이다.

‘보은 삶결두레아사달’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2시간씩 주 4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순이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보은군 여성회관과 연계되어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교육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는 보건복지부와 보은군의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4명으로 전문 강사, 기관 내 자체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습자 모집은 방문, 신문광고, 지인 소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의 교육으로는 컴퓨터교실, 다문화가족한마당, 이주여성모임, 다문화강사양성교육 등이 있다.

9.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는 문화관광부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청원군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원군 한국어 교육은 현재 2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 곳은 청원군 사회복지과가 입주해 있는 청원군 군민회관이고, 다른 한 곳은 청원군 남부에 위치한 현도면사무소이다.

각 지역별로 수강생의 수준에 따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강의 일정이나 교과과정 및 학습 내용은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 인원은 청원군민회관의 경우 기초반 6명, 초급 10명, 중급 14명으로 총 30명이고, 현도면사무소에는 초급 5명, 중급 8명으로 모두 13명이 수강을 하고 있다. 강의는 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휘와 문장을 익히는 데 주력했으며,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매 시간마다 시험(읽기, 받아쓰기)을 병행하여 자신들이 공부한 것을 복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수강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은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 일본 순이다. 교재는 여성가족부의 교재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교재,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주 가정학습용 주간 학습지를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이주여성 가족한마당, 한국어 말하기 대회, 한국어 글쓰기 대회도 개최하였다. 또한 국제 결혼 이주여성들의 부족한 학습시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어 교육용 회화테이프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0. 진천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진천군에는 18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데, ‘진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재 80명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필리핀, 네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난다. 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은 2명이며 운영비의 일부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5명으로 지역 내의 교육경력자들이다. 학습자들 모집은 주로 기학습자들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외의 교육으로는 부부교실, 컴퓨터교실, 비즈공예, 한국 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전통문화교육, 한국예절 교육 등이 있다.

(2) 지자체 지원 단체

1.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부설의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는 도청의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초급, 중급, 고급, 입문의 4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문반은 언어권 별로 반을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수강생은 등록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되며 강의에는 80-90여 명 정도 참여한다. 강사는 한국어 교원 연수 과정을 이수한 전문 강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특히 입문반의 경우 한국말을 잘 구사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인 선생님을 배치하여 생소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습자는 중국

인이 가장 많고, 일본, 몽골,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교육은 10명 내외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요리교실, 한국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영동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영동군에서는 ‘영동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170명 중에서 105명 정도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5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 1회 2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집합 교육 외에 일 대 일 방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우리 엄마의 한국어』(농림부)와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중급』(여성가족부)이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농림부와 도청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관리직 3명과 7명의 강사가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들을 선발할 때는 한국어 교육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선발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다. 학습자들을 모집은 주로 기학습자들의 소개 및 권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 이외에 실시하고 있는 교육으로는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예절교육 등이 있다.

3.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의 한국어 교육은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청주시에서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문화유적답사’, ‘각종 문화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요리’나 ‘문화유적답사’ 같은 프로그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에는 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1개 반만 운영하고 있으며, 강의는 2시간씩 주 3회로 운영된다.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중국, 몽골, 필리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충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충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충주시청 사회복지과의 지원을 받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4월 기준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434명이며 그중에서 한국어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00여 명이다. 교육은 주 3회 2시간씩 5개반이 운영되고 있다. 수업은 5명 이하의 소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태국 순이다.

직원인 사무국장 1명과 관리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인건비는 전액 충주시청에서 지원받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20명으로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강사를 뽑을

때는 전문대졸 이상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다. 자원봉사로 자원한 강사들은 대부분 봉사에 만족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자체와 연계된 정책 지원을 절실히 요구 하고 있는 사정이다. 학습자 모집은 현수막과 생활정보지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이외에도 부부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한국문화체험, 한국전통문화교육,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예절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제천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제천시청 사회복지과의 지원을 받아 제천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천에 거주하는 25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10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은 주3회 2시간씩 오전에 실시되고 있으며 5개 반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러시아, 몽골, 인도,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분포한다.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중급(여성가족부)』를 교재로 선택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 직원은 3명으로, 이들 중에서 제천시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1명이다. 한국어 강사는 12명으로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이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할 때는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이수자로 선발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 장소는 가족지원센터이며, 한

국어 교육 이외에도 요리교실, 한국문화체험, 한국전통문화 교육, 한국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6. 보은군 여성회관

‘보은군 여성회관’은 보은군의 지원을 받아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에는 ‘보은군 여성회관’ 외에도 ‘보은 삶결두레아사달’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두 147명인데, 그중에 ‘보은군 여성회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인원이 40여 명이며, ‘보은 삶결두레아사달’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약 15명이다. 그러나 두 곳을 모두 다니는 사람도 10여 명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인원은 적은 편이다. 보은군 여성회관에서는 현재 주 2회 2시간 교육하고 있으며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자의 출신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중국의 순으로 분포한다. 주로 여성가족부의 교재와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10명 이상의 집단 교육과 1-2회 방문 교육, 소그룹 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관리직 직원 2명이 운영 전 반을 돕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경비는 기관 자체 내에서 충당되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2명으로 자원봉사자이다. 학습자 모집은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보은군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다. 그 외의 교육으로는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비즈공예, 한국문화체험, 한국예절교육, 생활도자기, 인형극 등이 있다.

7. 보은 삶결두레아사달

‘보은 삶결두레아사달’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아울러 보은군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보은 삶결두레아사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중앙정부 지원 단체’를 설명할 때 기술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8.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단양군 여성발전센터’에서는 군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인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특강’과 ‘관광단양 외국어 해설사 양성과정’이 대표적이다. 먼저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특강’의 경우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많으나, 의사소통의 한계로 ‘보수’와 ‘보직’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한국어능력’ 인증이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특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취업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육일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주 과정이고 교육 시간은 매주 월, 수, 금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교육 내용은 시험대비과목인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와 교양 과목인 ‘한국사’, ‘한문’, ‘가요’, ‘미술치료’, ‘스피치’ 등이다. 모두 24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에는 여성 결혼이민자 19명이 응시하여 17명이 합격하였다.(초급 12명, 중급 5명) 이

들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들은 후배 이민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리고 ‘단양문화관광 외국어 해설사 양성 과정’ 과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인 군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외국어 관광 문화 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중앙고속도로 개통, 대명콘도 개관에 이어 단양군 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하고 있어서 외국인 문화해설사 양성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화유산을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면 훌륭한 외국어 문화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이는 단양관광 활성화의 측면이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직업 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교육일정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며, 1개월 90시간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단양의 문화관광유산’, ‘충북의 문화관광유산’, ‘해설기법’, ‘서비스 매너’ 등이며, 각 읍면별 문화관광유산을 외국어로 해설하는 실습을 하였다. 이 과정을 이수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두 10명이다.

(3) 민간단체

1. 괴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괴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괴산군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괴산군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37명이지만 현재 한국어 교

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30여 명 정도이다. 현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 2회 4시간의 교육을 하고 있다. 주 2회 소규모 집합교육 외에 주 1-2회 방문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태국 순으로 나타난다.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직원은 2명이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어 강사는 8명이 자원봉사하고 있으며, 강사의 선발 기준은 자원봉사, 한국어 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학습자들 모집은 현수막 광고와 우편물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외의 교육으로는 한국문화체험, 다문화가족한마당, 한국전통문화교육, 한국예절 교육 등이 있다.

2. 단양 자원봉사센터

‘단양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단양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개 반에 30여 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주 2회 4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교재 초급편을 중심으로 ‘회화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관리인 1명만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소요 경비는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2명으로 자원봉사자이다. 학습자 모집은 매체 홍보를 주로 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 이외의 활동으로 체험 학습이 있다.

3. 중평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결혼 이민자지원센터’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 1회 2시간씩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출신국 분포는 베트남, 태국, 중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난다. 교재는 여성단체협의회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5-10명 정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리직 1명과 직원 4명이 기관 자체 내 예산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는 3명인데 이들은 청주에 있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파견하고 있다. 학습자 모집은 기학습자들이 친구들에게 강좌를 소개하여 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 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지역별 분석 결과

4-1. 전북지역

1)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농림부와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 사업’의 경우, 한국어 방문 교육 도우미들이 직접 농촌 가정을 방문하여 주 3회 1시간씩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동시에 생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07년 농림부 우수 사업으로

평가될 만큼 현장의 호응이 높았던 한국어 교육 사업이다.

전북지역은 농촌의 특성상 한국어 교육장이 있는 읍·면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몇 시간씩 차를 타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의욕이 높은 학습자라 할지라도 거리와 시간, 교통비 등의 문제가 학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림부와 여성가족부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의 형태는 이러한 한국어 학습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교육과 서비스를 결합한 ‘방문교육’이란 교육 형태는 향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단기 프로그램

단기간에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외국어 교육의 특성상 단기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1회성 프로그램이나 행사성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관련 강의를 1~2시간 끼워 넣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자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기성 프로그램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 있다. 2007년 전북대학교 음성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순창군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및 정착안정지원프로그램>은 한국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단기간에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대상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비록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었지만 대학 기관

에서 파견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단계화된 교과 과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언어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이고 상설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단기 교육 프로그램 또한 필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한국문화교육과 관련한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2007년 3월부터 12월까지 완주군청에서 실시한 ‘한국 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총 사업비 8천 5백원으로 진행된 한국 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요리반, 전문 기술반, 문화 체험반, 가족 상담반, 자조모임, 자녀 돌봄 등 총 6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요리반에서는 매주 한국 음식을 1가지씩 만들고, 전문기술반에서는 컴퓨터와 홈페이지(웹트, 비즈공예) 등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험반에서는 자국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두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서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국제결혼 여성이민자 모국의 의·식·주와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완주 군청의 ‘한국 적응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상호 문화 소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국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의 이해 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서도 이 사업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도입하여 점차 다민족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지정 국어상담소로 지정된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문화전문 강사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음식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의식·의례·놀이, 역사와 사상 등 문화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매일 8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에서는 향후 이 프로그램을 상설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 단기 프로그램

전북지역 한국문화교육과 관련한 상설 프로그램의 경우, 각 시군 지차체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1박 2일 간의 합숙으로 진행되는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부부교실>에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어 및 생활예절 교육, 다문화 교육 등을 통해 문화 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동안에 이루어지는 단기 교육으로 인하여 실제로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서 필요한 문화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기 문화 프로그램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노동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3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주교육대학 IHR교육 사업(국제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고용지원 사업)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고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100명을 모집하여 5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이주여성들이 지원했다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년 간 30명 취업을 목표로 한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된 현재 선발 인원 중 과반수 이상이 교육과정이 끝남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들 중 중국어, 영어 등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중국, 필리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방과 후 교실의 외국어 강사로 채용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가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소질·능력을 개발·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가운데 하나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사업 성공의 열쇠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숙달도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이다. 사업단이 갖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교육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 IHR 사업의 경우를 살펴보자.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교육받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초·중등학교 방과 후 외국어 교사나 각 지역 사설 학원의 외국인 강사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교사의 사회적 위상은 매우 높고 그 전문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방과 후 교사나 학원 강사 등과 같은 피교육자가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 서야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교육 전문 인력으로서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의료 서비스 분야의 교육을 받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도 의료 서비스 대상자의 언어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식품 가공업 분야나 기계부품가공분야, 기타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IHR 사업단에서는 오전 취업교육과 연계하여 오후에는 이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IHR 사업단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다른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어야 할 모범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각 기관과 단체들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국어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단기 프로그램

본 조사에서는 고용 지원과 관련한 단기 프로그램은 파악되지 않았다.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농림부에서는 연 2회(상반기와 하반기) ‘부부교실’과 ‘농촌여성결혼이민자과정’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다. 무료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문제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단기 프로그램

장수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모든 나라 아시아 축제’, ‘가족 캠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다문화 가족 여름 캠프’, ‘다문화가족 겨울캠프’, ‘온누리안을 위한 다문화교실’, 민간단체인 설예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문화교육’ 등과 같은 단기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5) 자녀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상설화되어 진행되고 있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장수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가 있다. 센터까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2) 단기 프로그램

자녀교육 지원프로그램은 호원대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녀방문학습지 지원사업'과 전북 여성연구회에서 실시한 '문화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4-2. 경북지역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들의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에 대한 주요 사업이 '한국어 교육'이다. 한국어 교육은 피조사 기관 전체가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상설 프로그램은 보통 3개월을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주 2회-3회에 평균 2시간 정도씩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와 경북도 지원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인 방문 한국어 교육의 경우 1:1, 또는 2:1정도의 소수로 운영되어 수준별 반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여타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준별 반 편성을 하거나 두 세 단계 정도의 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설 프로그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구 여성 회관 “무료 한글 사랑 교실” 모집 공고

대구여성회관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지역사회 주민들과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글사랑교실」을 운영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이주여성 및 일반 여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이번 「무료 한글사랑교실」 운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전 10시부터 여성회관 태평상담실에서 실시한다.

○ 신청방법은 연중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한글기초과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여성회관 태평상담실(☎256-6696, 7300)로 문의하면 된다.

<운영개요>

-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주2회, 공휴일 제외)
10:00 ~ 12:00
 - 장 소 : 여성회관 태평상담실
 - 신청대상 :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이주여성
및 일반 여성
 - 신청방법 : 연중 수시 신청 접수
 - 교육내용 : 한글기초과정
 - 문 의 처 :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태평상담실
☎ 256-6696/7300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181번지)
- * 자료제공 : 대구여성회관 351-0195

[대구시 공고]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안내

국제결혼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과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적 적응을 돕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등 실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1. 교육기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남구 이천동 381-9

☎ 475-2324

한국어 교육, 상담 ♦

한국문화 이해와 체험

요리, 컴퓨터 등 생활교육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내

☎ 580-6815

동부여성문화회관

동구신암동 4동 664-21

☎ 951-0185

성서종합복지관

달서구 신당동 1844 성서주공1단지 내

☎ 583-1284

2. 교육기간 : 2006. 6. 5 ~ 7. 28(1단계, 8주간)

♦ 기관별 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모집대상 : 국제결혼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과

그 가족

4. 모집인원 : 각 기관별 30인 이내

5. 모집기간 : 2006. 5. 29 ~ 6. 2(선착순)

6.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각 교육기관

☞ 기타 문의는 여성정책과(☎ 803-4027)로 하시기 바랍니다.

(2) 단기 프로그램

대구· 경북 지역 내의 기관· 단체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한국어 교육만을 단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단기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 대상 사업 중 한국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이주 여성의 대구 시티 투어, 또 아래의 주한 베트남 여성 문화 센터의 수업 운영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결혼 여성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 시간에 따로 문화 체험 시간을 마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설과 단기의 구분이 어렵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단기 프로그램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구] 베트남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주관 : VWCC

주한베트남여성문화센터]

안녕하세요. 주한베트남 여성문화센터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베트남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한글교육이 필요하신 베트남 분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취 지 : 결혼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글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한국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여성 스스로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 모 집 대 상 :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베트남여성

◇ 모 집 기 간 : 2007년 4월 11일(월)부터~
기간 및 모집 인원은 제한 없음

◇ 교 육 기 간 : 2007년 4월 16일(월) 부터
매주 월·수·금 오후2시~3시 30분(약1시간 반)

◇ 교 육 내 용 : 한글수업 - 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중심으로 원어민 상담원 직강
문화체험행사 -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
(추후예정)

※ 필요시 수시로 상담 및 통역가능

◇ 교 육 강 사 : 베트남 여성 2분 (현재 센터 통역 상담원으로 근무 중)

◇ 한 글 교 재 :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 및 동영상 강의(베트남 어)

◇ 교 육 생 준 비 물 : 연습장 1권, 필기도구

◇ 신 청 방 법 : 전화, 홈페이지, 카페 게시글-답변 등으로 문의/ 전화로 직접 문의

* 담당자 : 053-650-6364 ,

[경북 구미] “구미 어울림 교실”

- 수업시간 : 매주 월, 수, 금 9:30~12:30
- 수업장소 : 구미시 선산읍 선산터미널 1층
- 대 상 :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수업내용 : 한글교육, 한국문화교육, 한국음식만들기체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가족 간의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심리&8228;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
- 수 업 료 : 무료
- 모집기간 : 연중 언제든지
- 문 의 처 : 구미YMCA

3) 고용 지원교육 프로그램**(1) 상설 프로그램**

조사된 바는 없으나 경북도의 2010까지의 계획 중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

(2) 단기 프로그램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된 내용이 없다.

4) 다문화가족 화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화합 프로그램의 경우 대구광역시 내 남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구미 YMCA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단기 프로그램 즉 어울림 운동회와 같은 일회성 행사로 시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래의 행사 결과 보고

기사는 경북도에서 주관한 ‘어울림 한마당’ 행사이다. 이러한 행사는 대구 지역보다는 국제 결혼 비율이 높은 시·군 지역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다.

[신문기사]

경상북도에서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구미자연환경연수원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과 고국을 떠나 경북으로 시집와서 행복을 가꾸어가는 결혼이민자부부 100쌍을 초청,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멀리 타국에서 시집온 3,467명중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22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우리말 공부방” 및 여건상 집합교육 참여가 곤란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공부방”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주여성 부부가 초청되었으며,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의 한마당 축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초청된 가족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한글을 익히고, 우리문화에 잘 적응해 가면서 부모님을 훌륭하게 봉양한 모범가족을 초청,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교양강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부부간 화합과 사랑을 다지는 명랑운동회를, 저녁 및 야간시간에는 참여 가족들의 화합 한마당 어울림 축제인 “캠프 파이어”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튿날은 가족별 국가별 친교 및 대화의 시간과 자연사랑 자원봉사자의 설명을 곁들인 금오산 생태탐방을 실시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말도 서툰고 생활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차이가 있는 어려운 가운데 성실하게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결혼이민 여성들을 일일이 격려하며, 앞으로도 경북도에서 정착지원을 위한 한글 공부

방, 문화교양강좌, 지역민과의 교류행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외부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 요인이라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이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며 당사자들의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5) 자녀 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대구광역시 내 남구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의 경우 자녀 교육법에 대해 상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것 외에 자녀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히 상설로 시행되는 곳은 없고 일회적인 육아 강연이 대부분이다.

(2) 단기 프로그램

일회적인 육아 방법 강연, 자녀 교육법 강연 등이 몇 군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충북지역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2000년대 들어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빠른 적응을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교실, 한국 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성 결혼이민자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을 하는 모든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은 교육사업 경비 지원 주체를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원 프로그램,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 민간단체 자체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고, 교육 방법을 기준으로 방문교육과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농림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의 경우에도 충청북도는 물론 각 지역의 시·군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외부 지원 없이 민간단체 자체 예산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도 있다. 외부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는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자의 수준이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언제까지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수 없고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강의를 받는 소규모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군, 단양군, 영동군의 경우에만 농림부의 ‘방문교육도우미’사업의 지원을 받아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문 교육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렵고, 가족의 반대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으로 많은 결혼이민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보자면, 소규모 집합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소규모 집합교육에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동에 시간과 거리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므로 교육 장소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최소한 면 단위별로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을 받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 단위별로 강좌 개설이 힘들면 몇 개의 면을 묶어서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점차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사업 경비 지원 주체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외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단체도 있다. 이와 같이 매우 산발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한국어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각기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 단위 교육기관을 총괄하는 지역 거점 기관을

선정하여 각 지역의 교육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 등 모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기 프로그램

기간으로 볼 때 장기와 단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단양군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특강”은 3개월간 주 3회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한국어 교육이 3개월 만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한 특강이므로 단기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기술하겠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특강”은 단양군에서 군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은 많으나, 의사소통의 한계로 ‘보수’와 ‘보직’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한국어 능력’ 인증이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특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취업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은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주 동안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주 3회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강의를 하였다. 교육 내용 시험대비과목인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와 교양 과목인 ‘한국사’, ‘한문’, ‘가요’, ‘미술치료’, ‘스피치’ 등이

다.

이 특강의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에 여성결혼이민자 19명이 응시해 초급 12명, 중급 5명 등 모두 17명 합격하였다.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들은 후배 이민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단양군의 경우와 같이 시험 대비 특강의 경우 짧은 시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상설 프로그램 외에 단기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성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설 프로그램은 청주시의 “여성결혼이민자 행복한 청주시민 만들기”와 각 지자체의 요리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 행복한 청주시민 만들기”는 청주시가 청주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교육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지는데, 주 1회 3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두 번 진행된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 나와서 ‘한국문화 이해하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 ‘<직지> 바로알기’, ‘전통문화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한지공예’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문

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청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각 지역의 요리교실을 들 수 있다. 증평군의 요리교실은 매주 화요일 증평군 여성회관에서 한국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은군 자원봉사센터도 외국인 주부들을 위해 반찬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1회 고등어 조림, 오징어 볶음,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등 일상에서 주로 먹는 음식이나 이주여성들이 원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로 하였는데, 이날 만든 음식으로 꾸민 저녁상을 차려 생일상을 받았다고 즐거운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남편들의 칭찬이 두 배로 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성의 행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한국문화와 관련한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적응 및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단기 프로그램

한국 문화 교육 단기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체험 행사나 우리 문화 겨루기 등 일회성 행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이나 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이들 행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우리 문화

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단체들에서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송편 만들기, 추석 명절 차례상 차리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 익히기와 전통문화체험 행사가 많았다. 이런 행사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충북 지역에서 진행된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를 소개하면 “여성결혼이민자 우리 문화 겨루기”를 들 수 있다. 충북결혼이민자지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결혼이민자 우리 문화 겨루기”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목적에서 개최하였다. ‘우리 문화 겨루기’는 ‘우리 음식 겨루기’로 ‘송편 빚기’, ‘칼국수 만들어 썰기’, ‘가래떡 썰기’를 겨루었고, ‘우리말 겨루기’는 ‘속담 맞추기’, ‘우리 민요 부르기’를 겨루었으며, ‘우리 풍습 겨루기’는 ‘제기차기’, ‘새끼 꼬기’, ‘한복 맵시 있게 입기’를 겨루었다.

주변행사로는 ‘페이스 페인팅’, ‘나의 고향은’, ‘사랑나무 만들기’, ‘밭자취 남기기’ 등이 열렸으며 각 나라의 의상 입어 보기 등이 큰 관심을 끌었다. 운동장에서는 각 나라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했으며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 한국(떡)이 참여하여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체험 행사로는 떡메치기를 비롯한 세시풍속,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 또한 특설무대에서는 나라별 전통문

화공연과 난타공연, 국악가요, 신밧놀이, 창룡아리랑, 부채춤 등을 공연하여 많은 박수를 받고 흥을 돋우었다. 언어와 풍습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하루를 즐긴 뜻 깊은 문화행사였으며, 지구촌 한마당 축제로서 손색없이 풍요롭고 다채로운 행사였다.

다음은 충북 지역에서 실시한 여성 결혼이민자 추석맞이 행사들이다.

일시	단체명	대표자	행사명	장소 (참석인원)
9.19(수) 13:30~16:30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김중길	이주 외국인 우리 문화 체험 추억 만들기 행사	청주 노인복지마을 (100명)
9.20(목) 10:00~15:00	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이유순	여성결혼이민자 및 새터민과 함께 하는 송편학습	제천시 여성이주센터 (100명)
9.20(목) 09:00~16:00	음성군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	유지숙	제4회 사랑의 송편나누기	노인 종합복지회관 (150명)
9.21(금) 10:00	옥천군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전만길	추석맞이 요리특강 송편 만들기	옥천군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50명)
9.22(토) 12:00	증평군 여성단체협 의회	구남두	제16회 증평문화제 외국인 한마당(전통혼례, 화합한마당 등)	보광천 본행사장 (500명)
10.11(목) 10:30 ~12:30	대한어머니 회 충북연합회	이영주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가족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	한국전력공사강당 (300명)
10.13.(토) 11:00~15:00	충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 터	박충환	여성결혼이민자 다(多)문 화 대축제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300명)
10.27(토) ~10.28(일)	충청북도 여성단체협 의회	안계화	평등가정 뿌리내리기 (평등실천을 위한 부부교육)	충주 문광온천 (30명)

이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 단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함께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사회의 조기적응을 목적으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청주시의 “원어민 강사/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다문화공동체 직업능력개발 및 조기정착 지원 사업’으로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 후 지역 사회를 위하여 환원함으로써 이주여성의 취업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과정의 170시간 교육을 받았다. 교육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문제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방안’, ‘전문강사로서의 자질 함양’, ‘자기관리를 통한 리더십 향상’, ‘효과적인 강의 기법’, ‘취업과 관련된 비전 제시’ 등의 소양교육과 강의 실재 훈련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교육을 통하여 원어민 강사 40명과 다문화강사 19명을 배출하였다. 영동군의 경우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다문화 강사를

양성하였다.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20주 동안 이루어진다. 영동군의 경우에는 영어 5명, 중국어 5명, 일본어 5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원어민 강사/다문화 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열악한 경제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취업 욕구를 전문교육을 통해 충족시켜, 자신, 가정의 경제, 사회적 자활,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원어민강사에 대한 요구가 높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다문화교육을 위한 강사가 필요하게 되어 앞으로 전망이 밝은 프로그램으로 본다.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특강”은 단양군에서 군내 여성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은 많으나, 의사소통의 한계로 ‘보수’와 ‘보직’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한국어 능력’ 인증이 필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특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취업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은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1주 동안 여성발전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주 3회 10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강의를 하였다. 교육 내용 시험대비과목인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와 교양 과목인 ‘한국사’, ‘한문’, ‘가요’, ‘미술치료’, ‘스피치’ 등이다.

이 특강의 결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

국어능력시험에 여성결혼이민자 19명이 응시해 초급 12명, 중급 5명 등 모두 17명 합격하였다.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들은 후배 이민자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단양군의 “단양문화관광 외국어 해설사 양성 과정”은 군내 한국어능력시험 중급 이상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관광 외국어 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양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대명콘도 개관에 이어 단양군 관광특구 지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 하고 있어서 외국인 문화해설사 양성이 필요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문화유산을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면 훌륭한 외국어 문화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이는 단양관광 활성화의 측면이나 여성결혼이민자 직업 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10명의 외국인 관광해설사를 배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그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결혼이민자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취업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취업률 제고와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취업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신문기사

"이주여성이 선생님 되었어요"

결혼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내 거주 이주여성들

의 당연한 사회참여 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지역에서 자국어 봉사활동을 하는가하면 자국 요리를 선보이는 등 지역의 당연한 사회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삶결두레 아사달 온누리문화센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으로 충북여성발전센터 주관의 여성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사업인 한국어교실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시작으로 삼승초등학교, 내북면 주민자치센터내에서 학교 문을 열어 놓고, 교통이 불편하여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을 위한수업을 주 2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 사회참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은 사랑어린이집(원장 강순옥)과 두리어린이집(원장 김정호), 수정초등학교(교장 조철호)에서 아이들과 이주여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강사로는 강로안(베트남, 삼승 천남)과 툽스(몽골, 보은 교사)가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그 나라의 화폐, 전통인형, 장신구등 자국문화를 소개했으며, 쉬운 인사말을 배우는 시간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곰세마리’, ‘고기잡이’란 동요를 몽골어와 베트남어로 번역해 부르는 흥겨운 시간도 가졌다.

이날 사랑어린이집과 두리어린이집 어린이들은 베트남과 몽골의 국기를 그려 천장 가득히 달아놓고 이들을 환영했으며, 강사들의 전통의복 및 장신구 등을 신기한 듯 만져보기도 하고 말도 따라하면서 매우 즐거워했다.

강사로 참여한 외국인 주부들도 “참 좋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같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 주부들은 세계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회인으로 우뚝 섰으며, 어린이들은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하여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2) 단기 프로그램

고용지원교육은 짧은 시간에 이를 수 없는 것이므로 단기 프로그램은 적절하지 않다. 충북지역의 경우에도 고용지원교육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다문화가족화합 프로그램은 ‘부부캠프’와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등과 같이 대부분 단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부캠프의 경우 영동 결혼이민자가족센터에서 실시한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 하나 되는 가족”이 대표적이다. 3회(9월, 10월, 11월)에 걸쳐 1박 2일 동안 진행한 이번 캠프에서는 생활예절교육, 다문화교육, 사례발표, 문화체험 등이 있었고, 모범가정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생활예절 교육은 가정의 교육과 자녀양육에 보탬을 주고자 하였으며,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마을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한 가족공동체 놀이를 통하여 서로의 친근감을 확인하고, 가족 상호간의 애정을 확인하였으며, 모범가정 사례 발표를 통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회 “평등가정 뿌리내리기(평등실천을 위한 부부교육)”은 2007년 10월 27일(토)부터 10월 28일(일)

까지 1박 2일 동안 충주 문광온천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국제결혼 부부의 원활한 가정생활을 돕고, 이주 여성이 가정에서 바람직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또한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충주 수안보상록회관에서 외국여성과 결혼한 도내 다문화농업인 부부와 생활개선회원 부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다문화 농업인 부부 행복 가꾸기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 간에 이질적인 가족문화와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다문화여성들이 우리나라 농촌가정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 생활개선회원이 친정엄마와 같은 다정한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여성과 생활 개선회원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한 건전한 가족관계, 다문화 부부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느낌으로 함께하는 그림 그리기, 우리문화 체험을 위한 천연염색 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외국여성이 우리나라 농촌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갈등극복과 안정적인 적응 사례와 참석한 다문화가족이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어울마당으로 교육효과를 높였다.

5) 자녀교육 프로그램

(1) 상설 프로그램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

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동기의 초기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양육자나 엄마가 주어야 할 언어적 자극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자신들도 한국어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아이들의 언어발달을 위한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함께 사는 가족들 역시 농사나 생업에 종사하느라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외모가 다르고 언어능력이 떨어져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유아기부터 언어에 대한 이해력을 키워오지 못한 일부 국제결혼자녀들은 취학을 해서도 소극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잠재적 사회문제를 내포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행동장애를 보이는 등 정서 장애도 나타난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분명한 현실이 된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사회화 프로그램은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관련 교육은 대부분 이주여성 본인에 대한 교육에 치우쳐 있고, 자녀 교육은 등한시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충북 지역의 경우에도 많은

지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다음은 충북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먼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청주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청주시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청주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정에 아동양육도우미를 파견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과 자녀들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교육도우미 8명이 40가정을 방문하고 있다.

다음은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이다. 먼저 ‘북 스타트’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으로 ‘자녀놀이방 유치원교육’과 ‘지구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에게 책을 읽히는 등 자녀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06년 3월에 ‘한국문화 기행’이라는 웹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4월에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 『관심·사랑·화합으로, 하나가 된 우리』를 발간하여 일선 학교와 관련기관에 배포하였다.

초기 언어발달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엄마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주여성의 경우 결

혼 후 한국어에 대한 표현 및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이후 자녀들의 양육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어로 소통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녀와의 다양하고 정서적인 소통에 요구되는 언어활동을 하기에 이들 어머니들의 한국어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 못지않게 자녀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한국어 능력, 학습 능력을 높인다는 시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들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내국인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따라 와야 한다. 내국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출신지와 언어, 문화가 다르고 핏줄이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공동체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수용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더 시급한 일일 것이다.

5. 실태조사 분석결과

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① 문제점과 보완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이 통합되어 있지 않고 동일 기관 내에서도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형태의 교육이 중복 실행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지역 완주군의 경우 친환경농업축산과와 주민복지과

에서 동시에 한국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사업을 두 부서에서 진행하는데서 오는 업무 효율성 저하이다. 동일 사업에 두 부서의 담당자가 투입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동일 사업에 대해 2회 이상의 기획이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의 중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통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설 교육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상설교육장과 한국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원이 확충되어야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교육비에 포함시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한국어 학습 의욕이 높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교육장에 나오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아이가 울어 교육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아예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이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상설 교육장 안에 탁아 시설을 설치하고 보육교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① 문제점과 보완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설 강좌가 없다는 데 있다. 대부분 단기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만으로는 오랜 시간과 전통 속에서 축적되어 온 폭넓고 깊이있는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 기관과의 협력하여 문화에 대한 지문지식을 갖춘 교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시행된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오전부터 오후까지 교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점심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북지역 국제결혼 이민자들에게는 이것조차도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각 기관에서는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동시에 차량 운행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고용지원교육 프로그램

① 문제점과 보완점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향후 예산을 확충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① 문제점과 보완점

행사성, 일회성이다보니 프로그램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동일한 프로그램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관 기관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자녀교육 프로그램

① 문제점과 보완점

전북, 경북, 충북 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상설화된 자녀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지역 장수여성결혼이민자센터의 ‘찾아가는 아동 양육 서비스’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보육을 돕는 프로그램이고, 충북의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자녀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 자녀에게 책을 읽히는 것으로 소극적인 교육만이 있을 뿐이다.

6. 조사 분석 활용 방안

○ 본 조사 결과는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조사 결과는 현행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각 기관별 분절적 서비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본 조사 결과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조사 결과는 내국인 자녀 교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조사 결과는 내국인 고용지원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병행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만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조사 결과는 전통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국인

문화교육과는 차별화된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하고 특화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7. 제언 및 대안

○ 자녀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추어 연령별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 자녀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약 복용법, 응급 처치법, 간호법, 등과 같은 기초 의학 지식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 자녀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도우미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주지와 학습장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어린 아동들이 혼자서 학습장을 왕래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는 초·중·고급까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국어 초·중급자의 경우는 생활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육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 또한 중요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급 한국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자녀의 가정 학습을 지도해야 하는 한편 이주여성 스스로의 자아실현과 구직에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신혼기→임신·출산기→자녀 양육기→자녀 교육기→갱년기→노년기’별 특성을 살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배우자에 대한 다문화교육, 자녀 교육 등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결혼 이주여성 과 그 배우자, 자녀가 함께 필요한 교육을 받는 패키지 교육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Ⅲ.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 육 실태조사

1. 연구 목적

최근 몇 년 사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²⁾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당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들에서 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에 주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다

2) 연도별 결혼 및 국제결혼 추이(단위: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결혼 건수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851	
국제결혼 건수	전 체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여 자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남 자	4,896	6,444	9,853	11,941	9,482
국제결혼 비율 (%)	5.2	8.4	11.4	13.6	11.9	

※ 자료 : 통계청 (<http://www.nso.go.kr>>통계정보시스템(KOSIS))

가 자신의 모국으로 귀환하는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평생 동안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한국인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한국어 능력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둘째, 최근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들 가정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 될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가정불화는 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 매우 이질적인 두 문화권의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제결혼가정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시피 하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의 국제결혼이 자연스러운 만남의 결과에서 발생하기 보다는 결혼중개회사를 통한 인위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 정도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속성으로 밟고 한국에 입국한다. 국제결혼가정의 남편들은 아내 나라의 언어를 거의 배우지 않기 때문에 사정은 더 심각하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전제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아내와 한국인 가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매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설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수나 종류가 아주 적은 편이다. 그러나 II부에서 살펴본 듯이 각 기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단기 실

시하는 프로그램은 설이나 추석에 한복입기나 제사상 차리기 교육, 김장철에 김장체험 활동, 비즈공예와 같은 취미활동, 정보화교육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부부교실, 다문화가족 캠프, 다문화가족 한마당, 백일장대회 등 일회성 행사 중심 프로그램이 많은 실정이다.

한국어교육 또한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워낙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다 보니 그 전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주체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의 학습 해당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한 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

먼저, 한국어교육 대상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그들의 모국에서 받은 교육 정도와 모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정도,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정도 등을 파악하여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이수한 한국어교육 과정이 공식적으로 인증할 만한 과정이었는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한국어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내용, 교재 형태,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교육자(한국어교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 못지않게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는 한국어교원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교원을 통해서 한국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원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도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상황에서 비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언어의 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화에는 많은 오류가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가족이나 이웃 주민들 중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발화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드문 실정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처한 언어 습득 환경에서 그런 오류들을 교정하고 화석화되지 않도록 지도해 줄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쳐 훈련된 한국어교원들뿐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원이 가지고 있는 교사 자질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성패를 가를 만큼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주여성들에게 정확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언어와 문화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5, 6년 정도 거주하였고 5, 6개월 정도 한국어교육을 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이주여성들도 공식적인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주제에 대한 대화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에서 매우 필수적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설문 항목에 수용

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한국어 교원 대상 설문을 통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한국어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1)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

① 피조사자 선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와 비학습자 사이의 차이를 도출하려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진단하여 보다 나은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 무경험자보다는 한국어 학습 경험자가 보다 유효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수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한국어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피조사자로 선택하였다.

전북지역의 경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통해서 한국어를 교육받고 있는 학습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전북지역 피교육자 조사 응답자는 주로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방문 한국어교육을 받는 이주여성들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나 지방자치기관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서 학습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충북지역의 경우 조사에 응한 학습자들은 주로 한국어 집합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지역의 통합사회복지관에서 5인 이상의 집합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주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경우도 충북지역과 유사하게 집합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이 주 조사 대상이다.

② 피조사자 수

설문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전북지역 59명, 충북지역 36명, 경북지역 39명으로 총 134명이다. 이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4,013명,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3,122명,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5,056명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³⁾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크게 차이가 없고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 과정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출된 표본만으로도 결과는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③ 조사 형태 및 절차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서 오래 살았어도

3) 2007. 09. 30. 현재 지역별 결혼이민자 현황

자신들에게 익숙한 대화내용이나 일상적인 대화내용을 벗어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설문지를 건네주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부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쉬운 표현을 선별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전북 완주군과 순창군에서 <농촌 여성결혼

인 원(명) 지역별	결혼이민자 수		
	총 계	남자	여자
	107,641	12,675	94,966
서울특별시	27,798	5,360	22,438
부산광역시	4,874	475	4,399
대구광역시	3,170	278	2,892
인천광역시	6,455	913	5,542
광주광역시	1,990	143	1,847
대전광역시	2,378	234	2,144
울산광역시	1,788	114	1,674
경기도	27,417	3,785	23,632
강원도	2,657	135	2,522
충청북도	3,316	194	3,122
충청남도	4,869	249	4,620
전라북도	4,159	146	4,013
전라남도	4,585	84	4,501
경상북도	5,258	202	5,056
경상남도	6,033	285	5,748
제주도	894	78	816

자료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6/imm_60501.jsp)

이민자가족 지원사업>(농림부)에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어교사(농림부 명칭은 방문교육도우미)로 활동하는 전주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연구원 4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 초안은 현재 한국어를 교육받고 있는 이주여성들 10명(전북지역 5명, 경북지역 5명)을 대상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은 이해 가능한 표현으로 바꾸었다. 또한 예비 설문과정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교체하였다.

위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설문지로 실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 초안보다는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소통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 대 일 설문 방식을 택하였다. 조사원은 설문 항목을 피조사자에게 모두 읽어 주었으며 되도록 이해 가능한 표현으로 내용을 설명하여 설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 교육자(한국어교원)

① 피조사자 선택 방법

전북지역은 주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농림부)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사(방문교육도우미)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충북지역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한국어교원이 주 응답자였다. 경북지역은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이나 해당 시에서 지원을 받는 통합사회복지관에서 활동하

는 한국어교원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다. 특히, 이주여성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모두 여성이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여성이다 보니 여성이 이들을 교육하는 경우가 많고, 농림부 사업의 경우 이주여성의 남편들이 외부 남성의 방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교육도우미 선발 과정에서 남성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선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응해 준 한국어교원은 모두 여성이다.

② 피조사자 수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한국어 교원은 전북지역 16명, 충북지역 14명, 경북지역 17명으로 총 47명이다.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의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는 여러 기관들에서 한국어교육을 분산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 한국어교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다 보니 한국어교원이 수시로 교체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단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뿐이다. 농림부에서는 전국 30개 시군에서 11명(예비교사 1명 포함)씩 총 330명의 교원을 선발하였다. 그 이외의 기관들은 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도 다르고 교육 방식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한국어교원의 수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원은 특정한 기관에 교원

으로 등록하거나 하나의 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채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단기성이다 보니 어떤 사업의 경우 교육에 참여한 교원을 과연 한국어교원으로 분류해도 될지 의심스러운 경우도 많다. 게다가 민간단체나 종교단체들에서도 수시로 한국어교원을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다가 여러 여건상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경우가 반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한국어교원의 정확한 수효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부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 시·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본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한국어교육에 대한 한국어교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어교원들은 그래도 양질의 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나름대로 소정의 선발 절차를 밟았고, 교육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단순 자원봉사자들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하다 할 수 있다.

③ 조사 형태 및 절차

한국어교사에 대한 조사는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어교원의 경우 한국어 설문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사소통 장애를 대비하여 조사원이 일 대 일로 수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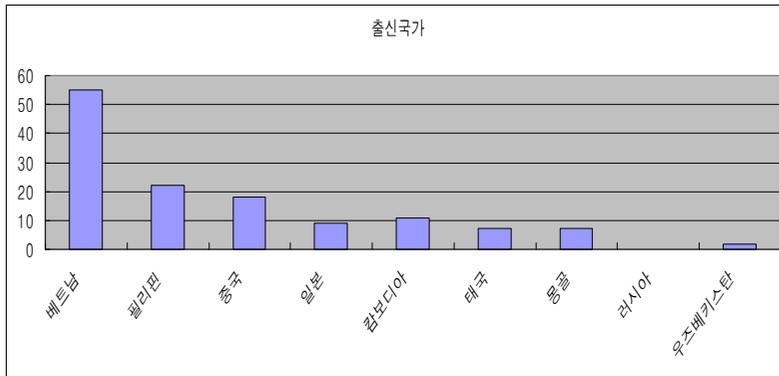
1)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기초조사 항목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출신국가, 나이, 모국에서의 학력, 결혼 경로, 결혼 전 직업의 종류, 한국 거주 기간, 거주지, 동거가족 상황, 현재 경제활동 유무, 남편의 직업 등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를 다음에서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출신국가별 분포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국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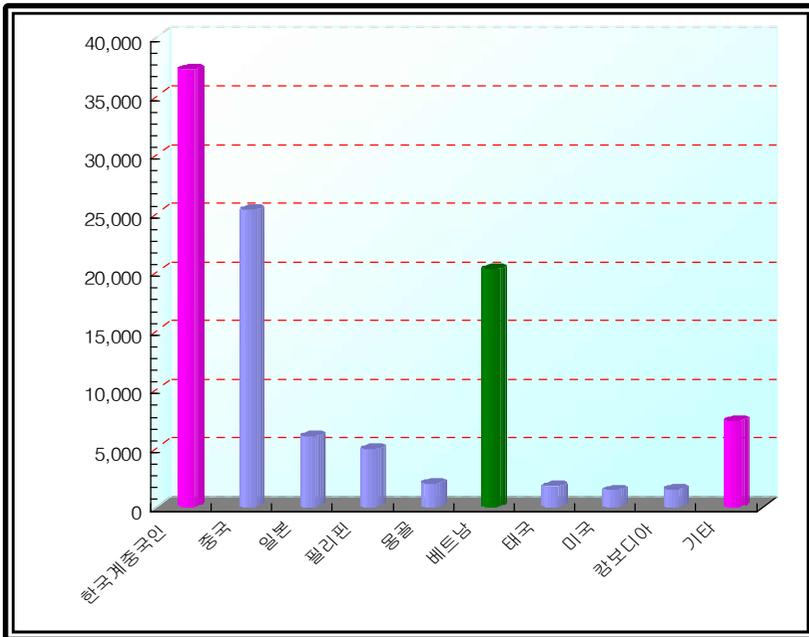
<표3-1> 출신국가별 분포(단위: 명)



이번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22명, 중국 18명(조선족 6명, 한족 10명, 소수민족 1명, 무응답 1명), 캄보디아 11명, 일본 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분포⁴⁾와는 차이를 보이지만 최근 한국으로 유입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별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여성이 입

4)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2007년 9월 30일) (단위: 명)



자료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HP/IMM/imm_06/imm_60501.jsp)

국했으나 90년대 초에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 동포와 중국 한족의 결혼 이주가 활발한 데 이어 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국적도 다변화하는 경향이 있다.⁵⁾

또한 2007년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되거나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례들이 여러 건 알려지면서 베트남 내에서의 한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고 베트남 정부에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베트남 내에서의 국제결혼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워지자, 많은 결혼중개회사들이 캄보디아 등의 또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사업체를 옮겨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07년에 새롭게 한국에 입국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의 숫자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위 결과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의 지역별 출신국가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3-2> 지역별 출신국가 분포(단위: 명, %)

5) 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2006년, 492쪽.

		출신국가								전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우즈베크		
지역구분	전북	빈도	35	7	1	2	6	1	4	2	58
		지역구분의 %	60.3%	12.1%	1.7%	3.4%	10.3%	1.7%	6.9%	3.4%	100.0%
	충북	빈도	7	12	5	2	1	6	3	0	36
		지역구분의 %	19.4%	33.3%	13.9%	5.6%	2.8%	16.7%	8.3%	.0%	100.0%
	경북	빈도	13	3	12	5	4	0	0	0	37
		지역구분의 %	35.1%	8.1%	32.4%	13.5%	10.8%	.0%	.0%	.0%	100.0%
전체	빈도	55	22	18	9	11	7	7	2	131	
	지역구분의 %	42.0%	16.8%	13.7%	6.9%	8.4%	5.3%	5.3%	1.5%	100.0%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지역별 출신 국가 비율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설문조사는 농림부 사업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농림부)은 결혼을 통해 한국 농촌으로 이주한 여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 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⁶⁾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어서 방문 한국어 초보교육이 필요한 가정과 언어소통이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전북지역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학습자 숫자가 월등히 많은 것은, 전북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가 대부분 농림부 사업

6) 농림부 홈페이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지침> 참조.

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민의 초창기에는 일본이나 중국 출신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⁷⁾ 이는 국제결혼의 부정적 측면이 송출국 측에 많이 알려지면서 해당 국가에서의 결혼 중개업체 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져 사업이 보다 용이한 국가로 사업체들이 이동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7년도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숫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림부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베트남 출신이나 캄보디아 출신처럼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여성들이 많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국가별 분포는 2007년 현재의 국제결혼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② 연령대별 분포

이번 설문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대 분포는 다음과 같다.

7) <농림어업분야 외국여자와의 국적별 혼인건수>

연 도	2005					2004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기타	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
건 수 (구 성 비)	2,885 (100)	1,535 (53.2)	984 (34.1)	198 (6.9)	168 (5.8)	1,814 (100)	879 (48.5)	560 (30.9)	195 (10.7)	180 (9.9)

*자료 : 통계청 '05혼인·이혼통계 결과 * 베트남출신 : ('04) 560 → ('05) 1,535명 <2.7배>

<표3-3> 지역별 연령대 분포(단위: 명, %)

			연령대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지역구분	전북	빈도	7	41	11	0	59
		지역구분의 %	11.9%	69.5%	18.6%	.0%	100.0%
	충북	빈도	0	20	13	3	36
		지역구분의 %	.0%	55.6%	36.1%	8.3%	100.0%
	경북	빈도	2	25	7	5	39
		지역구분의 %	5.1%	64.1%	17.9%	12.8%	100.0%
전체	빈도	9	86	31	8	134	
	지역구분의 %	6.7%	64.2%	23.1%	6.0%	100.0%	

지역별 연령대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지역에 관계없이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연령대 비율에 차이가 있다. 즉 지역 간 연령대 비율이 동질적이지 않다.

전북지역의 경우 응답자 59명 중 20대가 41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1명이었으며 10대도 7명이나 되었다. 충북지역은 응답자 36명 중 20대가 20명, 30대가 13명, 40대가 3명이었다. 경북지역은 응답자 39명 중 20대가 25명, 30대가 7명, 40대가 5명, 10대가 2명이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의 혼인 당시 나이는 과거 일본이나 중국, 필리핀 출신 여성들보다 적은 편이다. 전북지역 응답자가 주로 20대에 몰려 있는 것은 충북지역은 필리핀 출신 여성의 비율(33.3%)이, 경북지역은 중국 출신

여성의 비율(32.4%)이 전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에 비해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입국하고 있는데, 전북지역 응답자는 베트남 출신이 35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20대 응답자가 많은 편이다.

③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학력은 학습자에게 적절한 한국어 교수법을 적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고학력 여성들은 학습 목표도 뚜렷하고 학습의욕도 높으며 학습능력도 높은 반면, 학력이 낮은 여성들은 학습의욕이 아예 없는 학습자들이 있는가 하면 학습의욕은 높지만 학습능력은 떨어지는 편이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력은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변인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초등학교 졸업	9	6.7	6.8	6.8
	중학교 졸업	40	29.9	30.1	36.8
	고등학교 졸업	52	38.8	39.1	75.9
	대학교 중퇴	6	4.5	4.5	80.5
	대학교 졸업	26	19.4	19.5	100.0
	합계	133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7		
	합계	134	100.0		

3개 지역의 설문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교 졸업자가 52명(38.8%)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40명(29.9%), 대학교 졸업 26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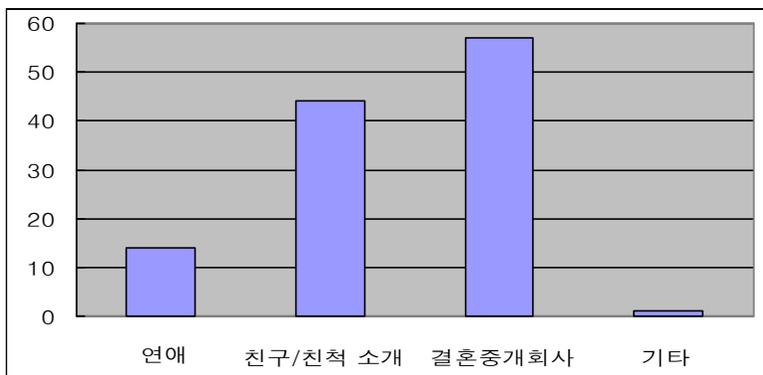
국제결혼 이민이 확산되던 초기에 입국한 중국이나 필리핀, 일본 출신 여성들은 대학 졸업, 전문대 졸업, 대학 중퇴 등으로 비교적 학력이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 최근에 입국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은 고졸 이하의 학력이 많은 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 국가별 분포와 학력 분포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④ 결혼 경로

한국사회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형태 중에서 중매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주여성들의 국제결혼은 결혼중개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를 다른 한국 남자에

게 소개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반영한다.

<표3-5>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결혼 경로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했어요?”라는 질문에 총 134명의 응답자 중에서 57명(42.5%)이 결혼중개회사라고 응답하였고, 친구/친척의 소개라고 응답한 사람이 44명(32.8%)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자를 합하면 모두 121명(75.3%)로 대부분의 결혼이 중매혼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국제결혼 가정의 대부분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나 서로의 언어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다문화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⑤ 결혼 전 직업 여부 및 종류

직업 여부를 물었을 때 134명의 응답자 중에서 23명은 응답하지 않거나 무직이라고 대답하였다. 111명의 응답자 중에서

회사 43명(32.1%), 공장 21명(15.7), 학생 9명(6.7%), 농사 9명(6.7%), 미용사 6명(4.5%), 선생님 5명(3.7) 순으로 대답하였고, 가사, 가정부, 간호사, 공예사, 교회 사무, 미싱사, 미용사, 백화점 점원, 보모, 사무, 사회복지사, 아르바이트, 약사, 유치원교사, 주부, 태권도 학원 관리, 통역, 판매원은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출신국가에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였으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한국 입국년도

통일교에서 시행한 대규모의 국제 합동결혼식은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통일교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통일교 합동결혼식이 대규모화된 것은 1992년(3만 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0년에 <연변처녀-농촌총각 짝짓기 사업>으로 시작된 지자체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운동(23쌍 결혼)이 2000년부터는 동남아 여성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05년부터는 지자체별로 국제결혼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 당분간 국제결혼 가정은 증가할 전망이다.

<표3-6> 한국 입국년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989	1	.7	.8	.8
	1996	2	1.5	1.5	2.3
	1997	2	1.5	1.5	3.8
	1998	3	2.2	2.3	6.0
	1999	1	.7	.8	6.8
	2000	12	9.0	9.0	15.8
	2001	2	1.5	1.5	17.3
	2002	7	5.2	5.3	22.6
	2003	6	4.5	4.5	27.1
	2004	13	9.7	9.8	36.8
	2005	18	13.4	13.5	50.4
	2006	42	31.3	31.6	82.0
	2007	24	17.9	18.0	100.0
	합계	133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7		
합계		134	100.0		

이번 조사의 결과는 위에서 말한 한국사회 내 국제결혼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입국년도가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1, 2명씩이었다가 2000년에는 12명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42명으로 전년도의 1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위 조사 결과와 같이 최근에 입국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수가 초기 이주자인 한국계중국인(일명 연변처녀 혹은 연변족)이나 필리핀계 여성보다 월등히 많다. 초기 이주자인 중국계한국인들은 연변사투리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필리핀 여성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여서 언어교육이 용이하고 언어 습득에 대한 의지도 높은 데 비해, 후기 이주자인 베트남이나 태국, 캄보디아 등의 학습자들은 저학력자가 많아서 언어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후기 이주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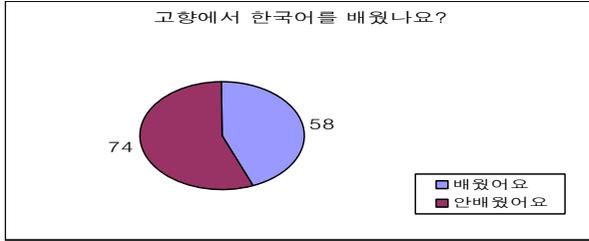
이번 항목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모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지, 학습 기간이며 교사는 적절한지, 한국어교재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겠다.

①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여부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부분 결혼중개 회사를 통해서 한국남자와 결혼하였다. 결혼 중개업소에서 한국 남성에게 판매하는 외국여성과의 결혼 상품은 한국어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들은 한국으로 입국하기까지 2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최근에 입국하는 캄보디아 출신 학습자들을 면담해 보면 한국어교육이 전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으로부터 입국허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간의 일부에 결혼중개회사에서 마련한 합숙소에서 한국어와 한국 음식 요리법 등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어떤 회사들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한국어 자·모음도 모른 채 입국하는 이주여성도 의외로 많다.

<표 3-7>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여부(단위: 명)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여부에 대한 응답자는 총 132명 중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에 58명(43.3%), ‘안 배웠어요’에 74명(55.2%)이 응답하여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보다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매우 시급함을 의미한다.

② 한국어 학습 기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학습 기간을 물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학습 기간(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안 배움	76	56.7	56.7	56.7
	2-6일 정도	4	3.0	3.0	59.7
	1주일 정도	5	3.7	3.7	63.4
	2주일 정도	7	5.2	5.2	68.7
	한 달 정도	24	17.9	17.9	86.6
	두 달 정도	9	6.7	6.7	93.3
	3개월 정도	7	5.2	5.2	98.5
	기타	2	1.5	1.5	100.0
	합계	134	100.0	100.0	

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어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2주일 이하의 한국어교육을 받은 이주여성은 68.7%(92명)로 절반을 넘는다. 단일 항목으로는 한 달 정도 학습하였다는 응답자가 24명으로 17.9%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3개월 이상의 장기 학습자는 7명으로 전체의 5.2%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습득할 정도로 충분한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매우 시급함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결과라 하겠다.

③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장소 및 한국어교원의 국적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주로 결혼중개회사에서 마련한 합숙소나 결혼중개회사에서 고용한 한국어선생님의 집에서 한국어를 배운다. 이번 조사에서 설문에 응한 이주여성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3-9>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장소(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안 배움	75	56.0	56.0	56.0
	결혼중개회사	17	12.7	12.7	68.7
	대학교	2	1.5	1.5	70.1
	학원	10	7.5	7.5	77.6
	선생님 집	21	15.7	15.7	93.3
	종교기관(교회, 성당 등)	3	2.2	2.2	95.5
	개인집	2	1.5	1.5	97.0
	고등학교	1	.7	.7	97.8
	남편	1	.7	.7	98.5
	외국어센터	1	.7	.7	99.3
	학교	1	.7	.7	100.0
	합계	134	100.0	100.0	

위 결과를 보면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주여성 중에서 17명(12.7%)은 결혼중개회사, 21명(15.7%)은 선생님 집에서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중에서 사립 학원에서 배운 이주여성은 10명이고, 대학교, 학교(고등학교 포함) 등 공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운 이주여성은 4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교육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적절한 한국어교육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한국어교원의 자질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한 58명 중에서 한국어 선생님의 국적이 ‘한국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명이었다. 그런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이 과연 자격이 검증된 사람인지는 의문이다. 응답자 대부분이 결혼중개회사에서 마련한 합숙소나 선생님 집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언어교육에 적합한 교육장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과연 자격이 검증된 한국어교원을 고용했을지는 역시 의문이다.

④ 모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형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들 중 대부분은 미리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결정되고 난 후 한국에서 입국 허가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결혼중개회사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어를 배운다. 결혼이 결정된 여성들끼리 출국 날짜를 기다리면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표3-10>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형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1 교육	2	1.5	3.4	3.4
	3-5명 소그룹 교육	16	11.9	27.1	30.5
	6-10명 중그룹 교육	12	9.0	20.3	50.8
	단체교육(10명 이상)	29	21.6	49.2	100.0
	합계	59	44.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5	56.0		
합계		134	100.0		

응답자들에게 모국에서 몇 명이 함께 한국어를 배웠느냐는 질문에 단체교육(10명 이상) 29명, 소그룹 교육(3-5명) 16명, 중그룹 교육(12명) 순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학습 정도라든가 학력 수준 등의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학습 규모 구성이 아니라 함께 결혼식을 치른 여성의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

⑤ 한국어 교재의 종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는 주로 그 나라에서 출판된 책들이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관련 책을 보면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병기된 한국어 교재(예. <배한교집상황100>), 베트남어-한국어 사전, 학습 당시 한국어 선생님이 복사하여 나누어 준 학습자료 등이 있다. 본 조사의 결과 역시 이러한 상황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 준다.

<표3-11> 모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안 배움	72	53.7	53.7	53.7
	책 없었음	10	7.5	7.5	61.2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병기	38	28.4	28.4	89.6
	한국어로 된 책	9	6.7	6.7	96.3
	교사가 작성한 학습자료	2	1.5	1.5	97.8
	사전	2	1.5	1.5	99.3
	한국말만 있는 책과 한자어는 따로 교육	1	.7	.7	100.0
	합계	134	100.0	100.0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응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에서 38명이 모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교재로 공부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모국에서의 한국어학습 경험자 62명에서 절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는 앞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때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수정에 유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3) 한국어 학습 경험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요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은 편이다.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예비조사 과정에서 만났던 완주군의 한 이주여성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안 배우고 어떻게 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데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임을 증명해 주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응해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총 응답자 134명 중 125명(93.3%)이 한국어학습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마련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학습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들에게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 사항들을 확인하여 연구의 결과 도출에 집중도를 부여하고자 한국어학습 경험이 있거나 한국어학습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표3-12> 한국에서의 한국어학습 여부(단위: 명)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학습 경험이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어학습 기간, 한국어학습 시 수강료 여부,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목적, 한국어 기능별 학습 비율 등을 물었다. 한국에서의 학습 경험이 없는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이유, 한국어학습 희망 여부 및 그 이유를 물었다. 그 결과를 다음에서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한국어학습 기간

한국어학습 기간을 물어 본 결과 3-6개월 정도 한국어를 배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49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개월-1년 32명(23.9%), 1-3년 26명(19.4%), 1-2개월 12명(9%) 순으로 나타났다.

<표3-13> 한국어학습 기간(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일	9	6.7	6.7	6.7
	1-2주일 정도	2	1.5	1.5	8.2
	1-2개월 정도	12	9.0	9.0	17.2
	3-5개월 정도	49	36.6	36.6	53.7
	6개월-1년	32	23.9	23.9	77.6
	1-3년	26	19.4	19.4	97.0
	기타	4	3.0	3.0	100.0
	합계	134	100.0	100.0	

본 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은 농림부 사업과 여성가족부 사업

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한국어교육을 받고 있는 이주여성이 대부분이다. 농림부 사업은 한 학습자에게 5개월(주 3회) 동안 방문교육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 사업은 교육장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병행하는데 사업 기간은 10개월 정도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바는 한국어를 1년 이상 학습하였다는 응답자가 26명으로 19.4%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1년 이상의 장기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5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운 이주여성이 53.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운 이주여성이라고 할지라도 보충교육이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한국어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수강료 지불 여부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교육은 거의 대부분 무료 교육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87.3%(117명)가 무료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14> 한국어교육 수강료 지불 여부(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아니요	117	87.3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7	12.7		
합계		134	100.0		

③ 한국어 학습 이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 여부를 묻고, 배우고 싶다고 대답한 이주여성에게는 그 이유를 물었다. 이 항목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표3-14> 그냥 배우고 싶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5	3.7	38.5	38.5
	2	4	3.0	30.8	69.2
	4	1	.7	7.7	76.9
	5	1	.7	7.7	84.6
	6	1	.7	7.7	92.3
	7	1	.7	7.7	100.0
	합계	13	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21	90.3		
	합계	134	100.0		

<표3-15> 한국/한국어가 좋아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11	8.2	36.7	36.7
	2	7	5.2	23.3	60.0
	3	1	.7	3.3	63.3
	4	5	3.7	16.7	80.0
	5	4	3.0	13.3	93.3
	6	1	.7	3.3	96.7
	7	1	.7	3.3	100.0
	합계	30	22.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4	77.6		
	합계	134	100.0		

<표3-16> 한국어로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5	3.7	25.0	25.0
	2	4	3.0	20.0	45.0
	3	5	3.7	25.0	70.0
	4	1	.7	5.0	75.0
	5	1	.7	5.0	80.0
	6	2	1.5	10.0	90.0
	7	1	.7	5.0	95.0
	9	1	.7	5.0	100.0
	합계	20	14.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4	85.1		
	합계	134	100.0		

<표3-17> 가족들과 한국어로 이야기 하고 싶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68	50.7	68.7	68.7
	2	18	13.4	18.2	86.9
	3	7	5.2	7.1	93.9
	4	4	3.0	4.0	98.0
	7	1	.7	1.0	99.0
	8	1	.7	1.0	100.0
		합계	99	73.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5	26.1		
	합계	134	100.0		

<표3-18> 한국문화나 예절을 배우고 싶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4	3.0	8.3	8.3
	2	15	11.2	31.3	39.6
	3	17	12.7	35.4	75.0
	4	6	4.5	12.5	87.5
	5	4	3.0	8.3	95.8
	6	1	.7	2.1	97.9
	8	1	.7	2.1	100.0
	합계	48	3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6	64.2		
합계		134	100.0		

<표3-19>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15	11.2	18.3	18.3
	2	36	26.9	43.9	62.2
	3	18	13.4	22.0	84.1
	4	8	6.0	9.8	93.9
	5	1	.7	1.2	95.1
	6	2	1.5	2.4	97.6
	8	1	.7	1.2	98.8
	9	1	.7	1.2	100.0
	합계	82	61.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2	38.8		
합계		134	100.0		

<표3-20> 한국어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15	11.2	21.4	21.4
	2	16	11.9	22.9	44.3
	3	25	18.7	35.7	80.0
	4	6	4.5	8.6	88.6
	5	3	2.2	4.3	92.9
	6	1	.7	1.4	94.3
	7	4	3.0	5.7	100.0
	합계	70	52.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64	47.8		
합계		134	100.0		

<표3-21>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해서(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1	.7	5.9	5.9
	3	2	1.5	11.8	17.6
	4	4	3.0	23.5	41.2
	5	3	2.2	17.6	58.8
	6	2	1.5	11.8	70.6
	7	1	.7	5.9	76.5
	8	2	1.5	11.8	88.2
	9	2	1.5	11.8	100.0
	합계	17	12.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17	87.3		
합계		134	100.0		

<표3-22> 돈을 벌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2	1.5	6.5	6.5
	2	3	2.2	9.7	16.1
	3	10	7.5	32.3	48.4
	4	4	3.0	12.9	61.3
	5	4	3.0	12.9	74.2
	6	5	3.7	16.1	90.3
	8	1	.7	3.2	93.5
	9	2	1.5	6.5	100.0
	합계	31	23.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03	76.9		
합계		134	100.0		

- 기타 : 운전면허 따고 싶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거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내용	가중값(중요도1:0.35, 중요도2:0.25, 중요도3:0.1, 나머지:0.05)
그냥 배우고 싶어서	2.95
한국/한국어가 좋아서	5.7
한국어로 이야기 할 사람이 없어서	3.55
가족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29.5
한국문화나 예절을 배우고 싶 어서	7.45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16.7
한국어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12.45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 해서	1.55
돈을 벌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3.25

응답 항목 중에서 ‘가족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서’가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난 걸로 보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욕구가 아주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등이 그 다음 순위인 걸로 보아 국적 취득이나 취업 등의 실질적인 요인보다는 가족들과의 소통이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따른 필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

④ 한국어 기능별 학습 비율

한국어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의 4가지 기능 영

역이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4개 영역에 대한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 선생님과 가장 많이 한 활동을 순서대로 기입하라고 하였다.

<표3-23> 첫 번째로 많이 한 활동(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말하기	78	58.2	64.5	64.5
	읽기	20	14.9	16.5	81.0
	듣기	14	10.4	11.6	92.6
	쓰기	9	6.7	7.4	100.0
	합계	121	90.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3	9.7		
합계		134	100.0		

<표3-24> 두 번째로 많이 한 활동(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말하기	25	18.7	22.5	22.5
	읽기	50	37.3	45.0	67.6
	듣기	23	17.2	20.7	88.3
	쓰기	13	9.7	11.7	100.0
	합계	111	82.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17.2		
합계		134	100.0		

<표3-25> 세 번째로 많이 한 활동(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말하기	11	8.2	10.4	10.4
	읽기	30	22.4	28.3	38.7
	듣기	39	29.1	36.8	75.5
	쓰기	26	19.4	24.5	100.0
	합계	106	79.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8	20.9		
합계		134	100.0		

<표3-26> 네 번째로 많이 한 활동(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말하기	7	5.2	6.3	6.3
	읽기	17	12.7	15.3	21.6
	듣기	34	25.4	30.6	52.3
	쓰기	53	39.6	47.7	100.0
	합계	111	82.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3	17.2		
합계		134	100.0		

위 결과를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말하기→읽기→ 듣기→ 쓰기’ 순서로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가족·이웃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가장 중점적으로 교육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한국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 상황에서 교재를 읽어 주거나 읽게 하는 활동을 기본적으로 하게 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간 기능이 통합되어야 언어능력이 골고루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한국어교육에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듣기와 쓰기 영역의 교육도 보완되어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한글자모를 쓰는 순서가 틀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습득한 어휘가 많기 때문에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도 많다. 듣기 교육 역시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매우 필요한 영역이다.

4) 한국어 학습 무경험자의 한국어교육 관련 요구

① 한국어 학습 희망 여부

본 조사에서 한국에서의 한국어학습 무경험자는 총 134명의 응답자 중 9명이다. 이들은 어디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지 알 수가 없었거나 기회가 없어서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를 물었더니 모든 응답자(100%)가 배우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표3-27> 한국어 학습 희망 여부(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아주 많이 배우고 싶어요	36	26.9	83.7	83.7
	많이 배우고 싶어요	4	3.0	9.3	93.0
	배우고 싶어요	3	2.2	7.0	100.0
	합계	43	32.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91	67.9		
	합계	134	100.0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한국어를 모르니까 배우고 싶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표3-28> 한국어학습을 희망하는 이유(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00	74.6	74.6	74.6
	한국어를 모르니까 알고 싶어요	23	17.2	17.2	91.8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	2.2	2.2	94.0
	한국어 선생님하고 생활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1.5	1.5	95.5
	우리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	3.7	3.7	99.3
	남편·가족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1	.7	.7	100.0
	합계	134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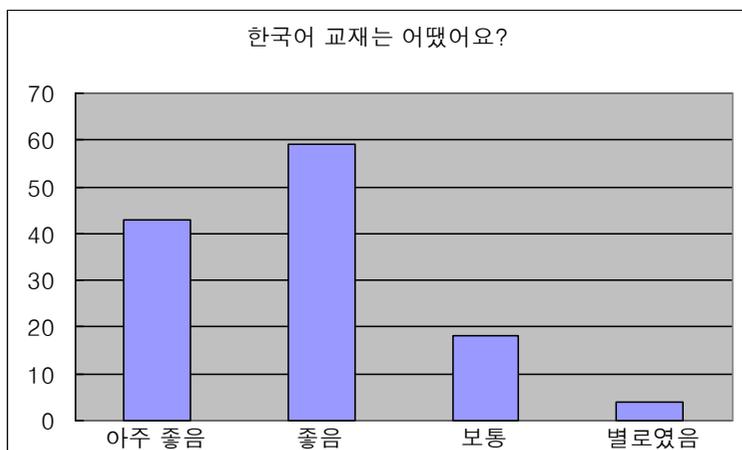
위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학습에 대한 희망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어를 통한 가족 간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역시 강렬함을 알 수 있었다.

5) 한국어 학습 만족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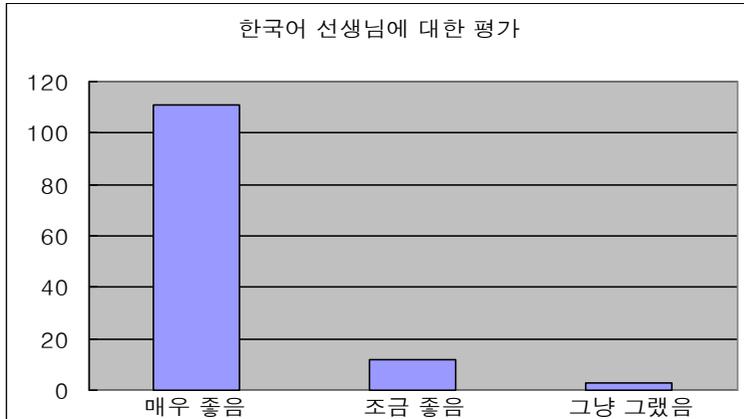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교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교원 만족도

<표3-29> 한국어 교재 만족도(단위: 명)



<표3-30> 한국어교원 만족도(단위: 명)



특히, 한국어교원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선택지가 ‘① 매우 좋았어요, ② 조금 좋았어요, ③ 그냥 그랬어요, ④ 별로였어요, ⑤ 많이 싫었어요’ 총 5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①과 ②를 선택하였고, ④와 ⑤를 선택한 학습자는 전혀 없었다.

위 두 항목을 설문조사 결과로만 본다면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나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이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두 항목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모국에서 사용했던 한국어 교재를 보면 교재 편집이나 내용 구성, 삽화의 수준, 종이의 질 등이 한국의 교재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수준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된 교재를 접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교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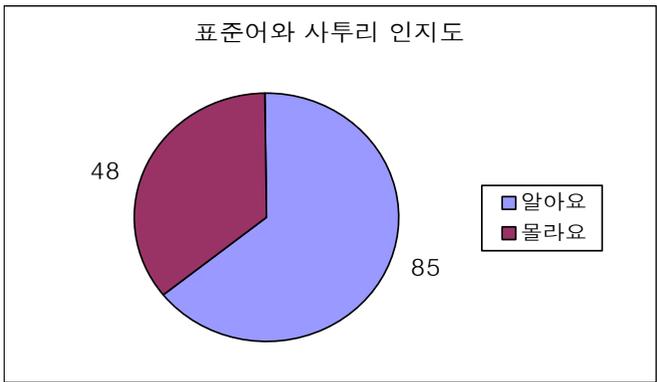
한국어교원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주여성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대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과 뚝 떨어져서 혼자만 한국사회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고민이 있더라도 그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들은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의 거의 전 영역에 이르는 내용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교원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어교육 자체에 대한 만족도라고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6) 표준어/지역어 인식 실태

① 표준어와 사투리 인지도

표준어와 사투리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총 133명의 응답자 중 85명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3-31> 표준어와 사투리 인지도(단위: 명)



위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았다.

<표3-31> 표준어와 사투리 인지도 교차표(단위: 명)

		표준어와 사투리 구분		전체	
		알아요	몰라요		
지역구분	전북	빈도	37	22	59
		지역구분의 %	62.7%	37.3%	100.0%
	충북	빈도	18	18	36
		지역구분의 %	50.0%	50.0%	100.0%
	경북	빈도	30	8	38
		지역구분의 %	78.9%	21.1%	100.0%
전체		빈도	85	48	133
		지역구분의 %	63.9%	36.1%	100.0%

경북지역의 구분비율이 높은 가운데, 카이제곱 검정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지역 간 차이가 인정된다.

<표3-32> 표준어와 사투리 인지도 교차표(단위: 명)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782(a)	2	.034
선형 대 선형결합우도비	1.8946.991	12	.169.030

위 설문 항목의 결과 사투리와 표준어에 대한 인지도는 경북 지역이 가장 높고 충청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

북지역은 지역어의 특성상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과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그에 비해 충북지
역의 언어는 표준어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경기지역의 언
어와 가장 가깝다. 이는 지역별 사투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
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 지역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사투리를 배우고 싶은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전북지역은 89.2%, 경북지역은 75.0%, 충북지역은 64.7%가 사
투리 교육을 희망하였다. 전북지역의 조사에서 설문예 응해준
응답자는 대부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었다.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역은 고령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층은 젊은 층에 비해 사투리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전북
지역의 이주여성들이 놓여 있는 상황은 사투리에 대한 교육을
매우 필요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사투리 정도가 심한 경북지역의 학습자들이었
다. 경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억양이며 문장에서 사투리가 많
이 느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 역시 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3-33> 표준어와 사투리 학습 희망 여부(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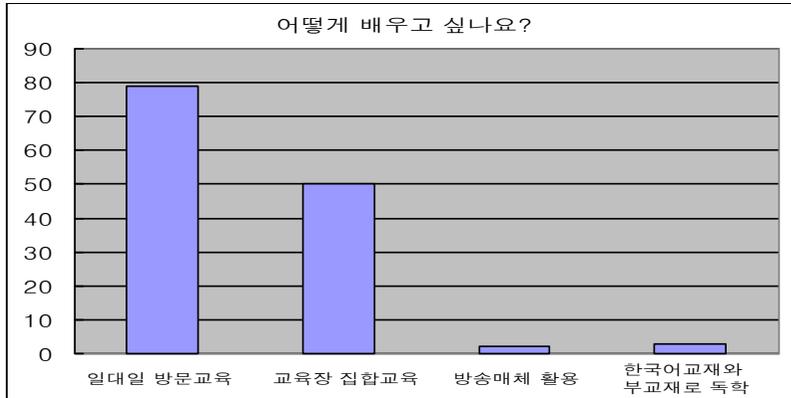
		사투리 배우고 싶은지				
		표준어만 배우고 싶다	사투리만 배우고 싶다	둘 다 배우고 싶다		
지역구분	전북	빈도	3	1	33	37
		지역구분의 %	8.1%	2.7%	89.2%	100.0%
	충북	빈도	4	2	11	17
		지역구분의 %	23.5%	11.8%	64.7%	100.0%
	경북	빈도	4	3	21	28
		지역구분의 %	14.3%	10.7%	75.0%	100.0%
전체	빈도	11	6	65	82	
	지역구분의 %	13.4%	7.3%	79.3%	100.0%	

따라서 위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투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7) 한국어 학습방식 요구 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더) 배운다면 어떤 방식이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59%(79명)가 일 대 일 방문교육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교육장 집합교육 또한 37.3%(50명)로 높은 수준이다.

<표3-34> 한국어를 배울 때 희망하는 학습방식(단위: 명)



한국어 공부를 얼마 동안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55.2%(74명)가 2년 이상이라고 대답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학습 의욕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1년 이상이라고 대답한 23.1%(31명)와 합한다면 총 78.3%(105명)가 1년 이상의 장기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3-35>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기간(단위: 명,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3개월	2	1.5	1.6	1.6
	3-6개월	9	6.7	7.0	8.5
	6-12개월	13	9.7	10.1	18.6
	1년 이상	31	23.1	24.0	42.6
	2년 이상	74	55.2	57.4	100.0
	합계	129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3.7		
합계		134	100.0		

4.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관련 설문 조사 결과분석

본 조사에 응해 준 이주여성들의 자녀들은 취학 전 아동들이 대부분이어서 자녀들을 직접 설문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와 관련된 설문은 이주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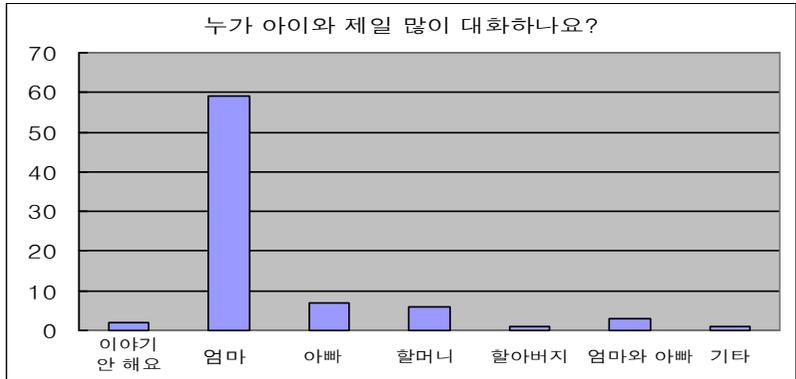
<표3-36> 자녀의 나이(단위: 명, %)

1살	34명	30.9%
2-4살	37명	33.6%
5-7살	21명	19.1%
8-10살	10명	9.1%
11-13살	4명	3.6%
중학생	2명	1.8%
고등학생	2명	1.8%

1) 자녀와 주로 대화하는 사람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가족 중에서 누가 자녀와 가장 오랜 시간 대화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엄마와 가장 오래 대화한다는 응답이 69명(44.4%)이었다.

<표3-37> 자녀와 많이 대화하는 사람(단위: 명)



다음으로는 가족 중에서 자녀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족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엄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표3-38>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단위: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52	38.8	38.8	38.8
	아이 혼자 놀아요	1	.7	.7	39.6
	엄마	62	46.3	46.3	85.8
	아빠	8	6.0	6.0	91.8
	할머니	7	5.2	5.2	97.0
	할아버지	1	.7	.7	97.8
	아이들끼리	2	1.5	1.5	99.3
	미국에 있음	1	.7	.7	100.0
	합계	134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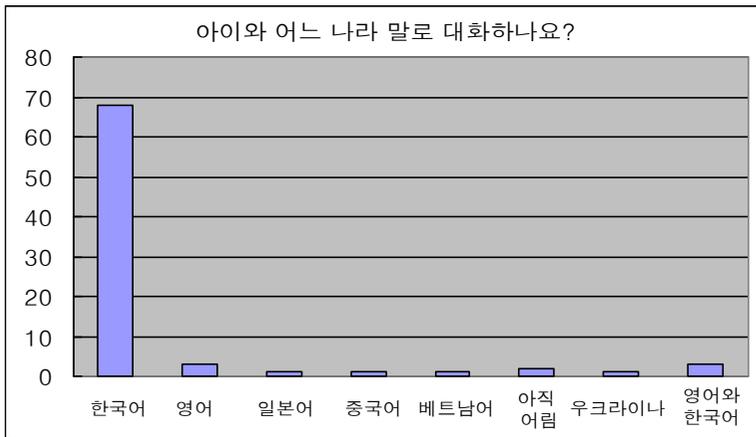
한국사회는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을 엄마에게 일임하는 경향이 있다. 위 조사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엄마

인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을 위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한국문화교육이 매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2)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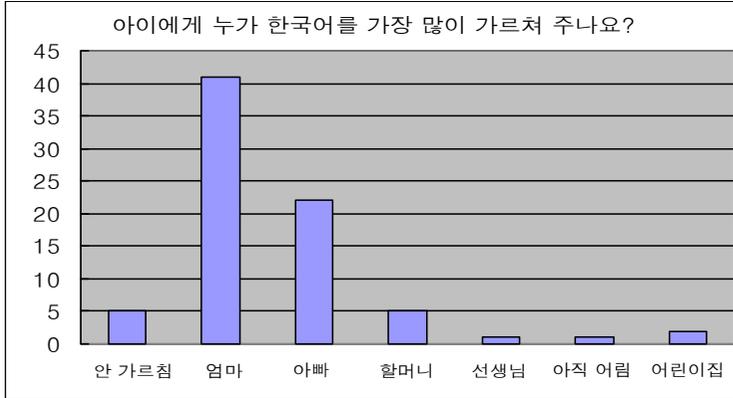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한국어라고 대답한 사람이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3-39> 자녀와 대화하는 언어(단위: 명)



또한 자녀에게 한국어를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엄마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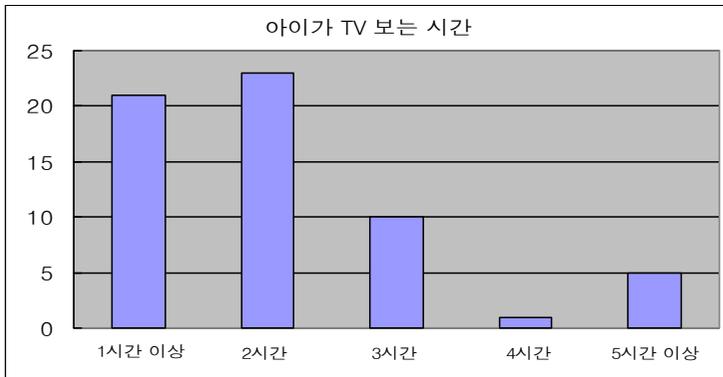
<표3-40> 자녀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사람(단위: 명)



3) 자녀의 한국어 노출 실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가 한국어에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으로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와 접하는 시간에 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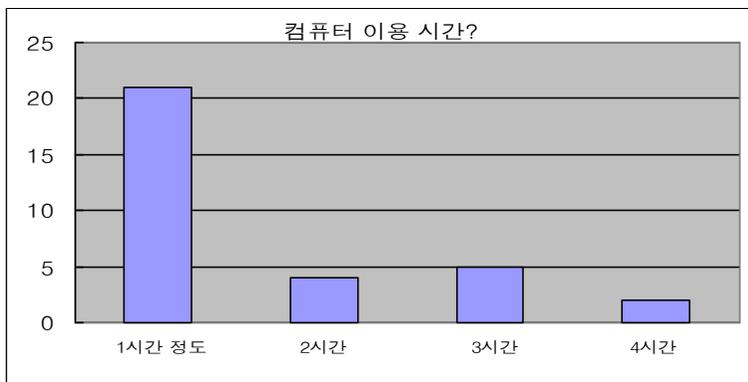
<표3-41>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단위: 명)



집에 컴퓨터가 있냐는 질문에 70%의 피조사자가 있다고 응

답하였다.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자녀의 컴퓨터 이용 시간을 물었더니 1시간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3-42> 자녀의 컴퓨터 이용 시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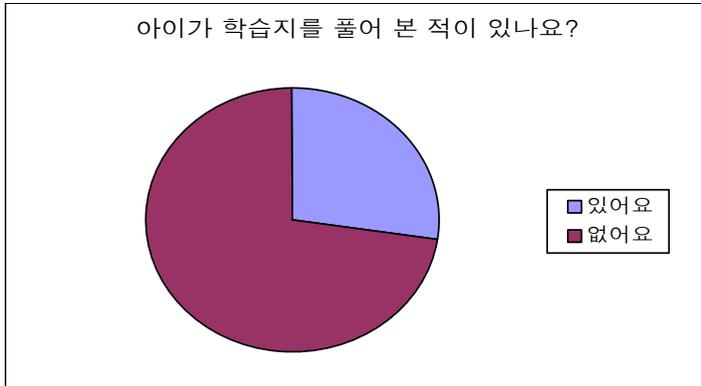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컴퓨터 이용 시간으로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 한국어에 노출되는 정도는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들과 비슷한 정도였다. 이것으로 볼 때 엄마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4) 자녀의 학습지교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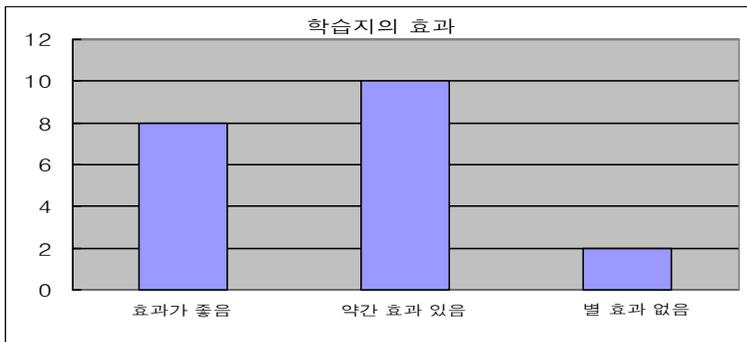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은 취학 전 아동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학습지로 공부시키는 가정은 많지 않았다.

<표3-43> 자녀의 학습지 경험



학습지를 활용하여 자녀를 교육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물었을 때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3-44> 자녀의 학습지 활용 효과(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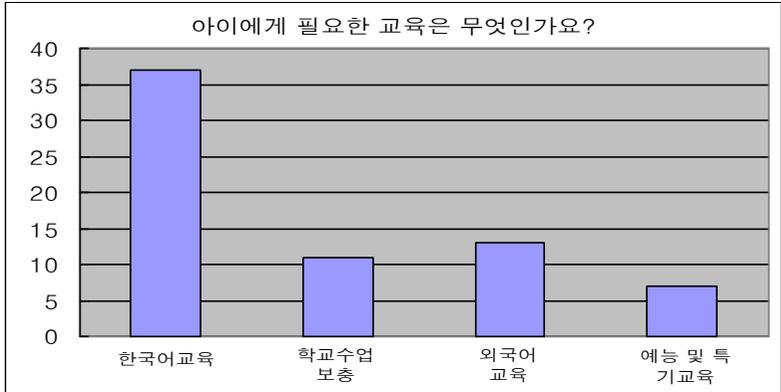


5) 자녀교육 요구 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을 물었다. 그 결과는 의외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절대 다수였다. 이 결

과를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자녀들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표3-45> 자녀 교육 관련 희망사항(단위: 명)



4. 한국어교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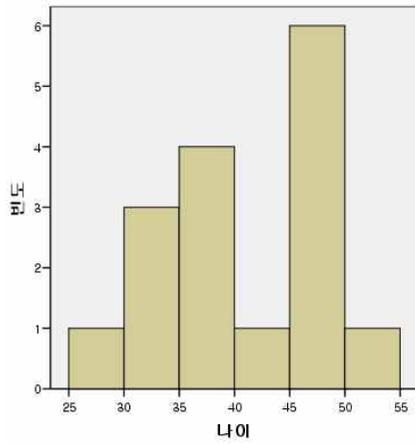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 대상 기초조사 항목 결과

본 연구에서 한국어교원이라 함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을 말한다.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의 기초조사 항목에서는 나이, 한국어교육 관련 자격과 경력, 다른 직업 여부 등을 물었다. 그 결과를 다음에서 항목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한국어교원 연령대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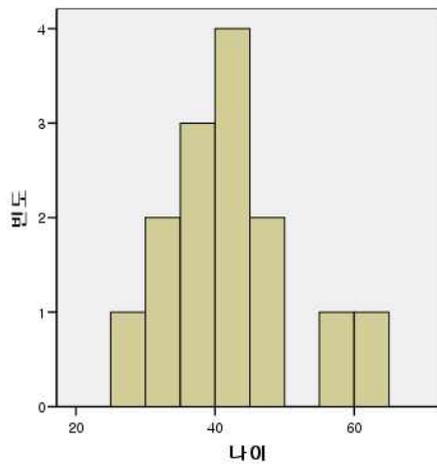
- 전북

<표3-46> 전북지역 교육자 연령(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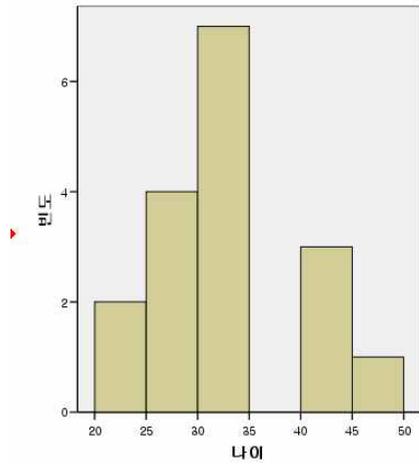
- 충북

<표3-47> 충북지역 교육자 연령(단위: 명)



- 경북

<표3-48> 경북지역 교육자 연령(단위: 명)



- 지역별 교육자 나이

<표3-49> 지역별 교육자 평균 연령(단위: %)

한국어교원 대상	평균	N	표준편차
전북	40.19	16	7.530
충북	41.57	14	8.890
경북	32.88	17	7.390
합계	37.96	47	8.663

-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700.284	2	350.142	5.599	.007
집단-내	2751.631	44	62.537		
합계	3451.915	46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된다. 즉 경북지역 교육자의 연령은 유의적으로 적다.

위 분석 결과를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설문조사 항목

중 한국어교원 만족도와 비교해 본다면, 한국어교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어교원의 나이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무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② 한국어교육 경력

<표3-50> 한국어교원의 학력 수준(단위: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대졸 이상 (전문대 포함)	44	93.6	93.6	93.6
	대재	1	2.1	2.1	95.7
	고졸	2	4.3	4.3	100.0
	합계	47	100.0	100.0	

한국어교원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이다. 총 47명 중 44명이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으로 응답하여 93.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동일한 학력을 보여주고 있어 학력 자체에서는 변별력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어교육 경력면에서는 1년 미만이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3년은 16명, 5년 이상인 교원도 8명이나 되었다.

<표3-51> 지역별 한국어교원의 한국어교육 경력(단위: %)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북	18	38.3	38.3	38.3
	충북	16	34.0	34.0	72.3
	경북	5	10.6	10.6	83.0
	기타	8	17.0	17.0	100.0
	합계	47	100.0	100.0	

지역별로 한국어교원의 교육경력을 비교해 보면 경북지역이 가장 높다.

지역별 교육자 교육경력 차에 대한 유의성 검정해 보았다.

- 평균비교

한국어 교육자 대상	평균	N	표준편차
전북	1.56	16	1.031
충북	2.14	14	.949
경북	2.47	17	1.125
합계	2.06	47	1.092

그 결과 경북이 가장 높으며 충북 그리고 전북 순으로 나타났다.

-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6.921	2	3.461	3.180	.051
집단-내	47.887	44	1.088		
합계	54.809	46			

3개 지역 간 교육자의 교육경력에는 유의수준 10%에서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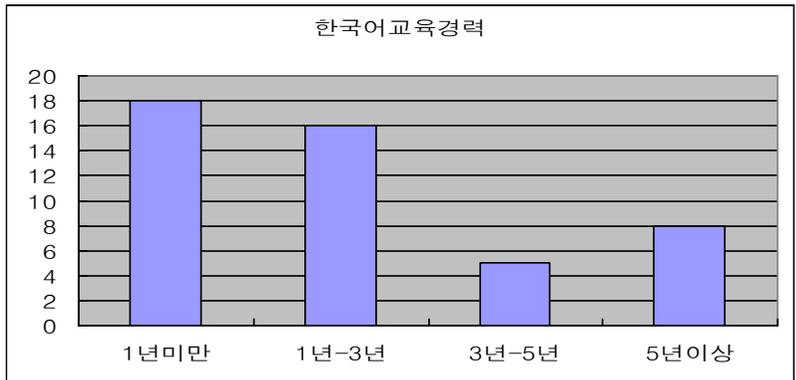
계적으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사후분석 결과 전북과 경북 간에는 유의차가 인정된다.

한국어 교육자 대상	N	유의수준 = .1에 대한 부집단	
		1	2
전북	16	1.56	
충북	14	2.14	2.14
경북	17		2.47
유의확률		.128	.386

그렇지만 지역별로 한국어교원에 대한 만족도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질적 차이는 무의미하다.

한국어 교육경력은 1년 미만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3년은 16명이었고, 5년이상 경력자도 8명이나 되었다.

<표3-52> 한국어교원의 한국어교육 경력(단위: %)



- 교차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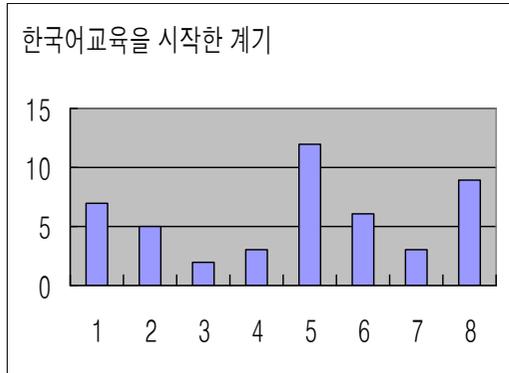
			연수경험		전체
			있다	없다	
한국어 교육자 대상	전북	빈도	15	1	16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93.8%	6.3%	100.0%
	충북	빈도	11	1	12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91.7%	8.3%	100.0%
	경북	빈도	5	12	17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29.4%	70.6%	100.0%
전체	빈도	31	14	45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68.9%	31.1%	100.0%	

전북, 충북에 비하여 경북은 연수경험이 없는 교육자의 비율이 높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p-값이 0.000으로 지역 간 연수경험 비율은 통계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는 총 16명 중 15명이 연수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93.8%에 달하는 교원이 한국어교원 관련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농림부 사업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후 총 3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연수 내용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상담 기법, 한국어교수법 등이었다.

그런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역 간 한국어교원 만족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보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질 높은 교원 교육이 선행되면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한국어교육의 동기

<표3-53> 한국어교육을 시작한 계기(단위: 명)



1. 농림부 홍보물을 통해
2. 지자체 홍보물을 통해
3. 관련 신문 방송 기사를 보고
4. 관련 단체의 홍보물을 통해
5. 주변지인의 권유로
6.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단체의 모집공고를 보고
7.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8. 기타

한국어교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의외로 ‘주변지인의 권유로’라는 응답이 많았다. 위 설문 결과를 보면 한국어교원들이 한국어교육에 임하게 된 이유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3) 교사별 학습자 규모 및 학습자의 출신국가

- 지역별 교육 중인 학생 수 평균

<표3-54> 지역별 교육 중인 평균 학생 수(단위: 명)

한국어 교육자 대상	평균	N	표준편차
전북	1.06	16	.250
충북	2.79	14	1.188
경북	2.93	15	.884
합계	2.22	45	1.204

지역별로 1인의 한국어교원 당 교육 중인 학생 수의 평균은 충북, 경북에 비하여 전북지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3.550	2	16.775	23.308	.000
집단-내	30.228	42	.720		
합계	63.778	44			

분산분석 결과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인정되며, 사후분석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북지역은 충북, 경북지역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자 대상	N	유의수준 = .1에 대한 부집단	
		1	2
전북	16	1.06	
충북	14		2.79
경북	15		2.93
유의확률		1.000	.637

이는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어교원을 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북지역이나 충청지역과는 달리 주로 농림부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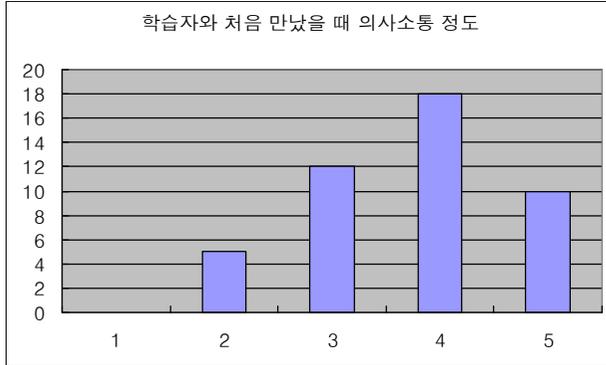
전북지역에서 교원 1인 당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일 대 일 방문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의 교사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전북지역과 같이 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학습자들에게는 방문교육의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한다.

4)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내용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공적인 상황이나 전화통화 시에는 아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한국어교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학습자를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힘들었다고 전한다. 어떤경우는 이주여성이 하는 한국말을 그녀의 시어머니나 남편이 한국어교원에게 한국말로 통역해주는 우스운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국어교원에게 학습자와 처음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하였는지를 물었다.

<표3-55> 학습자와의 의사소통 정도(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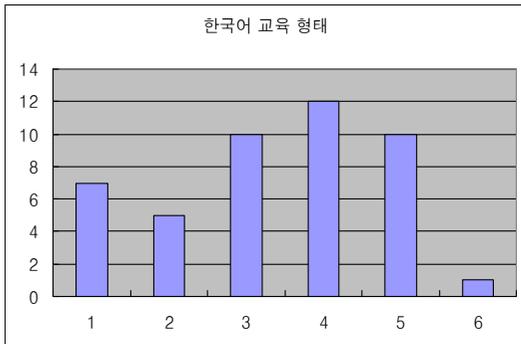


1. 다 알 수 있었다.
2.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다.
3. 대충 알 수 있었다.
4. 잘 못 알아들었다.
5.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 질문에 잘 못 알아들었다는 대답은 18명(38.3%),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10명(21.3%)으로 59.6%의 응답자가 학습자와 대화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비해 처음 만난 학습자의 말을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대답은 5명(10.6%)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거주하는 이주여성이라고 해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어학습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족 이외의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5) 한국어교육 현장의 현황

<표3-56> 현재 시행하는 한국어 교육의 형태(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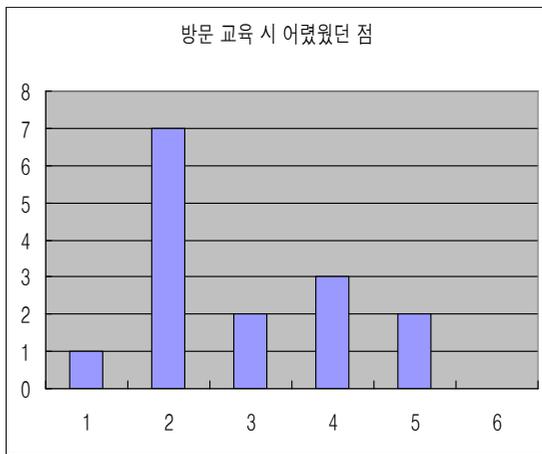
1. 일 대 일 방문교육
2. 5명 이하 소그룹 교육
3. 1-2회 방문교육과
1-2회 소그룹교육 병행
4. 5-10명 정도의 집합교육
5. 10명 이상의 집합교육
6. 기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형태를 질문한 결과 총 응답자 47명 중 5-10명 정도의 집합교육 12명(25.5%), 10명 이상의 집합교육 10명(21.3%), 1-2 방문교육과 1-2회 소그룹 교육 병행 10명(21.3%)로 소그룹이나 중그룹 정도의 집합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 대 일 방문교육은 7명(14.9%)으로 1-2 방문교육과 1-2회 소그룹 교육 병행 10명(21.3%)과 누적 집계한다면 36.2% 정도가 방문교육의 형태로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한국어 방문교육 현장의 현황

방문교육을 시행하는 한국어교원들에게 방문교육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가장 힘들다고 대답한 항목은 교육 중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등의 환경적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는 한국어교원 1인의 방문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3-57> 한국어 방문교육 시 어려운 점(단위: 명)



1. 가족의 냉대
2. 교육 중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등의 환경적 어려움
3. 학습자의 집이 산간오지에 있어서
4.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 학습시간이 수시로 변동
5. 학습장소등이 교육에 적절하지 않음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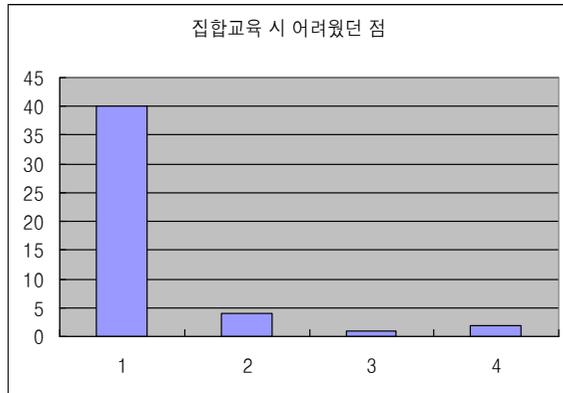
한국어 방문교육을 받을 정도라면 대개 한국 내 거주기간이 짧은 학습자이다. 그럴 경우 학습자들이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기인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에 있는 학습자들은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한국어교원과 상담하고자 한다. 임신 중이거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학습자들의 경우는 여성으로서 처음 경험하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곳이 없어서 한국어교원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우는 아기를 달래거나 젖을 먹이다가 학습이 중단되어 버리는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방문한국어교육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한국어교육을 전담하는 한국어교원 1인과 여타 생활 상담에 임해주는 상담사 혹은 아이를 돌봐 줄 보육교사 1인이 동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어교육의 효과는 보장하기 힘들다.

② 소그룹 및 집합교육 현장의 현황

현재 한국어교육을 소그룹이나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한국어교원에게 한국어교육에서의 어려웠던 점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총 응답자 47명 중 40명(85.1%)가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하였다.

<표3-58> 한국어 집합교육 시 어려운 점(단위: 명)



1.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
2. 학습자가 학습에 자주 결석함
3. 학습 기간의 중반 이후 학습자가 아예 불참
4. 장소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정도를 보면 한국 내 거주 기간이 길다고 해서 한국어 능력도 뛰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가족들이나 이웃주민들과는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원활한데도 정작 한국어교원과는 학습 시간을 약속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이주여성의 발화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실에서도 수준이 서로 다른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하는 일은 매우 힘들다. 이는 한국어교육 경력이 오래된 교원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경력이 1년 미만인 한국어교원들에게는 매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한국의 대학으로 한국어연수 과정을 밟으러 오거나 학교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이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어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그들 중 많은 수는 중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전무한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일은 고도의 한국어교수법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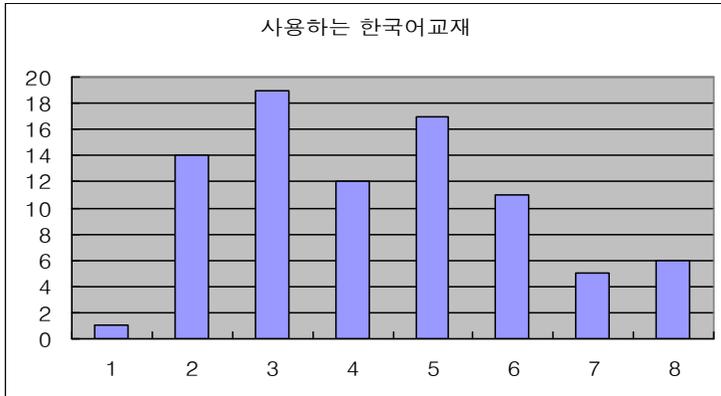
그러므로 한국어학습은 집합교육보다는 일 대 일 방문교육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한 학습자라면 소그룹이나 중그룹 정도의 교육 형태를 취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은 학습자일수록 또한 외국어 학습 경험이 전혀 없는 학습자일수록 일 대 일 방문을 통해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 좋다.

6) 한국어교재 활용 현황 및 교재 만족도

① 현재 사용하는 한국어교재

현재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59> 현재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단위: 명)



1. 아동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학습지
2. <우리엄마의 한국어 초급>(농림부)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여성가족부)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여성가족부)
5.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한국어세계화재단)
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한국어세계화재단)
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한국어세계화재단)
8. 지자체 및 관련단체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

위 설문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초급>과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농림부 사업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고 설문 결과를 보면 농림부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어교원들이 농림부에서 발간한 <우리엄마의 한국어 초급>과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함께 활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발간된 한국어 교재 중에서 한 권만으로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사용하는 교재의 적절성

한국어교원들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과연 국제 결혼 이주여성을 교육하기에 적절한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교차표

			교재 적절성		전체
			예	아니오	
한국어 교육자 대상	전북	빈도	4	12	16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25.0%	75.0%	100.0%
	충북	빈도	9	4	13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69.2%	30.8%	100.0%
	경북	빈도	4	11	15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26.7%	73.3%	100.0%
전체	빈도	17	27	44	
	한국어 교육자 대상의 %	38.6%	61.4%	100.0%	

사용하는 교재의 적절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북과 경북지역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충북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비율의 동질성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p-값이 0.026으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지역 간 교재의 적절성에 대해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설문 결과에서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교재 만족도를 물었을 때는 82.3%가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에 응답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지역 한국어교원들 중 75%에 달하는 교원이 현재 사용하는 교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을 이수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전북지역 교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연수과정을 이수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만족도 응답 비율과 한국어교원의 만족도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와 비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비교적 표준어와 실제생활에서의 언어가 큰 차이가 없는 충청지역에서는 교재 만족도가 69.2%가 나왔는데, 표준어와 지역어의 차이가 큰 지역인 전북지역과 경북지역에서는 각 75.0%와 73.3%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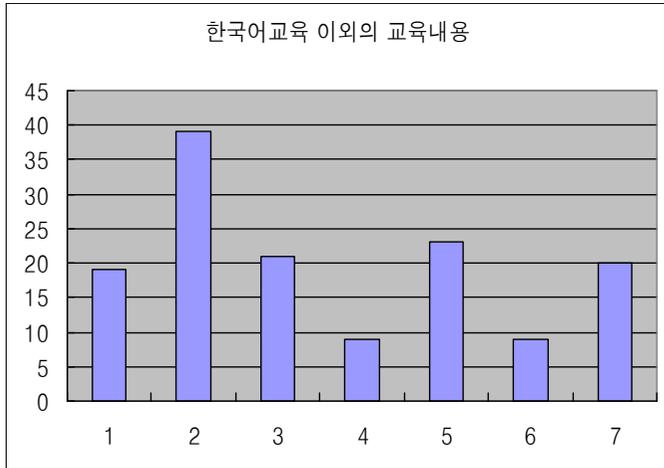
교재 적절성을 묻는 항목의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재 사용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교재는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고, 개선 내용에는 사투리 교육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한국어교육 이외의 교육 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원들에게 한국어 이외에 어떤 내용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교육 이외의 교육내용

<표3-60> 한국어교육 이외의 교육내용(단위: 명)



1.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
2. 한국의 생활예절
(인사법, 식사예절 등)
3.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
4. 국적취득방법과 절차
5. 생활상담
6. 부부관계상담
7. 자녀교육 관련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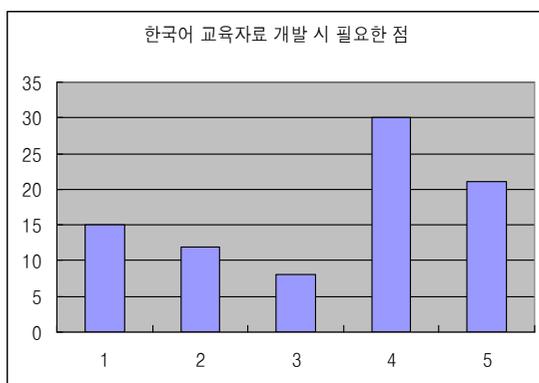
위 결과를 보면 한국의 생활예절(인사법, 식사예절 등)에 관한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모든 언어행위가 일상생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예절에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인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가족 호칭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가족 호칭은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활상담, 자녀교육 관련 상담,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

한 내용들을 한국어교원에게 물어보고는 한다. 그들은 한국어교원이 아니면 모르는 것을 물어볼 대상도 많지 않고, 잘 통하지도 않은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는 사람은 한국어교원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② 한국어교육자료 개발 시 요구 현황

<표3-61> 한국어 교육자료를 개발할 때 필요한 점(단위: 명)



1.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투리
2. 한국의 전통문화 및 예술 관련내용
3. 국적취득방법
4. 한국의 일상생활예절
5. 부부갈등이나 가족관계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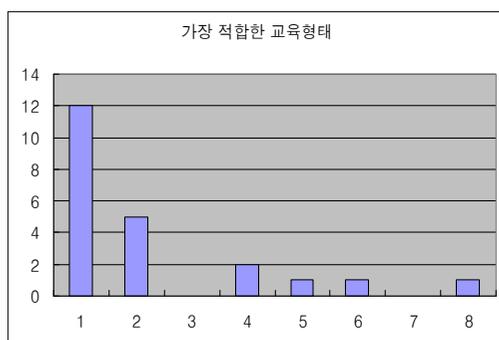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한국어 교재 내에 구현하여 좀 더 쉽게 그런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서 정작 중요한 한국어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수업 시간이 끝나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교재에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한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 한국어교육형태 요구 현황

한국어교원들에게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교육 형태는 어느 것이냐고 물었다.

<표3-62>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형태(단위: 명)



1. 일 대 일 방문교육
2. 3-5명 정도의 교육장 집합교육
3. 5-10명 정도의 교육장 집합교육
4. 10명 이상의 교육장 집합교육
5. 독학이 가능한 한국어교재와 녹음테이프, CD배포
6.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지원
7. 텔레비전 교육프로그램 방송
8. 기타

위와 같이 한국어교원들은 일 대 일 방문교육을 가장 적절한 교육 형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3-5명 정도의 교육장 집합교육이라고 답하여, 교원 1인 대비 학생 수가 적어야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를 지역별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교육형태						
		일대일 방문	3-5명 교육	5-10명 교육	10명 이상 교육	기타		
	전북	빈도	10	5	0	0	1	16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62.50 %	31.30 %	0.00%	0.00%	6.30 %	100.00 %
	충북	빈도	3	3	6	1	1	14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21.40 %	21.40 %	42.90%	7.10%	7.10 %	100.00 %
	경북	빈도	3	10	3	1	0	17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17.60 %	58.80 %	17.60%	5.90%	0.00 %	100.00 %
전체	빈도	16	18	9	2	2	47	
	한국어 교육자 대상 의 %	34.00 %	38.30 %	19.10%	4.30%	4.30 %	100.00 %	

위 결과는 지역별로 적절한 교육 형태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래의 카이제곱 결과 역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아, 지역적으로 동질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값	자유도	접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18.322(a)	8	.019
선형 대 선형결합우도비	.45621.162	18	.500.007

3-5명의 소그룹이나 5-10명의 중그룹 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업방식은 강의 중심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일 대 일 방문교육을 실시하면 학습 시간 내내 학생의 발화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여 학습 집중도를 높여 줄 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한국어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묻는 항목에서 가장 적은 학생 수를 결과로 보여주었다. 위 항목에서도 역시 일 대 일 방문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2.5%에 달했다.

9) 한국어교원이 선호하는 교재 형태

한국어교원이 생각할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재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3-63> 한국어교원이 선호하는 교재 형태(단위: 명, %)

		선호하는 교재 형태					
		일일 학습 지	분권 교재	한 권 교재	일일학 습지와 부교재	분권 책과 부교재	한 권 책과 부교재

	전북	빈도	2	1	2	0	1	4	10
		한국어교 원 대상 의 %	20.00 %	10.00 %	20.00 %	0.00%	10.00 %	40.00%	100.0 0%
	충북	빈도	1	0	0	1	1	0	3
		한국어교 원 대상 의 %	33.30 %	0.00 %	0.00%	33.30%	33.30 %	0.00%	100.0 0%
	경북	빈도	1	0	0	1	0	1	3
		한국어교 원 대상 의 %	33.30 %	0.00 %	0.00%	33.30%	0.00%	33.30%	100.0 0%
전체	빈도	4	1	2	2	2	5	16	
	한국어교 원 대상 의 %	25.00 %	6.30 %	12.50 %	12.50%	12.50 %	31.30%	100.0 0%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지역 간 선호하는 교재 형태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응답 수가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한국어교원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볼 수 있다.

위 항목에서 응답자들은 일일학습지, 한 권 교재와 부교재 등을 가장 적절한 교재 형태라고 대답하였다. 특히, 일 대 일 방문교육의 비율이 높은 전북지역에서는 일일학습지가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경북지역에서는 일일학습지와 한 권 교재와 부교재가 비슷한 정도의 응답율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볼 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원들은 일반적으로 일일학습지나 한 권 교재와 부교재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6. 실태조사 분석결과

1)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

①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최근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국적이 매우 다양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계한국인과 일본, 필리핀 등에서 많이 입국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많이 입국하고 있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에서 입국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모국에서의 학력이 낮은 편이고 외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들 모두에게 적합한 학습 형태를 찾기는 힘들다. 따라서 언어권역별 특징이 반영된 한국어교재와 한국어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 서로 국적도 다르고 배경지식도 다르며 언어학습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는 학습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한국어를 교육하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국어학습을 위해 일 대 일 방문교육의 형태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모국의 한국어선생님에게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입국한다. 그리고는 한국인들과 섞여 살면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해 간다.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어학습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오류가 화석화되어 간다. 게다가 일상적인 언어활동은 정제된 교수학습언어와는 달리 지역 사투리나 계층 방언 등이 뒤섞여 있어 그러한 환경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들은 발음 오류가 화석화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문형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입국 직후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대화상황이나 일상생활언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 여기에는 지역 사투리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 가족이나 이웃주민들이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일수록 처음 만난 한국어교원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원활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가족이나 이웃주민들 이외의 공적인 장소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규범적인 언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 그런가 하면 한국어를 제법 오래 학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교재에서 배운 내용과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질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대해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일상적인 수준에서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지역 사투리를 알아듣고 구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투리도 표준어와 병행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피교육자(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① 문제점 및 보완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통해 설문을 실시해 본 결과 그 자녀들의 양육은 거의 엄마에게 맡겨져 있으며 자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에게 말을 가르치는 사람도 대부분 엄마였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발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은 영·유아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습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들이 아이의 자연스러운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자녀에게 좀 더 교육시키고 싶은 분야가 뭐냐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한국어교육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고, 그 결과 아이의 한국어 능력도 뒤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데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들에게는 일반적인 학습지보다는 그들의 자녀 수준에 맞게 개발된 학습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쓰기 능력이 저하된다거나, 어휘력이 뒤떨어지는 등 언어능력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덜 발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능력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수준별 학습지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자(한국어교원)

① 문제점 및 보완점

○ 한국어교원 대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일정한 기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많았다. 이는 본 조사가 농림부나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자격조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교원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한국어교육을 수행하는 필요한 자질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정을 이수하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줘야 한다.

○ 한국어교원들은 현재 매우 열악한 수준의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한국어교원들의 평균 보수는 1만 5천원 수준이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한국어교원의 위치는 교원의 수시 교체를 반복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질 높은 교육자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한국어교육 역시 그 수준을 보장받기 어렵게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한국어교육과 생활상담 등을 제공하려면 한국어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급선무이다.

○ 한국어교원들에게 질문한 결과 현재의 한국어교재는 여러

문제점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지금까지 출판된 교재들로는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 언어권역별로 가장 효과적인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현장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교육하는 한국어교원들은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는 일 대 일 방문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집합교육 형태로 한국어를 교육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들냐는 질문에 90%가 넘는 응답자가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대답한 것 과도 관련이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는 1인의 한국어교원보다는 1인의 한국어교원과 1인의 생활상담사 혹은 보육교사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아직 한국생활이 낯설고 모든 것이 서투르기 때문에 한국어교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생활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영·유아 자녀를 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학습 중간 중간에 아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학습의 맥이 자꾸만 끊기고 심한 경우에는 학습이 중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2인 1조의 방문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V.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재 분석

1. 한국어 교재 발간 현황

21세기 글로벌화 추세와 정보산업의 급부상은 ‘한류’와 ‘코리아 드림’이라는 여파를 몰고 왔다. 그리하여 한국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고 ‘다문화 사회’ 혹은 ‘다문화 가정’은 최근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화두 중의 하나로 되었다. 이 용어들의 저변에는 한국에 시집와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그들이 구성하고 있는 가정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이런 사회분위기에 발맞추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나 교재개발은 그 시급함에 비해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이 199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면 그 역사가 이제 10여 년에 이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외국인 학습용으로서의 한국어 교재는 일찍부터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그 연구나 개발이 미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는 제 2의 언어라기보다 생존의 언어로서 모국어와 등가의 효용성을 지니고 있기에 한국어 능력의 부족함이 일으키는 파장은 선불리 볼 수 없는 일상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적인 책무로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방안이나 교재개발이 모색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주여성의

편안한 안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학문을 목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과는 달리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생활을 위한 방식으로 교육되어야하기에 그들의 한국어교육은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잠재적 학습자와 현재의 학습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으로 먼저 한국어 교재를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기존의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재들이 언어의 기능별 교육 및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이 수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제작된 통합 한국어 교재를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고 그 다음으로 각 교재들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앞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교재의 필수 요소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적절한 교재개발의 기본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도 이 보고서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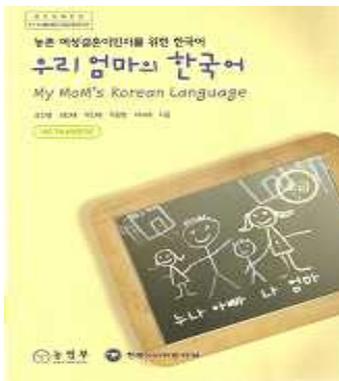
먼저 2000년 이후 한국 국가기관에서 주도하여 발간한 교재는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목록>

번호	서명	저자	발간 년도	발행기관	출판사
----	----	----	----------	------	-----

가-1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우리 엄마의 한국어(초급)	조선경 김민애 우인혜 우창현 이미혜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	
가-2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교사 지침서- 우리 엄마의 한국어	조선경 고성환 김민애 김청자 우인혜 우창현 장용원	2007	농림부	신명기획
나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	조선경 김대옥 도원숙 임경란	2006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어 교육개발 원
다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조선경 김대옥 서경숙	2007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문화관광부	한성기획
라-1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교재 -첫걸음	조선경 김대옥 서경숙	2007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라-2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최정순 김정숙 조선경 감수	2005	여성가족부	누리 미디어 플러스
라-3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교재 -중급	강현화 김선정 김정숙 이해영, 정희원, 조선경	2007	여성가족부 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마-1	여성결혼이민자 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조선경, 김대옥, 서경숙	2007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마-2	여성결혼이민자	강현화, 김선정, 김정숙, 이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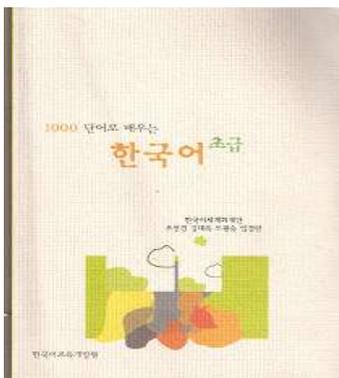
	를 위한 한국어 중급	정희원, 조선경			
바	농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중급- 한국어판	김민애, 우인혜, 우창현, 이미혜, 조선경	농림부 한국어세계화재단	문화관광 부	



<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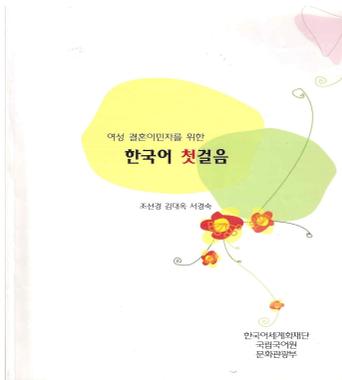
<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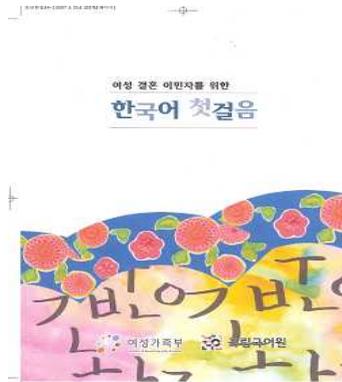
<나>



<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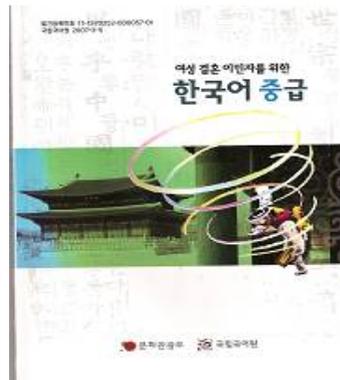
<다>



<라-1>



<마-1>



<마-2>

1) 언어권별

1970년대 말부터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이 대두되면서 최근 한국어 교육계에서도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교수법을 따르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의사소통 과제 수행에 초점을 둔 교수법은 한국어의 구조 학습과 정확한 발음 습득의 중

요성을 간과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해 그 발화의 질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요구를 참작할 때 의사소통 능력에 주안점을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학습자의 모국어로서 매개된 언어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는 더욱 좋다.

위의 교재 중에 최근에 발간된 <가-1> 만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타갈로그어 등의 다섯 나라 언어를 매개어로 하여 출판되었고 유일하게 나온 교사지침서가 <가-2>다. 한편 <다>는 7과 중 5과 이후부터 베트남어를 매개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중 베트남인이 급증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의 증보판인 <라-1>과 <마-1>의 경우, 책 158면 중 교재의 약 3분의 1(100-156면)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을 위한 부록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어를 비롯하여 11개국의 언어를 선택하여 인사말 수준의 언어를 번역하여 놓았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매개어로서 이주여성 모국어의 중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수준별

<라>와 <마>는 똑같은 구성이 재판된 교재로 ‘첫걸음’, ‘초급’, ‘중급’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교재를 구성하였다. 초급에서 다뤄지지 않은 더 기초적인 부분을 완전초보자를 위하여 다시 입문서로 제작한 교재가 ‘첫걸음’이다. <바> 역시 입문서에서 중급까지 아우르는 것인데 <가-1>, <다>, <바>를 다시 제본한 교재이다.

부록 II / 언어별 번역

1. 중국어
2. 일본어
3. 몽골어
4. 베트남어
5. 캄보디아어
6. 태국어
7. 필리핀어
8. 인도네시아어
9. 말레이시아어
10. 미얀마어
11. 힌디어

<라-1>

부록 I / 겹받침

	단 어	-아요/어요	-고
ㄹ	없다[안따]	없어요[안져요]	없고[안꼬]
	없다[연따]	없어요[연져요]	없고[연꼬]
ㄴ	만다[만따]	만어요[만나요]	만고[만꼬]
	괜찮다[괜찬따]	괜찮아요[괜찬나요]	괜찮고[괜찬꼬]
ㄷ	왔다[왔따]	왔어요[왔타요]	왔고[왔꼬]
	출다[출따]	출어요[출타요]	출고[출꼬]
ㄹ	실다[실따]	실어요[실리요]	실고[실꼬]
	일다[일따]	일어요[일리요]	일고[일꼬]
ㄷ	왔다[왔따]	왔어요[왔겨요]	왔고[왔꼬]
	말다[말따]	말어요[말겨요]	말고[말꼬]
ㄹ	실다[실따]	실어요[실마요]	실고[실꼬]
	꿈다[꿈따]	꿈어요[꿈마요]	꿈고[꿈꼬]
ㄹ	올다[올따]	올어요[올떡요]	올고[올꼬]
	발다[발따]	발어요[발바요]	발고[발꼬]
ㄹ	넠다[넠따]	넠어요[넠버요]	넠고[넠꼬]
	없다[엇따]	없어요[엇써요]	없고[엇꼬]
ㄹ	값[값]	값어요[값싸요]	값고[값꼬]

<라-1>

언어의 유창성과 과제 수행적 교육에 중점을 둔 교재라기 보다는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법을 기저로 하되 문법 교육 또한 중시되는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준별로 교재를 구성했다기보다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접할 수 있는 상황별로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전반적인 구조에서라기보다 급조하는 방식으로 교재가 편성되었다. 그러기에 위의 교재가 비록 교재의 수는 10 권 정도지만 그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으로 전체 5종에 지나지 않는다.

3) 유형별

대부분의 교재는 언어기능의 전 영역과 문화, 활용연습까지 통합교재로 작성되었다. <나>의 경우는 어휘를 우선으로

하여 단어위주로 편성되었고 <다>는 그 목차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글을 익히게 하는 쓰기 위주의 학습서로 기능할 수 있게 짜여 있다.

특히 현지 언어권역인 한국에서 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문법 교수보다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문법을 학습시키는 것이 지배적이라 문법이나 발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초보자의 경우, 기본 문법과 발음을 철저히 해줘야 오류의 화석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 자체를 언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서와 초급교재의 대부분이 말하기, 듣기와 한글자모, 단어 쓰기에 중점을 두었다. 언어기능별 구분과 문화적인 읽기 요소는 중급에서 다루고 있으며 작문이나 문장쓰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2. 한국어 교재 분석

1) 교재 분석의 목적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1백만 명을 넘어서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는 다문화성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6만 7천명에 이르고 2005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국제결혼이라고 한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1.6% 증가된 것이다. 또한 2003년 말 혼혈인은 3만 5천명으로 여기에 이주민까지 합한 인구는 80 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2%에 이른다(SBS, 2006).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그동안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타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별로 인해 소외되는 계층까지 발생해 우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생활어를 구사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의사불통에 의해 그 갈등은 더 심각해지며 그 원인은 한국어를 쉽게 배우지 못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주 여성에게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신국 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결혼 이주민 여성의 출신국적별 분포⁸⁾

출신국	인원수(%)	출신국	인원수(%)
재중동포	27,717(41.6)	태국	1,447(2.2)
중국	13,401(20.1)	몽골	1,270(1.9)
베트남	7,426(11.1)	러시아	923(1.4)
일본	7,145(10.7)	우즈베키스탄	896(1.4)
필리핀	3,811(5.7)	기타	2,623(3.9)

중국 동포를 제외하고라도 현재 결혼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8) 김선정 논문의 조사결과표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 사람이 가장 많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몽골의 순이다. 그러나 출신 국적을 막론하고 결혼 이주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가족 및 친족 생활에의 적응에서 오는 갈등, 자녀 양육에서의 갈등 등이 공통적이다. 이 중에서도 언어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지나가야하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주민 결혼자의 특성상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상이면서도 학습시간의 부족과 학습여건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겠다.

현재 소외의 주원인이 되는 언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아 민간단체는 물론 국가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학습자 집단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개발과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

2) 교재 분석의 방법

교재의 분석은 내용과 구성으로 나누어 수행될 수 있고, 교재 내용상 분석으로는 언어 영역별, 주제별로 분류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기능별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어휘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주제 항목과 문화 항목을 살펴볼 것이다. 교재 구성 분석으로는 교재의 분량과 체제, 삽화 적정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 다

음으로 맞춤법, 띄어쓰기, 번역 등의 정확성을 살펴 그 오류를 분석할 것이다.

언어 기능별 학습활동 중에 말하기와 듣기는 구어적 특성이, 읽기와 쓰기는 문어적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보고 연습은 실제 과제 및 다른 기술과의 통합된 활동이 있는지를 살핀다. 개개언어 활동에 있어서 말하기는 발화 테이프와 발음 연습이 있는지, 듣기는 실제 듣기 자료가 있는지, 교재 구성이 과정 중심인지 결과 중심인지를 살핀다.

또한 학습활동의 성취도를 살피기 위해 학습평가와 피드백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능력 및 과정을 점검하는 활용연습과 문화적 친화성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다. 주제부분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서 아주 필요한 발화상황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발화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3) 교재 내용 분석

(1) 언어기능별 분석⁹⁾

① 말하기

9) 한국어의 기능별 교재 분석에는 이해영, 황인교의 분석항목을 모형으로 삼았다.

각 조사 대상의 표에서 아주 부족한 사항에만 X로 표시한다.

말하기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다양한 유형의 말하기 자료를 포함하는가?					
② 대화문이 구어의 특성을 드러내는가?		X	X		
③ 발음(개별음, 문장의 담화 속의 발음)연습이 있는가?	X	X	X	X	
④ 모델 발화 테이프가 있는가?	X	X	X	X	X
⑤ 실생활의 상호작용을 익힐 수 있는가?					
⑥ 실생활의 말하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⑦ 학습자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⑧ 다른 영역과의 통합활동이 있는가?					

말하기를 위한 발화의 경우에 구어적 특성과 실제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구어 축약, 생략이 나타나거나 간투사, 관계 유지를 돕는 표현, 담화 표지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발화 전략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교재에 나타나는 발화는 여전히 실제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전 교재에 모범 발화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발화 생산을 위한 발음 연습의 정확성을 교사에 의존해야하는 가운데 <나>, <다>의 경우는 말하기를 위한 실제 과제 및 활동이 전혀 없다. 언어활동 가운데 말하기 영역의 구동을 위한 교재설정이 상당히 빈약하다.

언어의 사회적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존대법의 경우 상대높임법의 6가지 중에서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전 교재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해라체'와 '합쇼체'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편과

시부모는 이주여성에 대하여 보통 반말인 ‘해라체’를 사용하고 이주여성은 시부모님께 ‘합쇼체’를 사용해야 된다. <라-2>에서 24과의 자녀들을 상대로 대화하는 상황과 <마-2>에서 25과 중 10과와 13과가 ‘해라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언어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높임말이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 못지않게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또한 격식체의 한국어에 대한 욕구가 강한 점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른 격식체의 연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발음을 연습하게 되어있는 교재는 없으며 <마-1>의 경우, 부록으로 겹받침을 발음하는 방법을 한 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평음/경음/격음의 경우, 특별히 조음 방법에 따라 교습되어야 그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발음 교육은 상당히 취약하다. 대부분의 교재에 한국어의 발음을 위한 항목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상황에서 받침의 발음으로 인해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좀 더 많은 발음 방법 제시와 연음, 중화의 다양한 형태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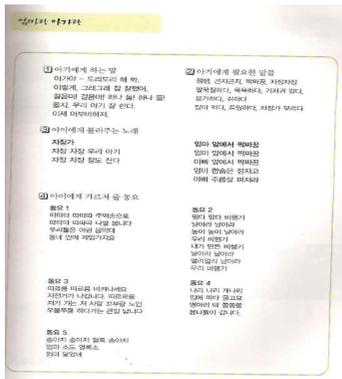
② 듣기

듣기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다양한 유형의 듣기 자료를 포함하는가?					
② 자료가 구어의 특성을 드러내는가?					
③ 실제적인 듣기 녹음 자료가 있는가?	X	X	X	X	X
④ 실생활의 듣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⑤ 학습자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⑥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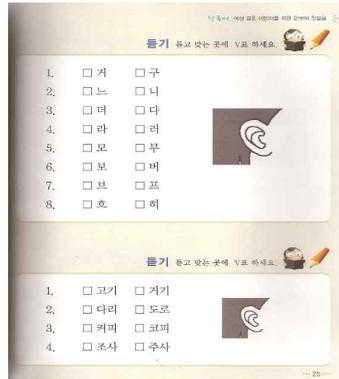
듣기자료의 경우에 구어 축약, 생략 등 구어적 특성이 간단히 나타나므로 간투사나, 주저, 관계 유지, 확인 등 실제적인 담화 표지가 여전히 부족하다. 교재 중 첫걸음과 초급의 듣기는 거의 단어듣기 수준에 머물고 초급과 중급에는 간단한 문장 듣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성이 있는 듣기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급 이상의 듣기과제는 실제성이 강해서 안내 방송이나 인터뷰, 일기 예보 등이 포함되어야하며 다른 활동과 연계된 통합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전 교재가 통합, 연계 활동교육에 지면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특히 듣기영역에 실제적인 카세트나 음성자료가 없다는 것은 언어학습활동에 있어 대단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전 교재에 음성자료는 없다. <가>에 부록으로 듣기 지문이 있을 뿐 <가-1>이나 <마-1>에 실린 노래가사에도 실제적인 음성자료는 없다. 특히 한국어를 처음 접하고 한국어 교육의 장애 나오기 어려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음성자료는 어떤 주변적

인 이유가 있더라도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요소라 하겠다.



<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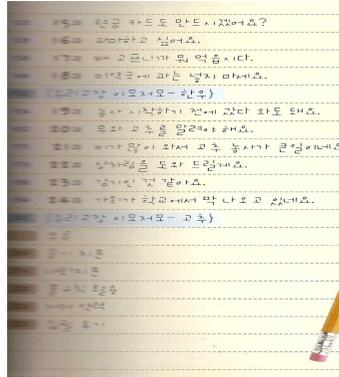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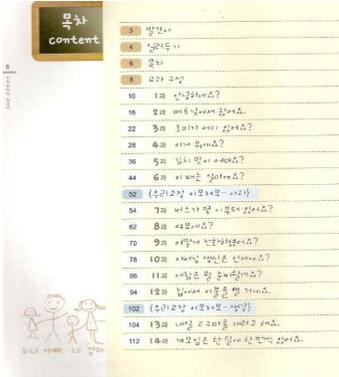
<마-1>

③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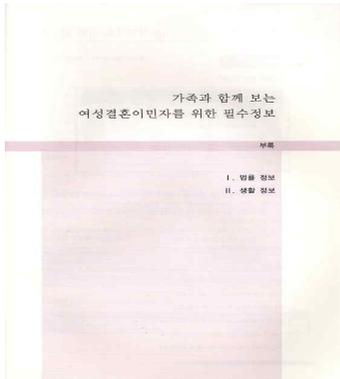
읽기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다양한 읽기 자료를 포함하는가?					
② 한국어의 문어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가?					
③ 읽기 자료의 주제가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가?					
④ 읽기 자료의 길이와 난이도가 숙달도에 맞는가?	X	X	X	X	X
⑤ 실생활의 읽기 과제 활동이 있는가?					
⑥ 학습자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⑦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이 있는가?					

외국어로서의 네 가지 기능 교육 중에서 읽기는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에는 말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자를 이용한 의사소통행위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읽기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없다는 것은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한국어를 읽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 역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간판, 안내문, 메뉴판 등에서 시작해 신문이나 각종 서적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읽기 능력이 없으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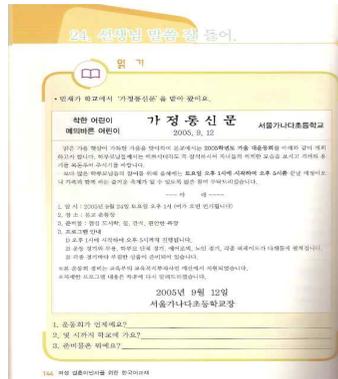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 읽기 자료는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가-1>의 경우, 읽기를 “우리 고장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전 24과 중 6과를 간격으로 사이사이에 배치함으로써 각 지역문화의 특성을 익히게 하고 그에 따른 통합 활동으로 연계시켜 다각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마-1>의 경우, 읽기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가져오는 ‘가정 통신문’을 게재하고 부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실어 실생활에 유용하도록 했다. <마-2> 역시 읽기 항목에 실제 사진 등을 첨부하여 문화소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난이도와 숙달도는 무관하게 배열되어 있다.



<가-1>



<마-1>



<마-2>

④ 쓰기

쓰기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는 활동이 제공되는가?		X	X		
②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가?					
③ 실생활 과제활동을 포함하는가?		X	X		
④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전략이 제공되는가?					
⑤ 학습자에 따라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⑥ 다른 영역과의 통합활동이 있는가?		X	X		

전반적으로 쓰기 활동은 ‘한글 익히기’와 ‘따라 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급 이상의 교재에서 문법과 연계된 쓰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 중심의 쓰기를 시키고 있어 실제 쓰는 과정 및 쓰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 중심 쓰기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경우, 말하기를 중시하는 교재이다보니 쓰기 관련 활동이 글자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정도이므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읽기와 쓰기에 취약할 수 있는 교재의 구성이다.

기본적인 문장 만들기과 편지 쓰기 등은 고급에 배치될 것인데 아직 고급교재가 나오지 않은 것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둔 역사가 짧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어언 한국생활이 7~10년이 되어가는 이주여성 중에는 말하기, 듣기보다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일수록 읽기, 쓰기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 작문 및 제시문 등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교재를 편집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⑤ 문법 및 활용 연습

문법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문법 항목과 다루는 방식이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하였는가?		X	X	X	X
② 새 문법과 배운 문법 항목이 관련 있는가?					
③ 형식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용을 다루었는가?					
④ 문법 연습이 4가지 언어 영역과 통합되어 있는가?					
⑤ 문법을 위한 참고 부분이 있어 활용, 개별학습 등에 적합한가?	X	X	X	X	X

<나>와 <다> 등 입문자를 위한 교재에는 아직 문법에 관한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급 이상의 교재에는 문법 사항이 들어있고 그 수준도,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다. <마-1>은 문법과 연습을 병행하고 있고 <마-2>는 단원별 문법 항목을 부록에서 해설하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활용 연습은 상당히 부족하다. 초급은 물론 중급에서도 실제과제와 통합 활동을 수행할 만큼 다양한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배운 단원을 활용하고 그에 대한 연습이 개별적으로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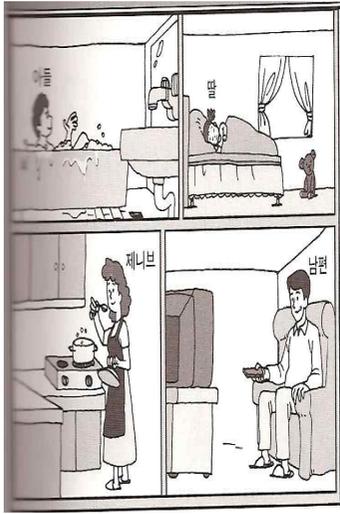
(2) 주제별 분석

① 주제 항목

주제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주제가 다양한가?					
② 현장 적용성(실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연결)이 있는가?					
③ 사회적 편견(성, 인종, 직업 등)이 없는가?	X	X	X	X	X

대부분이 의사소통의 장소로 ‘가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상 실제 생활에서 가사와 육아 등 가족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게, 교통수단, 병원, 우체국, 은행, 식당 등 비교적 다양한 장소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화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등의 다양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입문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재가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고 있으나 현장 적용성이 약한 경우도 있고 성, 인종, 직업 등에 대한 편견이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 예를 들면, 교재에서 대부분의 ‘집안일’과 ‘시장보기’는 여성들이 하고 있지만 현재는 남성도 그러한 역할을 많이 분담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가정의 경제권을 남편이나 시부모가 장악하는 관계로 ‘시장보기’ 같은 활동은 사실 남편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 을 샀어요” 보다는 “~을 사다 주세요” 라는 어구가 더 많이 쓰이고 실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하면 대부분 생활권이 농촌이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일을 하러 나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재에 여성은 집과 부엌이 생활반경으로 설정되어 있고 남

성은 밖에서 일하거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식의 남녀의 성적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나>

② 문화 항목

문화	교재				
	가	나	다	라	마
① 성취 문화 중심인가, (현장 적용성이 높은) 일상 문화 중심인가?		X	X		
② (문화적 충격, 목표 문화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문화 상대주의 입장을 취하는가?					
③ 설명과 제시 위주로 소개되는가, 과제 활동에 포함되는가?					

④ 목표 문화에 이해와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가?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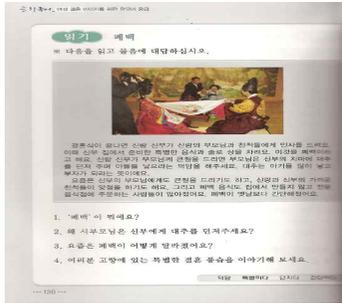
외국어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배움으로써 목표어 사용자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 그런데 언어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 즉 문화가 집약되어있는 결정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언어적 지식뿐 아니라 목표어 사회나 국가의 문화에 대한 지식까지도 수용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에 있어 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곧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발전시켜온 민족의 관습과 사상, 심성이 녹아 있고 역사가 들어 있기에, 한 나라의 언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목표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생활양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한 민족의 사상과 역사, 감정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것을 문화라 할 때 결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그 민족의 언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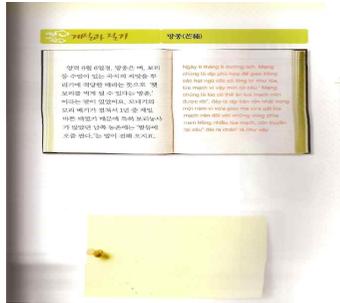
실제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으려면 교실에서부터 실제 한국 생활의 문화적 상황을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산부인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내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언어 내적 교육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접하게 한다면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다양한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때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재 중 <가>, <마>의 경우는 비교적 문화적인 면에 많은 배려가 보인다. 읽기지문에 실물사진을 첨부하여 설명하고 각 지역의 특산품과 그 이용법 등을 배치하여 통합 활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나>에서는 전 24과 중 23과와 24과를 도시, 농촌, 어촌이라는 제목 하에 각 생활권 문화에 필요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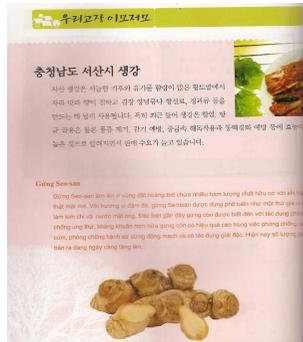
<마-2>



<가-1>



<가-1>



<가-1>

(3) 교재 구성 분석

① 분량 및 체제

<교재의 외적 구성>

	가-1	가-2	나	다	라-1	라-2	라-3	마-1	마-2	바
유형	통합									
구입 및 가격	무료배포									
쪽수	230쪽 내외	270 쪽 내외	120 쪽 내외	90쪽 내외	160 쪽 내외	160 쪽 내외	160 쪽 내외	160 쪽 내외	160 쪽 내외	460쪽 내외
레이아웃	양호 (칼라)	양호 (칼라)	보통	양호 (색채 단순, 내부 는 흑백)	양호 (칼라)	양호 (칼라)	양호 (칼라)	양호 (칼라)	양호 (칼라)	양호 (색채 단순, 내부는 흑백)
관련 구성물	없음									
도움자료	색인, 부록				부록1 ,2			부록1 ,2		
수준별	초급	중급	초급	초급	초급	중급	입문	초급	중급	초급 중급
국적별	5개 국어판							11개 국어 인사 말 부록		

② 구성 및 원리

	가-1	가-2	나	다	라-1	라-2	라-3	마-1	마-2	바
구성 원리	의사소통 능력 통합기능		어휘위주	쓰기, 읽기위주	의사소통 능력 통합기능			의사소통 능력 통합기능		
전체 구성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교과구성 부록		교실용어 교과구성 연습문제 정답	머리말 일러두기 목차 부록	발간사 목차 일러두기 교수요목 부록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부록	추천사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부록	추천사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단원구성
비고	부록: 듣기 지문, 대화 지문, 불규칙 활용			부록: 접받침 발음표, 나라별 번역- 나라명 만	부록: 가족과 함께 보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필수정보- 법률정보, 생활정보			부록: 접받침 발음표, 언어별 번역	부록: 접받침 발음표, 언어별 번역	가-1 다 바 결합본

③ 단원 구성

		가	나	다	라	마
단원 구성	첫 결 음					읽기 쓰기 듣기 받아쓰기
	초 급	말하기 듣기 문법 어휘와 표현	기능 관련어휘 문형	쓰기 읽기 듣기 받아쓰기	기능 문법 어휘 및 표현	
	중 급	말하기 듣기 문법 어휘와 표현				어휘표현 목표문법 말하기 읽기

④ 삽화의 적정성

	가	나	다	라	마
사진	○				○
그림	○	○	○	○	○
아이콘	○				

교재에 제시된 삽화나 내용의 디자인은 교재를 효율적으로 수

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교재를 편찬할 때, 실물을 사진, 그림, 혹은 아이콘 등 어느 것으로 제시할 것인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림의 유형도 잘 선택해야 한다. 한편 동양인과 서양인 등의 구별 및 사물의 특성도 실물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도록 묘사되어야 한다.

<가>, <마>의 경우, 실제적인 사진과 그림 및 아이콘이 적절하게 칼라로 사용되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반면에 <라-1>의 경우는 사진이 너무 작아서 단번에 알아보기 힘들고 삽화의 형상이 약간 늘어져 등장인물이나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가나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가-1>



<라-1>

(4) 오류분석

①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

위의 교재 중 맞춤법 및 띄어쓰기의 오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교재발행 주관이 국가기관이라서 공신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오류의 예) <나> 뜨개질-> 뜨개질

② 번역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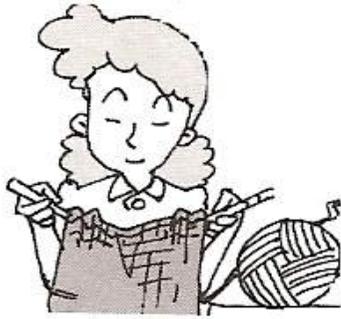
<가>의 경우, 여러 나라 언어를 매개 언어로 교재를 편찬하다 보니 번역의 오류가 발생하고 그 언어가 자국어인 학습자들은 그러한 항목을 지적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어를 매개어로 교재를 편찬할 때 각 언어에 대한 전문가의 감수도 꼭 거쳐야할 요건이다.

오류의 예) <가-1> 베트남어: 고추씨 -> 후추씨

3. 교재분석 결과 활용방안 및 제언

1)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안 모색

최근 외국어교육의 주된 특징 중의 하나가 학습자 중심교육(learner-centered instruction)이다. 학습자 중심교육은 학습자의 다양한 변인을 고려함으로써 교사보다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제 2 언어 학습에서 강조되는 학습자 요인은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뉜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인지 양식, 학습양식, 언어적성이 있으며 정의적 요인으로는 인성, 동기, 불안 등이 있고



뜨게질하기

<나>

새 단어 및 표현	
장 보다 Mua đồ 무어도	나오다 đi ra (ra khỏi) 다라(라코이)
고추씨 hạt tiêu 햇 띠에우	배 고프다 đói bụng 도이 불
남다 còn 곤	목 마르다 khát 깻

<가-1>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태도, 문화이식과 문화충격, 사회문화적 거리 등이 있다. 이러한 세 요인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한국어 교재의 매개어를 각 국가의 모국어로 함으로써 그 인지적 동기를 부여한다.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변별화된 수준별 교재가 필요한데 사회 문화적 적응을

위한 문화 교육 및 방언의 교육도 학습자의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① 국가별 분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가, 제 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가? 과거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생존언어인 제 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간의 쓰임이 아니라 지속된 한국생활을 위한 한국어 학습 교재이기에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단계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 하에서, 학습자의 모국어는 무엇인가? 교수 활동에서 학습자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학습자 모국어와의 대조분석학적인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 음운, 형태, 통사, 어휘적 측면에서 학습자 모국어 체계와의 비교 접근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도 유발시킨다. 모국어는 매개어로 이용될 때, 학습자의 성취수준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학습전략을 교사가 간파할 수 있고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 정확하게 교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각 언어권별로 언어구조의 특징을 변별하면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어를 학습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5개국의 언어로 출간된 언어권의 폭을 넓혀 다양한 언어권역의 교재를 더 개발하여야 한다.

② 수준별, 능력별 분류

1990년 정부에서 주도하여 기획한 “연변 처녀 농촌 총각 짝짓기 사업”을 시작으로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역사는 어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실 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은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 이 많은 수요를 단지 몇 단계의 교재로 포용하기는 상당히 무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재는 수준별로 단계화할수록 영역별로 세분화할수록 학습자에게 더 접근 가능하고 효과도 클 것이다. 첫걸음-초급-중급을 넘어서 고급과정과 문법 및 작문 교육이 각기 병행되어야하고 각 급 별로도 1~5단계 이상, 영역별로 능력별로 분류된 교재 집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활용연습과 자습장 같은 부교재와 음성 녹음도 수준별로 작성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에서 홀로 자습을 할 수 있는 체제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생활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이 되어 어느 정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주여성의 경우,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거쳐 지역 이주여성의 언어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다. 그럼으로써 언어 학습에 있어 이주여성의 자체구동력을 기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③ 지역별·상황별 분류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일시적 구성원이 아닌 영구적 구성원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의사소통기능은 생존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친교 활동, 정보 교환, 문제 해결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주 여성 한국어 교재는 실생활 문화를 주로 다루되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이주 여성이 일반적인 한국 주부로서 겪게 될 경험과 이주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해서 예측되는 다양한 상황을 포착해야 한다.

주제별 상황 정리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각 주제 안에서의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물건 사기”라는 주제에서 쇼핑장소와 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물건 사기’, ‘백화점에서 물건 사기’, ‘인사동에서 물건 사기’, ‘재활용품점에서 물건 사기’ 등으로, “주문하기”에서는 ‘음식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등으로 나누어 상황별로 정리하면 훨씬 더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쉬울 것이다.

이주 여성은 지역 내에서 가족이나 지역민들과 더불어 생활해야 하므로 이들의 생활현실 및 언어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맞있어요’ 대신 ‘간이 맞아요’, ‘바구니’ 대신 ‘소쿠리’라는 방언이 쓰이는 지역에서 표준어 교육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별로 빈도수가 높은 어휘 및 관용어 교육은 그들의 언어생활을 더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방언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2) 언어기능별 분석

최근 외국어 교육은 통합적 경향을 띠고 있다. 교수요목도 여러 교수요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혼합형 교수요목이 주를 이루기 시작했고 교수법도 4기능 통합교수법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

러나 교재개발에 있어서 주제, 기능, 어휘, 문법, 문화 등이 함께 포함된 교재보다는 교육현장에서 개별기능교재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심화학습용 또는 보충학습용으로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교재의 개발은 그리 많지 않다.

실제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대부분의 경우, 통합교재 안에서 해당부분을 가르치거나 보조자료를 개발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외국어 능력에 대한 분리 가능한 언어능력 가설이 힘을 얻는 현재의 상황에서 분리교재의 개발은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과정과 학습효과에 따라 분리교재 사용의 필요성 또한 매우 크다.

결혼 이주여성이 언어수행기능 중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말하기’ 기능으로 구어체 중심으로 하되 언어학적 단계를 따른다. 한국어가 표음 중심의 언어이기는 하지만, 맞춤법을 의식해야하는 문자 언어와 발음의 용이함을 추구하는 구술언어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때문에 교재는 구어체 중심으로 말하기와 듣기 기능에 중점을 두되 문법의 제시는 언어학적 단계를 따르고 사용빈도가 높은 문법과 비교적 쉬운 문법에서 점차 빈도수가 낮고 어려운 문법의 순서로 제시한다.

이때, 한국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존대법을 제시하고 대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간접인용 표현과 격식체, 비격식체의 문장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유용하다. 어휘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우선하여 제시하며 어휘장이나 의미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가능하면 빨리 많은 어휘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리고 다소 어렵더라도 결혼

이주 여성의 일상생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판단되는 어휘는 빼놓지 않고 제시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는 다문화적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전통문화를 다루되 현대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텍스트를 구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언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방언은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이자 삶의 기반이 되는 현실적인 언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표준어를 위주로 하되 가장 필수적인 방언을 병행 또는 부가하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각 지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 언어인 방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교재 구성 분석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 교재가 지니는 중요성은 대단히 크기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교재의 개발과 연구 및 분석은 실로 중요하다. 좋은 교재는 형식적 체재의 표준화와 내용에서의 풍부함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 요구수용은 물론 현지어로 된 교재 및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맞는 개별적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근 국내의 한국어 교육용 교재 개발 양상은 아직 미진하다. 그렇지만 이전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더불어 발전적인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교재의 형태적 측면에서는 자습에 의존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혼자서도 자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형의 교재와 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자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어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현재 매개어로 번역된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타갈로그어 외에 몽골, 타이 등 여타의 나라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언어와 문화에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넓은 의미에서의 교재는 교수-학습이 있는 교과과정에 도입되는 모든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교과서, 참고서는 물론이며 각종 영상자료를 포함하는 시청각 자료와 교사와 동료, 학생이라는 인적 자원 및 교수-학습 상황 등도 교재가 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교육 목표에 맞게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그 교육 과정에 따라 제작된 가시적인 교육 내용을 교재라고 할 수 있고 흔히 교재라고 할 때는 인쇄된 출판물에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자료, 인터넷자료 등도 좋은 교재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 현장은 괄목할 만한 연구와 적용으로 활기를 보이고 있다. 현장에 적용할 가시적인 성과물들은 역시 다양한 교재들이라고 하겠다. 최근에는 통합 교재 개발에만 머물지 않고 영역별 교재나 특수 목적 교재들도 개발되고 있다. 또한 CD-ROM이나 인터넷 학습 사이트의 개발로 종이 교재의 한계를 넘으려 하고 있으며 비디오, 오디오 교재, 교사용 지침서 등 학생용 주교재 외의 구성물 개발, 각종 사전류 개발도 시도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특성상 자녀돌보기, 집안일 등으로 교육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이주여성들은 자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서도 자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형의 교재와 부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부교재는 Video, Audio, 읽기 교재, Workbook 형태로 제작하여 주교재와 병행하여 학습한다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단원 구성에 고려해야 할 부분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의 관심과 애정은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습득을 촉진시킨다. 남편이 틈틈이 숙제를 같이 해주고 시부모님과의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는 학습자의 한국어 발달이 더 좋다. 따라서 새로 구성될 교재의 형식은 남편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흥미롭고 다채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제언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에 가족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이 중요함을 남편·시부모에게 설득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다. 또 한국어 교육이 집중과 소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어교육의 근간이 되는 한국어 교재는 수준별, 언어영역별로 치밀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즉 입문서, 초급 1,2,3 중급 1,2,3 고급 1,2,3 최고급 등 아주 촘촘하고 세밀한 학습 교재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일 매일의 학습량을 점검할 수 있는 학습지의 형태라면 학습자의 요구수준에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1~2회 정도 학습점검과 피드백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학습자의 발달 추이를 계량화하는데 유용하다. 철저한 언어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사 양성과 더불어 교사를 위한 지침서 및 영역별 지침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역별 및 교사지침서는 한국어 교육의 평준화를 꾀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강길호·김종옥(1998), “설득메시지에 나타난 공손 표현과 성별이 수용자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3(1), 한국언론학회.
- 강명순·이미혜·이정희·정희정(1999), “한국어 듣기 능력 평가 방안”, 한국어교육 10권 2호.
- 강보유(1994), 빗갈형용사의 색채학적 의미구조의 특성, 논문집 제2호. 경희알타이어연구소.
- 강보유(2002), 문화언어학 시각으로 본 한국어 문법 교육,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Ⅲ. 대학사.
- 강순경(1980), “방송영어 강의의 내용과 방법 -KBS 생활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20.
- 강승혜(2002), 재미교포 성인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 연구,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 교육 14-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03),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호 외 공저(1996), 현대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 강영아(2000), 한국어학습자의 정의적요인과 성취도와의 관계 -일본 대학 내의 한국어교육상황에서-, 연세대학교 대학원.
- 강위규(1990), 관용 표현의 개념과 성립 요건, 한글 209호, 한글학회.

- 강은지·이호영·김주원(2004), “서울말 어간말 자음의 음성 실현”,
말소리 49, 대한음성학회.
- 강인애(1997), 왜 구성주의인가? - 정보화 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
육환경, 문음사.
- 강현화(1998), 체언 + 용언 끝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
8집, 한국문화사.
-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
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현화(2002), “한국어 문화 어휘의 선정과 기술에 대한 연구”, 박영
순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고영근(1970), 현대국어의 준자립형식에 대한 연구-형식명사를 중
심으로, 어학연구 6-1. 서울대 어학연구소.
- 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고영근(1999), 텍스트이론: 언어문학통합론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
르케.
- 고영진(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풀이씨의 경우, 국학자료원.
- 고인수(1994), “한국어의 ‘요청’ 행위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공손
성 연구”, 영어영문학 11(1), 한국어영어영문학회경남지회.
- 고인수(1995), “영어와 한국어의 ‘요청’ 화행에 나타나는 사회 언어
학적 공손성”, 영어영문학 12(1), 한국어영어영문학회경남지회.
- 곽병선(1983), 교육과정, 배영사.
- 곽지영(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말 22.
- 픽셀 튀르코취(1999),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말하기 듣기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교육인적자원부(2002), 2002년도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보도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구인환·우한용·박인기·최병우(2001), 문학교육론(제4판), 삼지원.

구현정(1999), 조건 범주의 문법화. 한국어 의미학 4, 한국어 의미학회.

국립국어연구원(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연구원(1993), 국어 어휘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1~3권), 서울: 두산동아.

국립국어연구원(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국립국어연구원(2003), 현대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국제교육진흥원(2003), 귀국학생지도교사 직무연수, 국제교육진흥원.

국제교육진흥원(2003), 동북아 중심국가 지향을 위한 국제교육 진흥 방안.

국제교육진흥원(2003), 세계 한국학의 동향과 전망, 세계 속의 한국학, 2003 정부초청장학생 출신 한국학교수 초청 세미나, 2-5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4),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의 새로운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권기을(1985), 읽기 지도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권미정(1999),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에 대하여”, 제 2분과: 교재 개발 및 학습자 요구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새 천년 맞이

제10차 국제학술회의.

권성호(1990), 교육공학원론, 양서원.

권순희(1996),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의 교재 편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3.

권오량 외(공역)(2001),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H. D. Brown,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000), Pearson Educaion Korea.

권오량 · 김영숙 · 한문섭 (공역)(2003), 원리에 의한 교수-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H.Douglas Brown, *Teaching by Principle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001), Pearson Education Korea.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권재일(1998),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권재일(200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의 개발 방향”, 새국어 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김경선(2004),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활용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과 문학, 제6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계화(2002), 한국어과 인재 양성 목표에 대하여,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김광해(1987), 유의어 · 반의어 사전, 도서 출판 한샘.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1995),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 김광해(1996),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의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칭어문 26.
- 김광해(2003), “국어교육용 어휘와 한국어교육용 어휘.” 국어 교육 111,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도서출판 박이정.
- 김규철(1981), ‘단어 형성 규칙의 정밀화’, 언어 6-2. 한국언어학회.
- 김남길(1989), On Korean language textbooks. 한국말 교육 1.
- 김덕기(1996), 영어 교육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두웅(1983), 불완전명사의 의미 분석. 국어교육 44·45,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김명중(1995), 사고력 신장을 위한 읽기 지도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김목한(1997), 현대국어의 형식명사 연구, 국민대 박사논문.
- 김미옥(1994), 한국어 학습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말교육 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미옥(1999), 제2언어와 입력, 발화 그리고 상호작용,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미옥(2003), “한국어 학습자의 단계별 언어권별 어휘 오류의 통계적 분석”, 한국어 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민성(2001), 과정 중심적 웹기반 한국어 쓰기 교육 - ‘hanclass’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민자(1997), “호주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김민재(2004),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내용중심 대학예비교육과정 설계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운(1999),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방법 및 지도,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김병운(2002), 한국어과 진로방향,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김병훈(2003), 중국에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V”, 서울, 태학사.
- 김봉순(1992), “읽기 지도 내용의 모안”, 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봉순(1992), 읽기 평가에 관한 비판적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김봉식 외(1999, 2001), Beginner's Korean 1, 시사에듀케이션.
-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상희(2000), 한국어 교실의 의사소통 양상, 화법연구 2, 한국화법학회.
- 김석기(2002), 한국어과 졸업생의 진로 현황 및 향후 진로방향 모색,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김선정(1999), “영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김선희(1997), “공손법이 쓰이는 동인과 그에 관련된 공손책략-한국·중국·일본 작품을 통하여”, 정신문화연구 20(4).
- 김선희(2001), 우리 사회 속의 우리말-여성어에 관한 고찰, 한국문

회사.

김성희(1999), “의사소통식 수업을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 연구”, 제 2분과: 교재 개발 및 학습자 요구 분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새 천년 맞이 제10차 국제학술회의.

김성희(2000), “의사소통식 수업을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 연구 -서강 한국어 1, 2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창립 15주년 기념 새 천년맞이 제10차 국제학술회의: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수현(2004),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현황과 방안”, 이화어문논집 22.

김영란(2000), {왜}의 화용 기능, 한국어 의미학 6, 한국어의미학회.

김영란(200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화용 정보: {무엇},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

김영선(2004),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화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영송(1981), 우리말 소리의 연구, 과학사.

김영아(1995), “호주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와 해외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회지 제12호, 이중언어학회.

김영아(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완진(1970), ‘이른 시기에 있어서의 한·중 언어 접촉의 일반에 대하여’, 어학연구6-1.

김왕규 외(2001),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김왕규 외(2002),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왕규 · 김정숙 · 조항록 · 정구향 · 조지민 · 김수정(2002),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용찬(2000), 남북한의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제5호, 한국민족연구원.

김원호(1998), “수동태: 형태와 기능”, 한국어학 8, 한국어학회.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국어 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의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유정(1999),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학습자들의 인식,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유정(1999),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숙달도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김유정(2001), “한국어 쓰기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13, 한국어학회.

김유정(2001), 초급 교재에서의 주제 · 기능 · 문법의 상관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김유정 · 방성원 · 이미혜 · 조현선 · 최은규(1998),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9권 1호.

김윤경 역(2000), 외국어 교육 이론과 실제(S. Krashen, Principles

-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95), 한국문화사.
- 김운태·설동훈(2005), “대만의 국제결혼 이민자 복지 정책”, 《중소연구》 29(3).
- 김은주(2001),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학문으로의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 김재욱(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한국어 교육 문법의 원리와 체계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 김재욱(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제3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 김재욱(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격조사 교육.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 김재홍(1998), 한국 현대시의 사적 탐구, 일지사.
- 김정숙(1988),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 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1992),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 김정숙(1994), “언어숙달도(Proficiency)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 한국어 교육 방향”, 민족문화연구 2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소.
- 김정숙(1996), “담화능력 배양을 위한 읽기 교육 방안”,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 김정숙(1998),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1999), “담화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한국어 교육 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토론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 김정숙(2002),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와 교재 구성”,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제 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1),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과제 구성의 실제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김정숙·김유정(2002),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

- 구-개인 정보 표지 체계와 오류 정보 표지 체계를 중심으로
-”,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김정숙·정구향·최은규·김유정·곽숙영(2004),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부여 방식 및 평가문항 유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 김정우(2001), “시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
문 29, 서울대 국어교육과.
- 김정은(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한말연구 11, 한말
연구학회.
- 김정은·이소영(2001),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표준 문법-조사,
어미,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19호, 이중언어학
회.
- 김정훈·유승금(2001), 사이버 공간에서의 한국어 학습 전략 연구.
한국어 교육 제 12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
구”,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3-121쪽.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재 문법 기술 방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 25·26합호, 연세대 한국어학당.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종태(2002), 한국어과 졸업 후 인재 육성의 방향, 제6회 한국어 교
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
학 한국학연구소.

- 김중택(1982), 國語話用論. 형설출판사.
- 김중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 김중현(1999), 한국어의 메아리 질문: 그 기능과 속성. 담화와 인지
6-1. 담화인지언어학회.
- 김중섭 외 4.(2000), 한국어 초급 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김중섭 외 4.(2001), 한국어 초급 II. 경희대학교 출판국.
- 김중섭 외(2001), 러시아 및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정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중섭 외(2002),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 교육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중섭 외(2002), 한국어 중급1, 경희대학교 출판국.
- 김중섭 외(2002), 한국어 중급2, 경희대학교 출판국.
- 김중섭 이관식. 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중섭(1998), “한국어 능력 평가 검사의 개발 실태 및 분석”,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중섭(2001), 기록과 관찰을 통한 한국어 교수법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2.
- 김중섭(2001), 러시아 및 중국지역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연구결과보고서.
- 김중섭(2002), “한국어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김중섭(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 어미 오류 양상에 관한 연구-

- 언어권별 오류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김중섭·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10(1).
- 김중섭·이관식(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0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지연(2001), “시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지영(2001), 한국어 작문의 상호협력적 교수-학습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2004), “한국어 어휘 교육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15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진해(1999), 연어의 계열 관계 연구, 국어학 35집. 국어학회.
- 김진해(1999), 연어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4집. 한국어 의미학회.
- 김차균(1998), 음운학 강의, 태학사.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원(1995), “읽기 교재의 체계화와 그 적용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11,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청자(2003), 국어 피동 타동사 구문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하수 외(1999), “범용 한국어 교육 교재(초급)의 개발” 사업 보고서.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하수 외(2000), “한국어”초급(말하기 듣기) 교재개발 사업보고서 I, II.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 김하수 외(2001), “한국어” 초급(말하기 듣기) 교사용 지침서 개발 사업 보고서.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 김하수(2004), 외국어교육학으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2004년 이종언 어학회 제16차 전국학술대회 춘계대회 발표 논문집, 이종언 어학회.
- 김해연(1999), The Form and Function of Questions in Korean Conversation. 담화와 인지 6-2. 담화·인지 언어학회.
- 김현·김주연 편(1976),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 김현정(1995), 읽기 교육에서의 스키마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 김형찬(1990), 재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 해외동포의 현실과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국제문화연구소.
-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의 구조와 의미”, 말 12,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 남 연(2003), 한국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정과 교수요목,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남기심 고영근. 1987. 표준국어문법론. 塔出版社.
-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대학 출판부.
-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남기심(1973/1989), 완형보문법 연구, 서울: 탑출판사.
- 남기심(1993),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에’와 ‘-로’를 중심으로, 서울: 박이정.
- 남기심(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 남기심·고영근(1985/2001),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남기심·루코프. 1983. 논리적 형식으로서의 ‘-니까’ 구문과 ‘-어서’ 구문. 고영근·남기심(공편)(1983). 탑출판사.
- 남명호·양태식·이영숙·원호헌(2000), 한국어능력시험 등급 기준 조정 및 문제은행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명호·이인제·김정숙·박정·김왕규(1999),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남영신(1987), 우리말 분류사전, 서울: 한강문화사.
- 남영신(1988), 우리말 분류사전(2): 풀이말 편, 서울: 한강문화사.
- 남영신(1992), 우리말 분류사전(3): 꾸밈씨 기타편, 서울: 한강문화사.
- 남영신(1994), 새로운 우리말 분류 대사전, 서울: 성안당.
- 노금송(2002) 한국어과 인재양성 방향 및 대책,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노마 히데키. 1996.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일본어 화자의 경우-.
- 노명완(1994), “읽기의 관련 요인과 읽기 지도”, 국어교육85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 자료의 체제 분석”, 이중언어학 15.
- 노명완(1998), “한국어 교육자료의 체제 분석”,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노명완. 2001.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노명희(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은희(1999),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노은희(2000),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농림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사 지침서-우리 엄마의 한국어』, 신명기획, 2007.
- 농림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우리 엄마의 한국어(초급)』, 한국어세계화재단, 신명기획, 2007.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1992. 1993. 한국어 1. 한림출판사.
-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1992. 1994. 한국어 3. 한림출판사.
-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1992. 1995. 한국어 2. 한림출판사.
- 동경한국학교 해외한국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2001), 국제화사회에서의 해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연구책임자: 김용만), 2001年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라혜민 외. 1999. 출발! 한국어 활용 II. 도서출판 보고서.

- 라혜민·우인혜(1999), “한국어 교재의 효율적 개발 방향”, 한국어교육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5-115쪽.
- 라혜민·우인혜(2001), 한국어 고급 1, 생각하는 백성.
- 라혜민·우인혜(2001), 한국어 중급 1, 생각하는 백성.
- 류재택·이재기·김수정(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리득춘(2000), 세기의 교차점에서 21세기에 대비한 조선어교육, “중국조선족공동체연구”, 중국연길, 연변교육출판사.
- 리득춘(2003),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중국한국어/조선어교육연구학회 설립대회 기조연설)
- 마주르 유.엔. 1991. 러시아와 소련에서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8호. 이중언어학회.
- 묘춘매(2000), 21세기의 복합형 한국어 전문 인재 양성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문금현(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문금현(2004), “유의어의 의미 변별과 결합 구성의 관계”, 「임홍빈 교수 화갑 기념 논문집」, 서울:태학사.
- 문복희(2001), 한국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와 수업방식,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Ⅲ,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2000), “한국어 초급(쓰기, 읽기) 교사용 지침서 및 학습자용 워크북 개발” 사업 보고서.
- 문화관광부(2002), 국어 발전 종합계획 시안, 문화관광부 정책 자료.
- 문화관광부(2003), 국어 기본법 제정(안) 설명자료, 문화관광부 정책 자료.

- 문화관광부(2004), 국어 기본법(안), 문화관광부 보도 자료.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 누리 미디어 플러스, 2007.
-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누리 미디어 플러스, 2007.
- 민중서림 편집국 편. 1996. 민중 엡센스 신한영소사전. 민중서림.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 민현식(1997), 사할린 동포의 한국어 의식조사 연구. 제9차 학술회의 발표모음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서울: 역락.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도서출판 역락.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제2회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제2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초록: 한국어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민현식(2002), “국어 지식의 위계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 108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민현식(2002),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2), 언어교육과정의 구성요소와 교수요목(syllabus)의 유형, 21세기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2a),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외국어로서의

- 한국어 교수법의 현재와 미래, 제2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 요지문.
-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표준교육과정의 내용 기술 방법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 민현식(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14-2.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 교육 15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갑수(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평가”,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 박갑수(1999),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박나리·조선경(2003), 학문적 목적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외국어교육 10(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박남식(1980), “방송 영어강좌의 현황 -문제점과 대안”, 영어교육 20.
- 박노자(2000),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 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동호(1998), “대상부류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수자 외(1999), 읽기수업방법, 초등국어교육학회, 박이정.
- 박수자(1992), “읽기 교재에 수록될 ‘글(text)’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2, 국어교육학회.
- 박수자(1994), 독해와 읽기 지도, 국학자료원.
- 박수자(1995), “독해전략의 유형과 지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89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수자(2001), 읽기지도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양규(1978), “사동과 피동”, 국어학 7, 국어학회.
- 박영목(1995), “독서 능력 신장 방안 연구”, 국어교육89권,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 박영목(1996), 국어이해론: 독서 교육의 기저이론, 범인문화사.
- 박영목(2000),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국어교육103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월인.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박영순 편),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 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3.
- 박영순. 1991. 소련의 한국어학과 한국어교육, 그리고 언어이질성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8. 이중언어학회.
- 박용수(1989), 우리말 갈래 사전, 서울: 한길사.
- 박용수(1993), 겨레말 갈래 큰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용수(1997), 새우리말 갈래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용익(1998), 대화분석론. 한국문화사.
- 박용익(2003), 수업 대화의 분석과 말하기 교육, 서울: 도서출판 역

락.

박의재·이정원. 1999. 제2언어 습득론. 한신문화사.

박이도(1996), 세계화 시대의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학습. 한국문화사.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원(2001), 한-중 여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험음성학적 대조 분석.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창원(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에 대한 제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년도 추계(제18차)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철우(1990), “학생 중심 읽기 지도”, 국어교육69-7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방성원(2000), “통합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1(2).

방성원(2000), 통합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방성원(2001), 국어 보문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방성원(2002), 한국어 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방성원(2003), “고급 교재의 문법 내용 구성 방안”,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배두분(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배주채·곽용주(2000),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사전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배현숙(2002),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 배희임(1988), 국어피동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백봉자 외(1997), 신교재 개발 연구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보고서, 문화체육부 국어정책과 연구과제.
- 백봉자 외. 2000. 한국어 교사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수 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2000년도 한국어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보고서.
- 백봉자(1988), 초기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무엇부터 다루는 것이 좋은가, 한글 201·202, 한글학회.
- 백봉자(1991),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 교육한글 4.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백봉자(2002),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백봉자(2003), “외국어 학습 과정과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어 교육과 학습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서덕현(2004), 한국어 실용 문법 강의, 월인.
- 서상규 외(1998),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 어휘 선정,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서상규 외(2000), 한국어 교육 기초 어휘 의미 빈도 사전의 개발(사업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서상규 편(2003), 한국어 교육과 학습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서상규(2000), 한국어교육 기초어휘 의미빈도 사전의 개발, 서울: 문화관광부.
- 서상규(2002), 한국어의 해외 보급을 위한 정책 방향,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문.
- 서상규 · 유현경 · 남운진. 2002. 한국어학습자 말뭉치와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13- 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서아정(2004), 해외 각급 학교 별 KFL 교육현황,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 언어 문화(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서영빈(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방안, 대외경제 무역대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한국어 교육 평가론, 제4회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서정수(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 출판원.
- 서정수(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 문법 체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27, 연세대 한국어학당.
- 서정수. 1994.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서혁. 1992. 한국어 학습자의오류와 교재 구성의 방향. 선청어문 2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석주연 · 안경화(2003),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분석의 몇 가지 문제-정의, 확인,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3-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선문대 한국어교육원(1999), 「출발 한국어 I」, 서울: 보고사.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0. 한국어 중급 1. 생각하는백성.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0. 한국어 초급 1. 생각하는백성.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000. 한국어 초급 2. 생각하는백성.
- 설동훈(2005), “이민과 다문화 사회의 도래”, 김영기 편, 『한국사회론』. 전
북대학교출판부.
- 설동훈(2006a), “선진 외국의 다인종·다문화 정책 사례”, 《지방
의 국제화》.
- 설동훈(2006b), “국민·민족·인종: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체성”,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
학회.
- 설동훈(2006c), “전지구화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동북아시아, 한국
의 진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설동훈·김운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
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
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윤홍식(2005), “국내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사회복지정책”, 『한국 사회복지의 딜레마: 2005년 한
국사회복지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
학회.
- 성광수(1996), “한국어의 세계적 보급을 위한 언어정책 검토”, 한국
어 세계화의 제문제, 이중언어학회지 제13호,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12-2호.
- 성기철(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어교육 107, 한국
국어교육연구학회.
- 성비락(2002), “몽골어와 한국어의 단모음 비교”, 한국어 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성지연(2002),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일본인 중급 학습자들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지연(2002), 오류 분석을 통한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 연구- 일본인 중급 학습자들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2001), 문항 반응 이론의 이해와 적용, 교육과학사.
- 성태제(2002),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세계화추진위원회.
- 손성옥(2003), 외국어 교육학에서의 학문 영역과 교과과정 구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손호민(1999),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방법(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회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손호민(2001), 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손호민(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미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송민(1985), '派生語형성 依存形態素 '-的'의 始原', 어문논집 24·25.
- 송경숙. 1996. 한국어와 영어 대화의 질문에 대한 상호작용 사회언어학적 분석. 담화와 인지 3. 담화인지언어학회.
- 송기중(1992), '현대국어 漢字語의 구조', 한국어문 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송병학(1979), “한국어의 수동태”,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 송석찬(2002),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주최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 송인동(1994), Collocation and Extend Meanings, 어학연구 30집.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시라카와 유타카(白川 豊)(2004), “일본 NHK 한글 강좌 20년간의 방송 교재의 검토 - 방송 교재에 나타난 발음과 한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제14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신규석(1999), “한국어 문법교육의 방향: 형용사와 관계절의 기능과 의미의 관계”, 21세기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10차 학술대회 발표 요지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동일(2002), 영어시험 사용자 관점에 관한 새로운 고찰: 반실증주의적 페러다임 논의로부터, 응용언어학, 18(1).
- 신동일(2003), 한국의 영어평가학 1-시험개발편, 한국문화사.
- 신주철(2003), “한국 시 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지영 · 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신헌재 외(1996), 국어과 교수 · 학습 방법. 도서출판 박이정.
- 신현숙 외(2000), 의미로 분류한 현대 한국어 학습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신현숙(1995), “명사 {밥}의 형식과 의미 확장”, 자하어문논집 11, 상명대학교 어문학회.
- 신현숙(1998), “한국어 어휘 교육과 의미 사전”, 한국어교육 9(2).
- 신현숙(1999), 한국어 기능어의 어휘 정보 구축.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현숙(2001), 말하기 교수법 2: 대화의 생성과 해석.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해외한국어교육자 제1차 워크숍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현숙(2001), 한국어 현상과 의미 분석 (개정판). 경진문화사.
- 신형욱(2000), “의사소통 중심 독일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심재홍(1991), 글의 이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독성 측정의 모형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안경화(2001), 구어체 텍스트의 응결 장치 연구,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경환(2002), “베트남어의 경어법과 문화 속성에 대한 연구”,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안병호(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장래(문법강의를 중심으로), “한국어(조선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한국경제문화연구소.
- 안주호 .1998. 연결어미 ‘-길래’의 특성과 의미. 어학연구 34-1. 서울대 어학연구소.
- 안주호(1996),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주호(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원인] 연결어미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안주호(2003), 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탐구, 한국문화사.
- 안주호.(1997), 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 양경모(1995), 동사와 명사의 결합에 관한 대조 고찰, 언어학 17호,

언어학회.

- 양순임(2001), “유기음과 성문열림도”, *우리말연구* 11, 우리말학회.
- 양순임(2001), “음절 끝 닿소리와 된소리되기”, 박사학위논문, 부산대.
- 양순임(2002), “음절 말 자음의 음성 자질”, *한글* 258, 한글학회.
- 양순임(2003), “유기음화와 관련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언어학* 22, 이중언어학회.
- 양순임(2003), “한국어 모음의 인지 및 발음 교육 방안”, *이중 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양순임(2004), “한국어 음절 초성의 발음 교육 방안”, *국어교육* 113,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양태식 · 이태영 · 김정숙 · 전나영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교수요목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연구과제.
- 엄태수(1999), *한국어의 음운규칙 연구*, 국학 자료원.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2005.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중급』, 국립국어원, 도서출판 역락, 2007.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첫걸음』, 누리 미디어 플러스, 2005.
-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초급』, 누리 미디어 플러스, 2005.
- 연세대 한국어학당(1992), 『한국어』 1-6권, 서울: 연세대 출판부.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4), 한국어 4,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4),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1998), 한국어 읽기 2-5,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01), 한국어 1(1판 18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1995), 한국어 발음, 연세대학교 출판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1~6, 연세대학교 출판부.
- 오경진(2003), 인과관계 의미표현류 -‘-느라고, -길래, -(으)므로, -는 바람에, -는 통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 오대환(1999), “한국어 발음 교수를 위한 개괄”, 말 23·2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오대환(2001), 입말 네로티브 안에서의 입말/ 글말 연속체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오미정(1998), “국어 원초어휘(primitive vocabulary) 선정에 관하여”, 제115차 한국어학회 연구발표회 발표문.
- 오미정(1999), 국어의 기초어휘 선정에 대한 연구: <신체> 영역의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 오성애(200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오정수(2000), “언어경험 중심 읽기 지도법(LEA)을 활용한 통합적 영어 읽기 지도 방안”, 이화교육논총1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 대학원.
- 외국인정책위원회(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용재은(2004),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학문적 텍스트의 분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인혜(1997), 우리말 피동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우인혜(1998), “한일 언어 비교를 통한 발음 교수법”,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우한용(2003), (고등학교)독서, 서울 민중서림.
- 우형식(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토론문”,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년도 추
계(제18차)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원명옥 역(1998), 「어휘론의 이론과 응용」(번역) 서울: 한국문화사.
(Ronald Carter. Vocabulary :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
- 원진숙(1992),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교육한글 5
호, 한글학회.
- 원진숙(2000),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체제 개선 방향”, 이중언어학 17.
- 원진숙(2000),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단원 구성 체제
개선 방향. 이중언어학 17호. 이중언어학회.
- 원진숙·박나리(2001), 영어권 교포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
학술대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유석훈(2003), “영어 학습 사전의 현황”, 한국어 교육과 학습 사전,

- 서울: 한국문화사.
- 유타니 유키토시(2001), 한국어 교재 구성의 기본 원리,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유태영 외(1988), 교육방송론, 서울: 나남.
- 유현경(2002), “어미 ‘-다고’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 유현경·강현화(2002), “유사관계 어휘 정보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7.
- 윤대영(1990), 읽기지도를 위한 질문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0), “한국어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2),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론”,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문화사.
-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19차)학술대회.
- 윤인진(1998), 해외동포 포용 및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중앙대 민족발전연구원 해외민족연구소 주최 제3회 재외동포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신문화사.
- 윤희원(2002), “한국어 교육과정론”,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서울대 언어교육원·사범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 윤희원·서혁(2002), 한국어 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문화관광부 한국어세계화재단.
- 이향(2001),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재 개발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건해(2001), “TV 방송 영어 프로그램 분석 척도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훈(1982), “국어의 (복합)명사에서의 경음화 현상”, 언어 7-2, 한국언어학회.
- 이경희·정명숙(1999),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파열음의 발음 및 인지 교육”, 한국어 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관규 외(공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S. Thornbury, How to Teach Grammar, 1999), 한국문화사.
- 이관규(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표준 문법의 내용 체계-1차 연도(2000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7, 우리어문학회.
- 이관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토론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학술대회 발표 요지집.
- 이관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토론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년도 추계(제18차)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관규(2004), “문법 영역의 위상과 문법론의 내용 체계”, 이중언어학 26, 이중언어학회.
- 이대규(20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불규칙 동사의 교육 방법”,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 이덕희(2004), 요구 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 방안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석(2004), “효과적인 표준 발음 교육”, 말소리 51, 대한음성학회.
- 이동은(2000), 토론의 상호작용사회언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미영(2001),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전략 연구-발화오류자의 전산코딩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육 13-2.
- 이병근·박진호(2000), 결합 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인문논총 4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 이병모(1991), 준자립명사 식별 기준에 대하여, 배달말 16, 배달말학회.
- 이삼형(1996), “읽기 교육과정 개발과 읽기 평가”, 국어교육연구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연구소.
- 이상익(1970), “국어의 사동·피동 구문 연구”, 국어 연구 26, 국어연구회.
- 이상익(1990), “현대국어 음변화 규칙의 기능 부담량”, 어학연구 26-3.
- 이상익(1993), “통사적 현상의 기능 부담량에 대하여: 현대국어에 대한 계량적 조사”,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어연구회편, 문학과 지성사.
- 이상익(1998),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에 포함된 문법사항의 비교 평가”,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석규·김선희(1992), “남성어·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2.
- 이석주(2002), “한국어 문화의 내용별·단계별 목록 작성 시고”, 이 중언어학 21.
- 이선근(2000), 해외 동포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0차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이선웅(2000),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체계에 대하여 - 1, 2인칭 대명사를 중심으로-”, 이 중 언어학 17, 이 중언어학회.
- 이선이(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한국문화사.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성호(2000), “영문학교육과 영어교육의 연계 가능성에 관한 연구: 읽기 과정을 중심으로”, 영미문학교육(제4권), 한국영미문학교육학회.
- 이소영(2001), “한국어 교재의 문화 요소 분석 및 한국어 문화 통합 교수 방안 - 웹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1996),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용의 경향에 관하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수열(1999),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 서울: 현암사.
- 이수영(2003), “시를 통한 문화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이순자(1987), 문법의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윤(1998), “97년 한국영어교육방송프로그램의 현황”,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식(1997), 최근 언어평가의 연구와 이론적 배경, 영어교육 52-1호, 영어교육학회.

이영식 · 이완기 · 신동일 · 최인철(2003), 언어평가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완기(1985), “TV 중학 영어 프로그램의 수업에의 활용방법”, 교육개발 41.

이완기(2003), 영어 평가 방법론, 문진미디어.

이원표(1999), 토크쇼에서의 말 끼어들기: 담화 기능과 사회적 요인. 담화와 인지. 제 6권 2호.

이원표(2001), 담화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이원표(2001), 담화분석, 한국문화사.

이은숙(2001), 중국에서의 한국어 문학교육의 문제와 전망, 대외경제무역대학 학술회의 논문집.

이은숙(2001), 외국인을 위한 고급 한국어 교재로서의 『혼불』 고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Ⅲ,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은희(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식”, 이중언어학 제 25호, 이중언어학회.

이의정(1992), “동조획득전략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3(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의정(1998), “한국인의 동의연기 방식 연구”, 현대사화과학연구 9(1),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익섭 외(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서울: 학연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이재경(1998), 기사 작성의 기초, 나무와 숲.
-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이재승(2002), 글쓰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과정 중심 접근-, 교육과 학사.
- 이재욱(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방법 연구: 어휘정보 처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 학위 논문.
- 이정택(2002), 접미사 피동문의 능동주 표지에 관한 연구, 한글 258, 한글학회.
- 이정희(2002), 오류관정과 분류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희(2002),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김지영(2003), 내용 중심 한국어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종은(1997),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 교육 한글 10, 한글학회.
- 이종은(1997), “한국어 발음 교수 방법과 모형”,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이종은(1998), 의사소통과 인지 중심의 한국어 문법 교수,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종훈(1999), 재외동포정책의 과제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문제, 국회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49호.
- 이주행(2002), “한국어의 발음 교육 방법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 이지영(1998), 한국어 연결 어미의 교수 모형: {-는데},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지영(2002),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특징 연구-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지영 · 이종은(199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 수행 중심 방법-”, 자하어문논집 11, 상명어문학회,.
- 이진숙(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 이춘형(2002), “영시 교육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및 활용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이춘호(2002), 한국어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와 인재양성의 방향,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이충우(1994), 한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이필영(1995), 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 탐출판사.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3. 담화인지언어학회.
- 이해영(1998), “문법 교수의 원리와 실제”, 이중언어학 15, 이중언어학회.

- 이해영(1999), “통합성에 기초한 교재 제작의 원리와 실제”, 한국말 교육 10(2).
- 이해영(2000),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 이해영(2000a), “인터넷의 활용과 한국어 개별화 수업 설계”,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3(1). 264-286.
- 이해영(2000b),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문화 학습”, Foreign Languages Education. 7(2). 407-432.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32쪽.
- 이해영(2001),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 이해영(2001), 학습자 중심 수업을 위한 교재 분석, 한국어 교육 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2),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 이해영(2003), 학문 연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차 국제학술대회.
- 이해영(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분석”, 문법 교육 제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31-256쪽.
- 이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이현진(2002), 한국어 피동표현의 교수 내용 및 방안 연구, 이화여자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이화여대 언어교육원(1998),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서울:이화여대 출판부.
- 이효상(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문법 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연구 제16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41-268쪽.
- 이효정(2001), “한국어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흥수 외 공역(2001),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제4판)(H. Douglas Brown 지음) Pearson Education Korea.
- 이흥수 외(1999), 영어평가 및 멀티미디어교육론, 한국문화사, 7-200쪽.
- 이희경·강승혜·김미옥·김제열·정희정·한상미·황인교(2002), 한국어 성취도 평가 문항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 언어교육원.
- 이희승(1954), 국어학 개설, 서울:민중서관.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 임경택·설동훈(2006),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 《지역사회학》 7(2).

- 임병빈(1993), 영어교육평가기법, 한국문화사(Madsen, H. S. 저, Techniques in Testing).
-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 19, 국어학회.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임혜원(1997), “선거 기사문에 나타난 은유:[선거는 전쟁이다]”, 담화와 인지 4-1, 담화인지언어학회.
- 임호빈·홍경표·장숙인(198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Ⅱ. 연세대학교 출판부.
- 임홍빈 편저(1993), 뉘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 사전,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 출판부.
- 장경은(2001),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실현 방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6.
- 장경희(1987), “국어의 完形補節의 해석”, 國語學 16, 國語學會.
- 장광군(2003), 한국어과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고,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IV”, 서울, 태학사.
- 장덕순(1995), 한국민속과 문학. 도서출판 박이정.
- 장미영(2006),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발 및 구성”, 국제 한국어 교육학회, 231-254쪽
- 장성욱(2000), “협동학습을 통한 시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영미(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한국(조선)문학사교수와 교재개발,

-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연변과학기술대학 제7회 연토회.
- 장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태한(2004), 재미동포 2세 교육의 방향과 미래상,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한 한국 언어 문화(국제한국언문화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재미한인학교협의회(1992), 재미한인학교 교육과정, 재미한인학교협의회회.
- 전나영(199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말 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전은주(1999),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 전혜영(1989),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의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전혜영(2001),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1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 국(1984), “음운 규칙의 비중 -발음 규칙의 관점에서-”, 어학연구 20-1,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 정광(1978), “유해류 역학서에 대하여”, 국어학 7, 국어학회, 159-188쪽.
- 정광(1998), 해외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이중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 정광 · 고창수 · 김정숙 · 원진숙(1994),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연구 -언어 숙달도의 측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1, 한국어학연구회.

- 정명숙(2002),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 박영순
(편)(2002),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
사.
- 정명숙(2002),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재은(2000), “현대 국어 접미 피동법의 통시적 고찰”, 홍종선 편,
현대 국어의 형성과 변천 2, 서울: 박이정.
- 정종진(1999), 한국 현대시, 그 감동의 역사, 태학사.
- 정진곤 외(1997), 해외교포 및 재외국민교육 강화 방안 연구, 교육부
교육정책과제.
- 조남현(2003), 근대산문, 조동일 외, 한국문학강의.
- 조명숙(2001),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이중 언어학 19,
이중언어학회.
- 조석중(1981), 통사와 언어, 경기대학논문집 9집, 경기대학교.
- 조성인(2000), NIE 탐구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교육과학사.
- 조은희(2002),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항록(1998), “한국어 고급 과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
안”, 한국어 교육 9-2호.
-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조항록(2001),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제1회 한
국어 교육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39-56쪽
- 조항록(2002),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연구 -한국어교육 정책을

-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논문.
-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 교육 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주경희(1997), “문법 교재 구성의 원리”, 국어교육 95, 한국어교육학회, 131-146쪽.
- 주세열(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의 설계－‘의미를 구성하는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7호, 이중언어학회.
- 주옥파(2003),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의 특수성, 문학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년도 춘계(19차)학술대회.
- 주옥파(2004),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논문설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주옥파(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 국어교육학연구 20.
- 지수용(2000), 중국인을 위한 문화 도입식 한국어 교수법 연구, 한국어 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지현숙(2001), 웹기반 한국어 교재 개발의 쟁점,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지현숙(2003), 한국어 숙련도의 개념과 기술 방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연구 제6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진정란(2003), 학습자 중심으로 본 이유의 연결표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 진제희(1999),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연구.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 석사
논문.
- 진제희(2000),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분류 및 분석.
한국어 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진제희(2001),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화 속에 나타난 대화 전략으로
서의 입말의 특성. 한국어 교육 제1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 진제희(2001),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분류 및 분석
-비상호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
어교육학회.
- 진제희(2002), 교실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교사의 역할 -스캐폴딩의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진제희(2004), 한국어 교실 구두 상호작용에 나타난 문제 해결을 위
한 의미 협상: 교사-학습자 대화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
문과 박사학위 논문.
- 차중환·이구환(1999), 한국의 국력신장을 위한 해외동포의 역할, 교포
정책자료 제51집,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채선희 외 (공역)(2003), 문항반응이론의 이론과 실제-외국어 수행
평가를 중심으로(Tim McNamara), 서현사.
- 천경록·이재승(1997),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 교육.
- 최경봉(1998), 국어 사전에서의 관용적 표현의 처리문제:관용어, 속
담, 연어에 대한 처리를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20집, 한남대학
교 국어국문학회.
- 최길시(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 태학사.
- 최동호 외(1995), 남북한 현대문학사, 나남출판.

- 최동호(2004), 한국현대시사의 감각, 고려대학교 출판부.
- 최문석(2000), 학습자 활동 중심의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경희대 석사논문.
- 최봉춘(1993), 한어와의 대비속에서 본 조선어의 문화적 특징, 중국 조선어문 제5,6호.
-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우영.(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갑(2000), 한국어문법. 吉林人民出版社. 延邊教育出版社.
- 최은수(1998), 재외동포 교육과 이를 위한 본국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한 고찰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8권 2호.
- 최인철(1993),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개발 모델”, 어학연구 29권 3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최인철(1997), 언어테스팅의 이론과 실제, 영어교육론, 한신문화사.
- 최재희(1991), 국어 접속문 구성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최정순 외(2000), 서강한국어, 서울: 서강대학교 한국학센터.
- 최종민(2001), “시 교육의 방법론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최지훈(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의 실제”, 문법 교육 제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57-283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호철 외(2000), 한국어 문형 사전의 개발 사업 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 최호철(1993), 현대 국어 서술어의 의미 연구, 고려대 박사 학위 논문.
- 추이진단(崔金丹)(2002), “중국어권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이중 언어학 20, 이중언어학회.
- 태평무(2002), 한국어과 과정안 설정과 졸업후의 인재양성 방향에 대하여,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 통계청(2006a),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통계청.
- 하세가와 유키코(1997), “일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지도법 - 입문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국어세계화재단,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 한국교육개발원, 2006.
-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문화관광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한성기획, 2007.
- 한상미(2000),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말 연구”, 연세대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상미(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말 연구 - 유도 발화 범주의 교사말 유형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상미(2002), “학습자 자율성에 기초한 한국어 어휘 교육 사례 연구: 인터넷 사전과 인터넷 자료 검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3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한송화(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331-362쪽.

- 한송화(2003), 기능과 문법 요소의 연결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14-3.
- 한송화·김제열(2001),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과 한국어 교재”, 제 1회 한국어교육학술대회,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한재영 외(2003), 한국어발음교육, 서울: 한림출판사.
- 한정일(2000),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 응(1988),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허용(2002),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음운론적 고찰”,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허용(2004), “중간언어 음운론에서의 간섭현상에 대한 대조언어학적 고찰”,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현운호 외(2002), 말이 트이는 한국어 IV,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홍운표(1988), “십팔, 구세기의 한글 주석본 유서에 대하여: 특히 ‘물명고’ 류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 서울: 탐출판사.
- 홍운표(1990), “실학시대의 어휘자료집 간행 역사”, 국어생활 22.
- 홍재성(1995a), ‘먹다’ 속어 동사구문의 통사적 기술, 어학연구 29권 3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홍재성(1995b), 어휘 함수에 의한 한국어 의미 기술과 사전 편찬, 제 2회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홍재성(2001), 한·불 사전의 명사 항목 구성, 불어불문학 연구 30호, 한국불어불문학회.
- 홍진옥(2000), “영어 요청 화행의 공손성 책략에 관한 비교 연구”,

- 인문사회과학,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홍혜성(1997), “한국어와 영어의 요청 화행에 쓰이는 예절전략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병순(1996), 말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서울: 태학사.
- 황은하(2000), 한국어 학습자의 반복현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말 교육 9(2).
- 황인교(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교육 9-2.국제한국어교육학회.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황지하(1995),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6차 국제학술대회(1995년 8월, 서울) 발표문.
- 황현옥(2001), 통합원리의 회화교육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II. 태학사.
- 후지이시 다카요(2000),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제2회 한국어 교육 국제학술회의.

ACTFL(1986), *The ACTFL Oral Proficiency Interview-Tester Training Manual*. ACTFL.

Alan Davies(1999), *Dictionary of language testing*, Oxford University Press.

Alessi, S. M., & Trollip, S. R.(2001). *Multimedia for*

- learning-Methods and Development*. Allyn and Bacon.
- Andrea Tyler. (1995). *The Coconstruction of Cross-Cultural Miscommunication*. *SSLA 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na Izabella Paradowska. (2002). 폴란드인의 한국어 모음의 발음과 청취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문학박사학위논문.
- Anthony V. Vandesande · 홍연숙(1991), *MYŎNGDO'S KOREAN 1*, 우신사.
- B. Rintin. (1966). *Mongol bichgiin helnii zui-Avia zui*. SUIiin hevleh uildver.
- Bachman L. F.(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 Palmer A. S.(1997),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chman, L. F.(1991), "What does language testing have to offer?", *TESOL Quarterly* 25.
- Bachman, L. F., & Palmer, A. S.(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C.(1996), *Cognitive theories of bilingualism and the curriculum*. In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 Baker, Mona(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Barnard, Christopher.(2000). Protecting the Face of the State: Japa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and 1945. *Functions*

of Language

- Beatty, Ken(2003) *Teaching and Researching Computer-assisted Language Learning*, Pearson Education Limited.
- Bell, J. & R. Gower(1998), "Writing course materials for the world: a great compromise," in B. Tomlinson(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ard Comrie著. 1988. 廖秋忠譯 語言類型學. 國外語言學. 1990年第4期.
- Bialystok, E.(1990), *Communication Strategies: A Psychological Analysis of Second-Language Use*. Oxford: Basil Blackwell.
- Biber & Reppen(1998), "Comparing native and learner perspectives on English grammar: a study of complement clause," in Granger ed., *Learner English on Computer*, London & New York: Longman.
- Biber, Douglas, Stig Johansson, Geoffrey Leech, Susan Conrad and Edward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dinburgh Gate: Pearson Education Limited.
- Blatchford, C. H.(1986), "Newspapers: vehicles for teaching ESOL with a cultural focus", J. M. Valdes ed., *Culture Bou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ers, F.(2000), "Metaphor Awareness and Vocabulary Retentio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21-4.

- Bokor, Zsuzsanna(1997), Body-based constructionism in the conceptualization of anger, *CLEAR* series 17, Dept. of English, Hamburg University and the Dept. of American Studies, FLTE, Budapest.
- Boster, F. J.(1984), "Commentary on compliance-gaining message selection behavior",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0.
- Brandl, Klaus(2002). Integrating Internet-based Reading Materials into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from Teacher- to Student-Centered Approache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Vol. 6, No. 3.
- Brown H. D.(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roduction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Second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 Inc.
- Brown, H, D.(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신성철(1996) 역, 외국어 교수·학습의 원리, 한신문화사.
- Brown, H, D.(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Brown, H. D.(1994), *Teaching by Principle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Brown, H. D.(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rown, H. D.(2003),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Longman.
- Brown, H. Douglas(1994), *Teaching by Principle: An Interactive*

-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J. : Prentice Hall.
- Brown, H. Douglas(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 Brown, J. D.(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Heinle & Heinle Publishers.
- Brown, J. D.(1996), *Language testing in practice*. Prentice Hall Regents.
- Brown, P. & S. C.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on Language Use*. Cambridge Univ. Press.
- Browns, H. Douglas(권오량 외 공역, 2001), *원리에 의한 교수 - 언어 교육에서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 Browns, H. Douglas(이흥수 외 공역, 2001),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서울: Pearson Education Korea.
- Burt, M.K. (1975). *Error Analysis in the Adult EFL Classroom*, *TESOL Quarterly* Vol. 9, No. 1.
- Bybee, J. (2001). *Mechanisms of change in grammaticalization : the role of frequency*.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ed. Richard & Brian. Oxford Blackwell.
- Byrnes, H. and Canale, M. eds.(1987), *Defining and Developing Proficiency: Guidelines, Implementations, and Concepts*. NTC.

- Canary, D. J. & Cody, M. J.(1993),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 Goals-Based Approach*. New York: St. Martin's Press.
- Center for Korean Studies at Sogang University. (2002). *Sogang on-line Korean - Novice Handbook*. 도서출판 하우.
- Charles N. Li, Sandra A. Thompson著. (1976). 李谷城 摘譯 主語與主題: 一種新的語言類型學. 國外語言學. 1984年 第2期.
- Chitra Fernando(1996), *Idioms and Idiomaticity*. Oxford University Press.
- Cho, Youngdal(2001), Directions of Research in Overseas Korean Studies in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Proceedings of First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um, KAREC.
- Chung, J.(1992), "Electronic mail usage in low-context and high-context cultur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Clark(1981), "Lexical innovations: How Children learn to create new words", ed. W. Deutsch, *The Child's Construction of Language*, London: Academic Press.
- COAG(1994). "Asian languages and Australia's economic future". A report prepared for the Council of Australia's Governments on a proposed national Asian languages/studies strategy for Australian schools. Canberra: National Languages and Literacy Institute of Australia.

- Coates, J. & Cameron, D.(1988), *Women in their Speech Communities*, New York: Longman.
- Cohen, A, D(1980), *Testing Language Ability in the Classroom*, 정명우·서천수(1990) 역, 새로운 언어능력 테스트, 한신문화사.
- Cohen, A. D.(1991), *Second language test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2nd ed.)*,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Cohen, Andrew D.(1999), “Second Language Testing”, Celce-Murcia, M.(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 Constance Weaver(1996), *Teaching Grammar in Context*, Boynton/Cook Publishers, Inc.
- Cook, Vivian(1993), *Linguistic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Corder, S. P.(1975). Error analysis, interlanguag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Teaching and Linguistic Abstracts 8*
- Corder, S. 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 Corder, S. Pit. (1974).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New Front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 Cummins, J. (1984), *Bilingualism and Special Education: Issues in Assesment and Pedagog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Heinemann Publishers Ltd.

Cunningsworth, A.(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Heinemann.

D. Alan Cruse(2000), *Meaning in Language -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Danesi, M.(1993), “Metaphorical competen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teaching”, *Georgetown University Round Table on Language and Linguistics*, ed. J.E. Alati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 Press, 489-500.

David Singleton(2000), *Language and the Lexicon*, Oxford Univ Press.

De Vos, G. & Romanucci-Ross, L.(1975), *Ethnic Identity : Cultural Continuities and Change*. Palo Alto, CA : Mayfield.

DeCarrico, J. S.(2001), “Vocabulary Learning and Teaching”,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Dubin, Fraida and Olshtain, Elite(1986), *Course Desig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Dulay, H., Burt, M. and Krashen, S.D. (1982). *Language Two*. Oxford University Press.

Ecker, P. & McConnell-Ginet, S.(2003), *Language and Gen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 Sapir 著 陸卓元譯. (1997). 語言論-言語研究導論. 商務印書館.
-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Erbus Consulting Partners Project team(2002), "Evaluation of the National Asian Languages and Studies in Australian Schools Strategy", A Report to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 Evelyn Hatch, Cheryl Brown(1995), *Vocabulary, Semantics, and Language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on, Gregory Nicholas & Suh, Chung-Sok ed.(2001),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KAREC, UNSW.
- Eyring, J. L. (1991). Experiential language learning.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Boston: Newbury House.
- Flower, L.(1993),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4th ed.)*,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Flowerdew, J. & Peacock, M.(2001), *Research Perspectives on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Booth, D. L.(1986), *Projec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ies, S. J. (1983). Learner feedback: An exploratory study of its role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In H. Seliger, & M.

- Long (Eds.), *Classroom-oriented research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 Gaies, S. J.(1980). Learner feedback: a taxonomy of intake control. In J.Fisher, M. Clarke, & J. Schachter (Eds.), *On TESOL '80 Building bridges: Research and practice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 Gairns R., & Redman, S. (1986). *Working with Wor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NADA Korean Language Institute. (1997). *가나다 Korean for Foreigners 1*. SISA Education.
- Gardner, R. C., and Lambert, W. E.(1959), Motivation Variabl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nadian Journal Psychology*.
- Gass, S., & Varonis, E. M. (1985). Task variation and nonnative/nonnative negotiation of meaning. In S. M.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 Gass, S., & Varonis, E. M. (1986). Sex differences in nonnative speaker – nonnative speaker interaction. In R. R. Day (Ed.), *Talking to learn Conversa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 Newbury House.
- George Woolard(2000), “Collocation – Encouraging learner independence” , *Teaching Collocation*,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
- Gilmore, A.(2004), “A comparison of textbook and authentic

- interactions”, *ELT Journal* 58/4.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U of Penn Press.
- Goffman, Erving. (1981). *Forms of Talk*. Univ. of Penn Press.
- Graham Crookes. (1990). The Utterance, and Other Basic Units for Second Language Discourse Analysis. *Applied Linguistics*. Vol.11. No.2. Oxford University Press.
- Grant, N.(1987), *Making the most of your textbook*, Keys to Language Teaching, Longman.
- Graves, K.(2000), *Designing Language Course*, Heinle & Heinle Publishers.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eter Cole and Jerry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Grimshaw, Allen(ed.).(1990). *Conflict Talk,: Sociolinguistic Investigations of Arguments in Conversations*. Cambridge Univ. Press.
- Grundy, P.(1993), *Newspapers*, Oxford University Press.
- H. Douglas Brown.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hite Plains, NY: Longman.
- Hall, E. T.(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NY: Anchor.
-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 Heine, Bernd(1995), “Conceptual grammaticalization and prediction”, *Language and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ed. John R. Taylor and Robert E. Maclaury, Berlin: Gruyter.

-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emeyer.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London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ne, Bernd, Ulrike Claudi, and Friederike Hunnermeyer(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ffman, R.R.(1983), "Recent research on metaphor", *Semiotic Inquiry* 3.
- Hopper, Paul J. & Traugott, Elizabeth C.(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 Press.
- Hopper, Paul J.(1991), "On some principles of grammaticalization", In Traugott, & Heine eds.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I*.
- Horning, Alice(1987), *Teaching writing as a second language*.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 Hughes, Arthur(1989), *Testing for Language Teachers*, Cambridge.
- Hunter, J. E. & Boster, F. J.(1987), "A Model of Compliance-Gaining Message Selec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54(1),.
- Hutchby, Ian. (1996). *Confrontation Talk: arguments, asymmetries, and power on talk radio*. New Jersey: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 Hutchison, T. & A. Waters.(1987),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 A learner-centered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wang, Juck-ryoon.(1990). 'deference' versus 'politeness' in Korean Speech.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Language*.
- I.S.P. Nation(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niv Press.
- J. Sanjaa. (1993). *Orchin tsagiin mongol helnii avia zui*. Ulsiin hevleh uildver.
- J. Tsoloo. (1976). *Orchin tsagiin mongol helnii avia zui*», Shinjleh Uhaanii Akademiin heblel.
- Jack C. Richards, Willy A. Renandy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5-360 等.
- James R. Nattinger, Jeanette S. DeCarrico(2001), *Lexical Phrase and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James, C. (1980). *Contrastive Analysis*. Harlow: Longman.
- James, C. (1998). *Errors in Language Learning and Use*. New York : Addison Welsey Longman Inc.
- Jespersen, O.(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Johns, A. M.(1991),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Its history and contributions.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Boston: Newbury House.

- Jordan, R.R.(1997),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ren E. Johnson. (1995).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 Second Language Classroo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sper, L. (1997). Assessing long-term effects of content-based ELT instruction, *The Internet Journal*.
- Kavaliauskiene G., & Janulevieiene V. 2001. Using the Lexical Approach for the Acquisition of ESP Vocabulary. *The Internet TESL Journal* Vol. VII, No. 3. March 2001 <http://www.aitech.ac.jp/~iteslj/>).
- Kellermann, K. (2000), “A goal-directed approach to gaining compliance: Differences in behavioral acceptability for different compliance gaining goals”, *Communication Monograph* 67.
- Kim, H. & Allard, J.(1996), “Acoustic and perceptual evidence for complete neutralization of manner of articulation in Korean”, *Journal of Phonetics* 24.
- Kim, Renoud Young-Key(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Seoul: Tower Pres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King, Brian(1989), *The conceptual structure of emotional experience in Chinese*, Ph.D. diss., Ohio State University.
- Kirkpatrick, A.(1995).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the four Priority Asian Languages. *Australian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2.

- Kovecses, Zoltan and Peter Sxabo, (1996), "Idioms: A view from cognitive linguistics", *Applied Linguistics* 17-3:326-355쪽.
- Kovecses, Zoltan(1999), "Metaphor: Does it constitute or reflect cultural models?", *Metaphor in Cognitive Linguistics*, ed. Raymond W. Gibbs and Gerard Steen, Amsterdam:John Benjamins.
- Kramsch, C.(1998), *Language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 Kroll, B.(2001), "Considerations for Teaching an ESL/EFL Writing Course", in M. Celce- 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 Ladefoged, P.(1982), *A course in Phonetics*, 2nd(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eorge and Mark Turner(1987),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R.(1975), *Language and Wome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language*. Washington D.C.: TESOL.
- Larsen-Freeman, D.(2001), "Teaching Grammar"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 Larson-Freeman, D., & Long, M. H. (1991). *An introduction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 London: Longman.
- Lee, Dong-eun. (2002). A Study of Language of Evaluation: An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achers' Discourse Pattern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 Lee, Dongjae, ed.(2000), *Studies on Korean in Community Schools*, Honolulu: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Curriculum,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ee, Dong-Jae. (1995). The State of the Art in and Desiderata for Korean Language Textbook Compilation.
- Lee, Hee-Kyoung(2002). ACT Korean Language Program,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 An Ecological Perspective*, 2002 Workshop in Australasia.
- Leech, Geoffrey N.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1997). *Implementing the Lexical Approach: Putting Theory into Practice*. Hove UK: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ewis, M. eds.) (2000). *Teaching Collocation: Further Developments in the lexical approach*. Hove. England: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Littlejohn, S. W.(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5th

- ed. Wadsworth: CA, 커뮤니케이션이론, 김홍규 역 나남출판사.
- Long, M. H. (1983). Linguistic and conversational adjustments to non-native speak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5(2).
- Lynch, Brian K.(1996), Language Program Evaluation, Cambridge Applied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77), Semantics (2 vol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ons, J.(1995), Linguistic Semantics : An Introduc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ianne Celce-Murcia,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einle & Heinle Thomson Learning, Third Edition.
- Martin, S. (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 Charles E. Tuttle Company. Japan.
- Marwell, G., & Schmitt, D. R.(1967), “Dimensions of compliance-gaining behavior: An empirical analysis”, *Sociometry* 30.
- Matsuki, Keiko(1995), “Metaphors of anger in Japanese”, *Language and the cognitive Construal of the World*, ed. John R. Taylor and Robert E. Maclaury, Berlin:Gruyter.
- McCarthy, Lucille Parkinson(1987), “Stranger in strange lands: A college student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 MCEETYA (Ministerial Council o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and Youth Affairs, 2000). *The NALSAS Strategy Phrase 2 Strategic Plan 1999-2002*. Canberra: JS McMillian.
- McRoberts, Sook-Hee (2002).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in Primary and Secondary Korean Language Program in NSW.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 An Ecological Perspective, 2002 Workshop in Australasia*.
- Mey, Jacob L. (1993), *Pragmatics: An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Inc..
- Michael Lewis ed.(2000), *Teaching Collocation - Further development in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Michael Lewis(1993),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 Michael Stubbs(2002), *Words & Phrases*, Blackwell Publishing.
- Moras, Solange (2001), *Teaching Vocabulary To advanced Students: a Lexical Approach*. Karen's Linguistics Issues. July 2001.
- Morley, J.(2001), "Aural Comprehension Instruction: Principles and Practices",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 Nation, I. S. P.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Heinle & Heinle Publishers.
- Nattinger, J. R., & J. S. DeCarrico(1992), *Lexical phrases and*

-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Nessa Wolfson. (1989), *Perspectives Sociolinguistics and TESOL*. Newbury House Publishers.
- Noguchi, J. (1997), Materials development for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Applying genre analysis to EFL pedagogy, *English Teaching*,
- Nunan, D.(1985), *The Learner-Centered Curricul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nan, D.(1988), *Syllabus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 Nunan, D.(1989), *Designing Tasks for the Communicativ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8-132쪽.
- Nunan, D.(1998),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 Textbook for teachers*, Longman.
- Nunan, D.(2001), “Syllabus Design”,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 Nunan, David(임병민 외 공역, 2003), *제2언어 교수 학습*, 서울: 한국문화사.
- Nuttall, C.(1996), *Teaching Reading Skills in a Foreign Language*, Oxford: Heinemann.
- O'grady. W.(1989), *Contemporary Linguistics*, NY, St Martin's Press.
- Olshain, E.(2001), “Functional Tasks for Mastering the Mechanics of Writing and Going Just Beyond,” in M. Celce-Murcia(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 Foreign Language(3rd ed.)*, Heinle & Heinle.
- Omaggio, A. C.(1986), *Teaching language in context: Proficiency-oriented instruction*.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Oxford, R.L.(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Boston: Heinule & Heinule.
- Park, Duk-Soo(2001), Collaborative Approaches for Teaching Korean Studies,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Ed. by Gregory Nicholas Evon & Chung-Sok Suh, KAREC, 2001.)
- Parrott, Martin. (1993). *Tasks for Language Teachers: A resource book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d, J.M.(1996), *The Process of Paragraph Writing*, Prentice Hall Regents.
- Richards Jack C. & Rodgers Theodore S.(전병만 외 공역, 1999), *외국어 교육 접근 방법과 교수법*, 서울: (주)홍익FLT.
- Richards, J. C. (1971). Error analysis and second language strategies. *Language Sciences* 17.
- Richards, J. C. and Renandya, W. A.(2002),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1990, 1999), *The Language Teaching Matrix*,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 Sampson, G. P. (1974), *The study of learner*

- English. In J. C. Richards (ed.) *Error Analysis :Perspectives 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 Longman.
- Richards, Jack and Nunan, David. (1990), *Second Language Teacher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vers, W. M. and Temperley, M. S.(1981), *A Practical Guide to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 Rutherford, W. E. (1987),*Second language grammar: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 S. Muuuu. (1979), *Orchin tsagiin mongol helnii avain zui*. Ulsiin hevleliin gazar.
- Saeed, John I. (1997), *Semantics*. Cambridge: Basil Blackwell Inc.
- Sanderson, P.(1999), *Using Newspapers in the Classro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ra Cushing Weigle(2002), *Assessing Writ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rin, Deborah.(1990), *The Management of a Cooperative Self during Argument: the role of opinions and stories*. In Grimshaw(ed.) *Conflict Talk*: Cambridge Univ. Press.
- Schiffrin, Deborah. (1994), *Approaches to Discourse*. Blackwell.
- Schmitt, N. (2000), *Vocabulary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 Lubsanvandan & B. Demtigdorj.(1951), *Mongol helnii zui-Avia ba ugiin zui*. Ulsiin hevleh uildver.
- Shaughnessy, Mina P.(1977), *Errors and expectations: A guide*

- for the teacher of basic writing*. New York: Oxford Univ. Press.
- Shin, Gi-Hyun & Suh, Chung-Sok ed. (2002).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 An Ecological Perspective*. Korea-Australia Research Centre,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Shin, Gi-Hyun(2002), "Practical Sid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st Korean Studies Workshop in Southeast Asia, KAREC.
- Shin, Seong-Chul(2002). *Korean in NSW: Is sinking? or diving?,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 An Ecological Perspective*, 2002 Workshop in Australasia.
- Snow, M. A.(1991), *Teaching language through content*.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Boston: Newbury House.
- Snow, M.A., & Brinton, D.M.(1988), "Content-based language instruction: Investig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djunct model"., *TESOL Quarterly*.
- Sohn, Ho-Min(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lomon, J., Rhodes. N.(1995), "Conceptualizing academic language", *Proceedings of the First Research Symposium on Limited English Proficient Student Issues*.
- Srum, Judith L. & Eileen W. Glisan(2000), *Teacher's Handbook-Contextualized Language Instruction*.

- Stern, H. H. 1997. *Fundamental Concept of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 Sterns, Peter (1994), *American Cool*, New York: NY University Press.
- Suh, Hyuk(2003), "Current Policies and Issu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 2003 KAFLE International Conference Proceedings, The Korea Association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 Tannen, Deborah.(1984), *Conversational Style: Analyzing Talk among Friends*. Norwood, NJ: Ablex.
- Tannen, Deborah.(1986), *That's Not What I Meant: How Conversational Style Makes or Breaks Relationship*. Ballentine.
- Tannen, Deborah.(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Ballentine Books.
- Tannen, Deborah.(1994), *Talking from 9 to 5, Women and Men in the Workplace: Language, sex, and power*. Avon Books. NY.
- Tannen, Deborah.(1999), *The Argument Culture: Stopping America's war of Words*. Ballentine Books. NY.
- Tannen, Deborah.(2001), *I Only Say This Because I love You: how the way we talk can make or break family relationships throughout our lives*. Random House.
- Taylor, John R. & Thanti G. Mbense(1998), "Red dogs and rotten mealies: How Zulus talk about anger, Speaking of

- emotions”, *Conceptualisation and Expression*, ed. Angeliki Athanasiadou and Elzbieta Tabakowska, Berlin: Mouton de Gruyter.
- Thompson, G.(1996),.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Thompson, Geoff.(1996), Some Misconceptions About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ELT Journal* Volume 51/1.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nbury, S.(1999),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Thornbury, Scott(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Thornbury, Scott,(1999), 2nd, (2000), *How to Teach Grammar*, Longman.
- Tomlinson, B.(1998), “Glossary of basic terms for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in B. Tomlinson(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C. & Heine, Bernd eds.(1991),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I,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 19*,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Underhill, Nic(1987), *Testing spoken Language*, Cambridge.
- Ur, P.(1996),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r, Penny(1988), *Grammar Practice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r, Penny(1996), *A Course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Vennemann, T.(1988), *Preference Laws for Syllable Structure and the Explanation of Sound Change -With Special Reference to German, Germanic, Italian, and Latin*, Berlin · New York · Amsterdam: Mouton de Gruyter.
- Wallace, Michael J. 1991. *Training Foreign Language Teachers: A reflective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rschauer, M., & Kern, R.(eds.)(2000),*Network-base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helm von Humboldt著 姚小平譯.(1997),. 論人類語言結構的差異及其對人類精神發展的影響. 商務印書館.
- Williams, J. M(2003), *Style: The Basics of Clarity and Grace*, New York: Addison Wesley Longman.
- Wolcott, Willa with Legg, M. S.(1998), *An Overview of Writing Assessment*, NCTE.
- Wood, Colleen(2002). “Current Issues and Challenges in Primary and Secondary Korean Language Program”, *The Futur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Australia: An Ecological Perspective*, 2002 Workshop in Australasia.
- Yalden, Janice.(1987), *Principles of Course Design for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Yoon, Hi-won(2001), *A Stud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in Korean Studies in Oceania and Southeast Asia: Strategic Cooperation in Research and Education*, Proceedings of First Biennial International Symposium,

KAREC.

Zimmerman, D. & West, C.(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 in conversation", In B. Throne & N. Henley (Eds.),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ss.: Newbury House.

<부 록>

부록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 실태조사 설문지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용역을 받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기초 조사 항목

SQ 1)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1. 베트남 2. 필리핀 3. 중국 4. 일본 5. 캄보디아
6. 태국 7. 몽골 8. 러시아 9. 우즈베키스탄 10. 기타___

SQ 1-1) 조선족이에요, 한족이에요?

1. 조선족 2. 한족 3. 소수민족 4. 기타_____

SQ 2) 몇 살이에요?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SQ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중퇴
5. 대학교 졸업(①2년제, ②3년제, ③4년제) 6. 기타: _____

SQ 4) 남편이랑 어떻게 결혼했어요?

1. 연애했어요. 2. 친구/친척이 소개했어요.
3. 결혼중개회사에서 만났어요. 4. 기타: _____

SQ 5) 결혼 전에 무슨 일 했어요? ▪ 예(농사, 공장, 학생, 회사, 선생님)___

SQ 6) 언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입국일: _____년 _____월

SQ 7) 집 주소가 뭐예요?

_____도 _____시/군
_____읍/면 _____동/리

SQ 8) 같이 사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본인 포함)? _____명

1. 남편 ① 있어요. ② 없어요.
2. 딸(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아들(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3. 시아버지 ① 있어요. ② 없어요.
4. 시어머니 ① 있어요. ② 없어요. 5. 기타 가족: _____명

SQ 9) 지금 돈 벌어요?

1. 아니요. 2. 식당에 다녀요. 3. 공장에 다녀요. 4. 농사일을 해요.
5. 학생들을 가르쳐요. 6. 장사를 해요. 7. 기타: _____

SQ 10) 남편은 무슨 일을 해요?

1. 일 안해요. 2. 농업(농부) 3. 어업(어부) 4. 축산업(소, 돼지 키우요)
5. 임업(나무 팔아요) 6. 공무원 7. 회사원 8. 유통업(장사)
9. 운수업(운전기사) 10. 화훼(꽃 키우요)
11. 공장근로자(공장에서 일해요) 12. 단순노무직(공사장에서 일해요)
13. 환경미화원(청소해요) 14. 몰라요. 15. 기타: _____

문 1) 고향에서 한국어 배웠어요?

1. 배웠어요. 2. 안 배웠어요.

문 1-1) 얼마 동안 배웠어요?

1. 1일 2. 2-6일 정도 3. 1주일 정도 4. 2주일 정도
5. 한 달 정도 6. 두 달 정도 7. 3개월 정도 8. 기타: _____

문 1-2) (문 1에서 ‘배웠어요’로 대답한 사람) 어디에서 배웠어요?

1. (장소) ① 결혼중개회사 ② 대학교 ③ 학원
 ④ 선생님 집 ⑤ 종교기관(교회, 성당 등) ⑥ 기타: _____
2. (교육형태) ① 1:1 교육 ② 3-5명 소그룹 교육
 ③ 6-10명 중그룹 교육 ④ 단체 교육(10명 이상)
3. (교육기관) ① 결혼상담소 ② 국가 기관 ③ 대학교
 ④ 사설 학원 ⑤ 종교 단체 ⑥ 민간단체 ⑦ 기타: _____

문 1-3) 선생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1. 한국사람 2. 우리나라(학습자의 모국) 사람

문 1-4) 무슨 책으로 공부했어요?

1. 책 없었어요. 2. 우리나라 말(학습자의 모국)하고 한국말이 있는 책이었어요. 3. 한국말만 있는 책이었어요.
4. 선생님이 공부할 때마다 컴퓨터로 만들어서 썼어요.
5. 기타: _____

문 2)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1. 예. 2. 아니요.

- * 1. ‘예’로 대답한 사람은 문 2-A-1)번부터 문 2-A-10)번까지 대답해 주세요.
- * 2. ‘아니요’로 대답한 사람은 문 2-B-1)번에서 문 2-B-4)까지 대답해 주세요.

문 2-A-1) (문 2에서 ‘예’로 대답한 사람) 얼마 동안 배웠어요?

- 1. 1일 2. 1-2주일 정도 3. 1-2개월 정도 4. 3-5개월 정도
- 5. 6개월-1년 6. 1-3년 7. 기타: _____

문 2-A-2) 한국어 배울 때 돈 냈어요?

- 1. 아니요. 2. 예, 냈어요. (얼마예요? _____ 원)

문 2-A-3) 누가 한국어를 배우라고 했어요?

- 1. 시청, 군청, 동사무소 사람 2. 남편 3. 시부모님
- 4. 이웃사람들 5. 한국어 선생님(농림부 한국어방문교육도우미)
- 6. 이주여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 7. 다른 외국인 친구 8.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 9. 기타: _____

문 2-A-4) 누구한테 배웠어요?

- 1. 혼자 공부했어요. 2. 남편 3. 시부모님 4. 이웃사람들
- 5. 농림부 한국어방문교육도우미 6. 이주여성 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
- 7. 다른 외국여성
- 8. 종교단체(교회, 성당 등) 9. 기타: _____

문 2-A-5) 왜 한국어를 배웠어요?(중요한 순서대로 쓰세요.)

- 1. 그냥 배우고 싶어서 2. 한국/한국어가 좋아서
- 3. 한국어로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 4. 가족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어
- 5. 한국문화나 예절을 배우고 싶어서

6. 아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7. 한국어를 더 많이 알고 싶어서
8.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해서
9. 돈을 벌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10. 기타: _____

문 2-A-6) 한국어 책 이름이 뭐예요?

1. 책 없어요. 2 책은 있는데 뭔지 몰라요.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초급』(여성가족부)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중급』(여성가족부)
5.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농림부)
6.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한국어세계화재단)
7.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문화관광부)
8. 기타: _____

문 2-A-7) 그 한국어 책이 어땠어요?



문 2-A-7-1) (위에서 4와 5로 대답한 사람) 한국어 책이 왜 마음에 안 들었어요?

1. 너무 어려웠어요.
2. 너무 쉬웠어요.
3. 책에 설명이 조금 있어서 혼자 공부할 수 없었어요.
4.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어서 재미가 없었어요.
5. 책에서 사용하는 말하고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달라서 도움이 안 됐어요.
6. 기타: _____

문 2-A-8) 한국어를 배울 때 한국어 선생님은 어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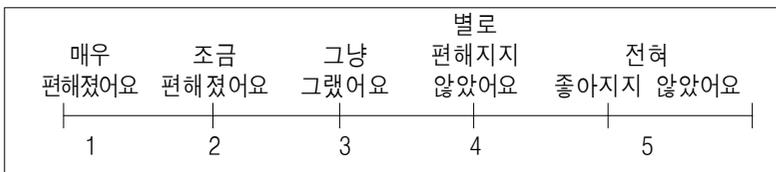
문 2-A-8-1) (위에서 4와 5로 대답한 사람) 한국어 선생님 **이 왜 안 좋았어요?**

1. 내 나라(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했어요.
2. 한국어에 대한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3. 한국어에 대해 물어 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4. 국적취득이나 아이 돌보기 등에 대해 물어 보면 잘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5. 기타: _____

문 2-A-9) 한국어를 배울 때 선생님하고 어떤 걸 가장 많이 했어요? 많이 공부한 순서대로 쓰세요. ()

1. 말하기
2. 읽기
3. 듣기
4. 쓰기

문 2-A-10)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가 더 편해졌어요?



문 2-B-1) (문 2에서 '아니요'로 대답한 사람) 왜 한국어 공

부를 못했어요?

1. 시부모님이 반대해서요.
2. 남편이 반대해서요.
3.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요.
4. 돈을 벌어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5. 농사일을 해야 하니까요.
6.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서요.
7. 어디서 가르쳐 주는지 몰라서요.
8. 기타: _____

문 2-B-2)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아주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다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전혀 배우고 싶지 않아요
1	2	3	4	5

문 2-B-3) (문 2-B-1에서 1과 2로 대답한 사람)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1. 한국어를 모르니까 알고 싶어요.
2.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3. 한국어선생님하고 생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우리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5. 그냥 심심하니까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요.
6. 기타: _____

문 2-B-4) (문 2-B-1에서 4와 5로 대답한 사람)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지 않아요?

1. 이미 한국어를 잘 해요.
2. 살다 보면 그냥 다 알게 될 것 같아요.
3. 너무 바빠서 한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4. 남편이 싫어해요.
5. 시부모님이 싫어해요.
6. 기타: _____

문 3) 동네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조금 몰라요	전혀 몰라요
1	2	3	4	5

문 3-1) (문 4)에서 4와 5로 대답한 사람) 동네사람들이 하는 말을 왜 몰라요?

1. 말이 너무 빨라요.
2. 처음 듣는 말이 많아요.
3. 내가 텔레비전에서 들은 말, 책에서 배운 말, 선생님한테 배운 말하고 달라요.(사투리로 말해요.)
(예: 지름→식용유/참기름/들기름, 지→김치).
4. 기타: _____

문 4) 은행, 시장, 마트, 동사무소 등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조금 알아요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1	2	3	4	5

문 4-1) (문 4)에서 4와 5로 대답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왜 몰라요?

1. 말이 너무 빨라요.
2. 처음 듣는 말이에요.
3. 사투리로 말을 해요(우리 동네 할머니와 같은 말) (예: 지름→식용유/참기름/들기름, 지→김치).
4. 표준어로 말을 해요(텔레비전 뉴스와 같은 말) (예: 밥을 먹었으니까→밥을 먹었으께).
5. 기타: _____

문 4) 은행, 시장, 마트, 동사무소 등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문 4-1) (문 4)에서 4와 5로 대답한 사람) 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예: 딸기는 사았어요.→딸기를 샀어요).
2. 단어를 잘 몰라서요. (예: 은행에서 돈을 ...→은행에서 돈을 찾아요.)
3. 문법이 틀려서요.(예: “선생님, 오늘, 가, 베트남, 아파, 남편, 한국, 엄마→한국 엄마 아프니까 남편이 오늘 나한테 베트남 가라고 했어요).
4. 기타: _____

문 5) 표준어와 사투리가 뭔지 알아요?

1. 알아요. 2. 몰라요.

문 5-1) (문5에서 1로 대답한 사람) 표준어를 배우고 싶어요? 사투리를 배우고 싶어요?

1. 표준어만 배우고 싶어요. 2. 사투리만 배우고 싶어요.
3. 둘 다 배우고 싶어요.

문 6) 하루에 몇 시간 한국말 해요?

1. 한국말 안 해요. 2. 1시간보다 적어요.
3. 1시간보다 많아요. 4. 3시간-5시간 정도 해요.
5. 5시간보다 많아요.

문 7) 한국어를 (더 많이) 배운다면 어떻게 배우고 싶어요?

1. 한국어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2.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곳으로 가서 여러 명이 함께 배우고 싶어요.
3. 텔레비전 방송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4. 녹음테이프/CD하고 한국어 책을 주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문 7-1) (문 7에서 1로 대답한 사람) 한 번에 만나서 1시간씩 공부한다면, 한국어 공부는 1주일에 몇 번 하면 좋겠어요?

1. 1번
2. 2번
3. 3번
4. 4번
5. 5번 이상

문 7-2) (문 7에서 2로 대답한 사람) 한 번에 만나서 1시간씩 공부한다면, 한국어 공부는 1주일에 몇 번 하면 좋겠어요?

1. 1번
2. 2번
3. 3번
4. 4번
5. 5번 이상

문 7-3) 한국어 공부는 얼마 동안 하면 좋겠어요?

1. 1-3개월
2. 3-6개월
3. 6-12개월
4. 1년 이상
5. 2년 이상

* 아이가 있는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문 8) 아이가 몇 살이에요?(아이가 2명이면 대답도 2개 해주세요.)

1. 1살
2. 2-4살
3. 5-7살
4. 8-10살
5. 11-13살
6. 중학생
7. 고등학생

문 9) 집에서 아이하고 어느 나라 말로 더 많이 이야기해요?

1. 한국어
2. 영어
3. 일본어
4. 중국어
5. 베트남어
6. 기타: _____

문 10) 집에서 누가 아이하고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1. 이야기 안 해요.
- 2.엄마
3. 아빠
4. 할머니
5. 할아버지
6. 아이들끼리
7. 기타: _____

문 11) 가족들 중에서 누가 제일 아이하고 많이 놀아요?

1. 아이 혼자 놀아요.
- 2.엄마
3. 아빠
4. 할머니
5. 할아버지
6. 아이들끼리
7. 기타: _____

문 12) 아이한테 누가 한국어를 제일 많이 가르쳤어요?

1. 안 가르쳤어요.
2. 제가(엄마가) 가르쳤어요.
3. 아빠가 가르쳤어요.
4. 할머니가 가르쳤어요.
5. 할아버지가 가르쳤어요.
6. 기타: _____

문 13) 한국어 말고 다른 것도 가르쳐요?

1. 악기 교육(피아노 등)
2. 외국어 교육(영어 등)
3. 운동(태권도 등)
4. 미술 교육(그림, 종이접기 등)
5. 기타: _____

문 14) 집에서 학습지(선생님이 집에 와서 아이하고 같이 공부해요)를 풀어 본 적이 있어요?

1. 있어요.
2. 없어요.

문 12-1) (문 12에서 1로 대답한 사람) 어떤 과목이에요?

예) 국어, 영어, 수학, 한문, 중국어, 기타

과목명: _____

문 12-2) 아이가 학습지로 공부하고 나서 성적이 좋아졌어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나은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용역을 받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 방안 연구에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교육자 대상 기초 조사 항목

SQ 1) 생년월일 _____ 1-2) 학력 _____

1-3) 전공 _____

SQ 2) 거주지역은 어디십니까?

_____ 도 _____ 시/군 _____ 읍/면

SQ 3) 한국어 교육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1. 1년 미만 2. 1년-3년 3. 3년-5년 4. 5년 이상

SQ 3-1)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 민간 자격증
2. 국가자격증
3.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료증(대학 부설기관)
4. 없음

SQ 3-2) 한국어 교육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습니까?

(직종) _____ (기간) _____

문 1)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 농림부 공문·홍보물을 통해
2. 지자체 공문·홍보물을 통해
3. 관련 방송·신문 기사를 통해
4. 관련 단체 홍보물을 통해
5. 주변 지인의 권유에 의해
6.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사회단체의 모집 공고
7. 종교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가
8. 기타: _____

문 2)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사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 2-1) (문 2에서 1을 선택한 분) 교육 기관과 기간을 적어주십시오.

1. 교육기관:

- ① 대학부설 교육기관 ② 농림부와 같은 중앙정부기관
③ 시·군 지자체 ④ 한국어세계화재단
⑤ 민간단체 ⑥ 기타 (_____)

2. 교육기간:

- ① 1일-2일 ② 1주일 이내 ③ 2주 이상
④ 1개월 이내 ⑤ 1개월 이상
⑥ 3-6개월 ⑦ 6개월 이상 ⑧ 기타: _____

3. 교육비: (_____)

문 3) 현재 귀하가 한국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1. 농림부 한국어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
2.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주여성지원센터
3. 대학부설 한국어교육기관
4. 시·군 지자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5.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6. 종교단체
7. 기타: _____

문 4) 현재 교육 중인 학습자는 몇 명입니까?

1. 5명 이하 2. 5-10명
3. 10-15명 4. 20명 이상

문 5) 현재 교육 중인 학습자의 출신국가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은 국가부터 차례로 복수 응답: _____)

1. 베트남 2. 필리핀 3. 중국 4. 일본 5. 캄보디아 6. 태국
7. 몽골 8. 러시아 9. 우즈베키스탄 10. 기타_____

문 6) 귀하가 학습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로 가능했습니까?

	대부분				
다 알 수 있었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	대충 알 수 있었다	잘 못 알아들었다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1	2	3	4	5	

문 6-2) (문 6)에서 4와 5로 대답한 분) 귀하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장애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가장 힘들었던 점부터 복수 응답 가능) ()

1. 학습자가 한국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었다.
3.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이 너무 나빠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
4.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이 이상해서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5.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6. 기타: _____

문 7) 현재 귀하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1. 일대일 방문교육
2. 5명 이하 소그룹 교육
3. 1-2회 방문교육과 1-2회 소그룹 교육 병행
4. 5-10명 정도의 집합교육
5. 10명 이상의 집합교육
6. 기타 _____

문 7-1) (문 7)에서 1로 대답한 분) 한국어 방문 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1. 가족(남편, 시부모 등)의 냉대
2. 교육 중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등의 환경적 어려움
3. 학습자의 집이 산간오지에 있어서
4.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 학습 시간이 수시로 변동
5. 학습 장소 등이 교육에 적절하지 않음
6. 기타: _____

문 7-2) (문 7에서 2-6로 대답한 분) 한국어 소그룹교육이
나 집합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1.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
2. 학습자가 학습에 자주 결석함
3. 학습 기간의 중반 이후 학습자가 아예 불참
4. 장소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음
5. 기타: _____

문 8) 현재 귀하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아동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학습지
2. <우리엄마의 한국어 초급>(농림부)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여성가족부)
4.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여성가족부)
5.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한국어세계화재단)
6.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첫걸음>(한국어세계화재단)
7.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한국어세계화재단)
8.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
9. 기타 _____

문 9)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여성결혼이민자를 교육하기
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요

문 9-1) (문 9에서 2로 대답한 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
의 내용 중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가장 중요한
것부터 복수 응답 가능)()

1. 교과목의 내용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2. 1과를 구성하고 있는 분량이 너무 적다.
3. 1과를 구성하고 있는 분량이 너무 많다.
4. 어휘나 문법 설명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5. 교과 내용에 사용된 대화문이 현실에서의 활용도가 낮다.
6. 대화문 이외에 제공되는 내용(한국문화 등)이 한국사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7. 내용이 너무 쉽거나 어려워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교재가 없다.
8. 표준어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투리를 가르치기가 어렵다.
9. 기타(_____)

문 10) 한국어교육 이외에 다른 내용도 교육하고 있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1.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 2. 한국의 생활예절(인사법, 식사예절 등)
3. 임신·출산과 관련된 내용 4. 국적 취득 방법과 절차
5. 생활상담(부부갈등, 가족관계 등) 6. 부부관계(성 생활) 상담
7. 자녀 교육 관련 상담 8. 기타 _____

문 11) 한국어 교육을 하고 보수를 받으십니까?

1. 예
2. 아니요

문 11-1) (문 11에서 1을 선택한 분) 한국어 교육을 하고 귀하가 받는 강사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1. _____ 시간 당 _____ 원
2. 월수입 _____ 원

문 12)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가장 어려운 점부터 복수 응답 가능)

1. 어려운 점이 없다.

2. 수준이 다른 학습자를 동시에 교육해야 해서
3. 교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4. 학습자가 하는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5. 교육환경이 적절하지 않아서
6. 내가 한국어 교육 경험이 적어서
7. 학습자가 배우고자 원하는 내용이 교재에 담겨 있지 않아서
8. 내가 한국어 교수법이나 한국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9. 기타: _____

문 1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자료를 개발한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가능)

1.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투 2. 한국의 전통문화 예술 관련 내용
3. 국적취득 방법 4. 한국의 일상생활 예절
5. 부부 갈등이나 가족관계 상담 6. 기타: _____

문 14)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교육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대일 방문 교육
2. 3-5명 정도의 교육장 집합 교육
3. 5-10명 정도의 교육장 집합 교육
4. 10명 이상의 교육장 집합 교육
5. 독학이 가능한 한국어교재와 녹음테이프, CD 배포
6.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지원
7. 텔레비전 교육 프로그램 방송
8. 기타: _____

문 14-1) (문 14)에서 1로 대답한 분) 방문교육을 시행할 경우, 교재는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일 학습지 형태
2. 2주-1개월 분량의 학습 내용으로 분권된 교재
3. 책 한 권 형태의 교재

4. 일일 학습지와 오디오테이프/CD 형태의 부교재
5. 분권된 교재와 오디오테이프/CD 형태의 부교재
6. 책 한 권 형태의 교재와 오디오테이프/CD 형태의 부교재
7. 기타: _____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기관별 전화 설문 시 질문 항목

1. 기관의 소재

_____도 _____시/군
_____읍/면 _____동/리

2.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유무 여부

(O, X)

3.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 계기

(설명예시)

- ①농림부 사업으로 ②여성가족부 사업으로
- ③기관 자체 내 사업으로 ④종교적인 목적으로
- ⑤인권보호 차원에서 ⑥영리 목적으로
- ⑦기타: _____

4. 교육비의 유료 여부

(O, X)

4-1)유료인 경우, 교육비 가격 : _____원

5. 교육시간 및 교육 횟수

-일주일에 _____시간, _____일

-교육하는 시간대 : 오전, 오후, 저녁, 중일, 주말오전, 주말오후, 주말 저녁, 주말중일

6. 학습자 수 : _____반(그룹), _____명

7. 학습자의 출신국가(많은 순서대로)

8.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설명예시)

- ① 아동 대상으로 시판되고 있는 학습지
- ② <우리엄마의 한국어 >(농림부)
- ③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여성가족부)
- ④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여성가족부)
- ⑤ 1000단어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한국어세계화재단)
- ⑥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한국어세계화재단)
- ⑦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한국어세계화재단)
- ⑧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
- ⑨기타 _____

9. 한국어 교육의 형태

설명예시)

- ①일대일 방문교육 ②5명 이하 소그룹 교육
- ③1-2회 방문교육과 1-2회 소그룹 교육 병행
- ④5-10명 정도의 집합교육 ⑤10명 이상의 집합교육
- ⑥기타_____

10.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강사 제외)

-관리직 _____명, 직원 _____명

11.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경로

설명예시)

농림부, 여성가족부, 도청, 교회나 성당, 기관 내 자체 충당, 기타:

12. 한국어 강사의 수 : _____명

13. 한국어 강사 선발 기준

설명예시)

①한국어교육 전문 강사 ②지역 내 교육경력자

③자원봉사자 ④기관 내 자체 인력 ⑤기타 : _____

14. 학습자의 강사에 대한 만족도

상, 중, 하

15. 학습자 모집 방법

16. 교육 장소

17. 한국어교육 이외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 연구참여자 약력사항

연구책임자: 소강춘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정보화 시대의 속해학습법(공저), 태학사, 2004’

현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사범대학 학장,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조항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그런, 우리말은 없다, 태학사, 2005’

현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생활연구소 소
장

공동연구원: 백두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경상도 사투리의 말맛,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상담소 소
장

공동연구원: 장미영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감형 한국어교육콘텐츠 개
발 및 구성,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6’

현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교육
부 운영위원

연구원: 고은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명쾌한 디지털 글쓰기(공저), 글누림, 2006’

현 전주대학교 국제교육교류원 객원교수,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수라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스토리텔링의 이해(공저), 글누림, 2007’

현 전주대학교 국제교육교류원 객원교수,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연구원: 장충덕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문학박사)

주요 논저 ‘맨드라미의 어휘사, 『새국어교육』 75호, 2007’

현 충북대학교 강사, 국어생활연구소 상근상담원

연구보조원: 김미정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요 논저 ‘멀티미디어 시대의 여성담론, 신아출판사, 2007’

현 전주대학교 국제교육교류원 객원교수,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송지영

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요 논저 ‘멀티미디어시대의 전략적 글 읽기(공저), 글누림, 2006’

현 전주대학교 국제교육교류원 객원교수,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김민옥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주요 논저 ‘오정희 소설에 나타난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인식, 『개신어문연구』 21집. 2004. 12’

현 충북대학교 강사, 국어생활연구소 상근상담원

연구보조원: 손대익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요 논저 ‘박목월 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8’

현 국어생활연구소 상근상담원

연구보조원: 안미애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현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교육 외래교수, 국어상담소 상근상담원

보조원: 김민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현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연구원

보조원: 김경렬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

주요 논저 ‘형용사 비교구성의 특성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7. 8'

현 충북대학교 국어생활연구소 상담보조원

보조원: 전영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수료

현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상담원

보조원: 안주현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현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상담원

보조원: 최준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현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상담원

보조원: 김인규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현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상담원

보조원: 김정아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현 경북대학교 국어상담소 상담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역별 한국어교육실태 및
방문교육방안 연구

발행인 ○ ○ ○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07년 12월 24일

발행일 2007년 12월 27일

인 쇄 ○○○문화사

